공군

7

〈미사일·코메트 綜合〉

第 76 號

軍人과軍紀와命令

休戰10年에北傀는무엇을했나

1963

(상) 오참모부장(吳參謀副長) 소장(少將)으로 승진(昇進)
오점석(吳占石)참모부장이 6월 12일부로 공군준장에서 공군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사진: 장지량(張志良) 참모차장으로부터 계급장을 수여받는 오참모부장)
(하) 「오도넬」미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 방한
이번에 퇴역하게된 「오도넬」미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이 6월 27일 인사차 방한하였다.
(사진: K-16에서 오참모총장의 영접을 받은 오장군)

공군장교부인회(空軍將校婦人會)서 수재민(水災民)에 구호금품(救護金品)

공군장교부인회에서는 6월 29일 참모총장부인 이여사를 비롯한 회원일행이 한국일보사로 장기영(張基榮)사장을 방문하고 남해지구 수해민구호에 써달라고 현금 34,890원과 의류 1,099점, 약품 1상자, 일용품 749점, 기타 구호품 6상자를 전달하였다.
(사진 : 한국일보사에 전달된 구호품)

각부차관(各部次官) 일행(一行) 항공본창(航空本廠) 시찰(視察)
(상) 경제기획원 부원장 차균희씨를 비롯한 각부 차관일행이 6월 14일 항공본창을 시찰하고 우리공군의 기술진을 찬양하였다.
(사진: 항공본창을 방문한 각부차관일행)

비상(非常) 공군지휘관회의(空軍指揮官會議) 개최(開催)
(하) 비상 공군지휘관회의가 6월 28일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 공군이 힘을 모아 수재민구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사진: 비상지휘관회의 광경)

공군 (코메트 미사일 통합) 76호 차례

〈화보(畫報)〉 · · · · · · · · · · · · · · · · · · 표지 2·3·4면 및 차례뒤

표　　지 ……민철홍
목차·컷 ……이순재

군인(軍人) · 군기(軍紀) · 명령(命令)

혁명(革命)의 존엄성(尊嚴性)에 대하여 · · · · · · · 오 점 석(吳占石) 2
군풍기(軍風紀)와 사회도의(社會道義) · · · · · · · 권 순 영(權純永) 8
청년(靑年)과 이상심리(異常心理) · · · · · · · · · 장 병 림(張秉琳) 14
본질적(本質的)인 것과 형식적(形式的)인 것 · · 사회(司會) 이 재 환(李在煥) 20
–군기주변(軍紀周邊)을 말하는 좌담회(座談會)–

◇ 스탈린시대의 호루시쵸프시대의 차이점(差異點) · · · · · 커 신 퀑 88
◇ 소련(蘇聯)의 공포정치(恐怖政治) · · · · · · · · · · · 그리고레프 114
핵시대(核時代)의 미소의 전략구상(戰略構想) · · · · · 권 정 식(權禎植) 59
전투기(戰鬪機)의 무장전자(武裝電子) · · · · · · · · 김 진 억(金振億) 72
◇ 수직(垂直) 이착륙기(離着陸機)에 대하여 · · · · · 주 영 일(周永一) 68
휴전(休戰) 십년(十年)에 북괴(北傀)는 무엇을 했나? · · 한 재 덕(韓載德) 27
휴전 10년의 회고(回顧) · · · · · · · · · · · · · · · 김 영 수(金永洙) 35

공산주의를 <증언(證言)한다>

내가 겪은 붉은 군대생활(軍隊生活)　김　혁(金　赫) 40
공산주의와 사생활(私生活) · · · · 조 성 직(趙誠稙) 45
공산주의치하의 연애(戀愛) · · · · · · 이 철 주(李喆周) 49

우리 군(軍)의 당면과제(當面課題) 군내현상논문(懸賞論文) 〈가작(佳作)〉 · · ·
심 재 빈(沈在斌) 132
후진국(後進國)에 대한 공산원조(共産援助)의 본질(本質) · · · · · · · · · ·
양 흥 모(梁興模) 53
◇ 전쟁영화(戰爭映畫)와 예술(藝術)의 마음 · · · · · 김 규 동(金奎東) 82
고노인(高老人)의 은혜(恩惠)〈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 ⑦ · · · 이 준 수 126

지상강좌 (紙上講座)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 ② · · · 이 극 찬(李克燦) 95
공산주의(共産主義) 비판(批判) ② · · 김 창 순(金昌順) 101

일상어분석(日常語分析)의 중심과제(中心課題)(현대철학강좌) 완(完) · · · · · ·
김 형 석(金亨錫) 107

수필

예의(禮儀)와 친절(親切)과 큐와 · · · · · · · · 이 하 윤(異河潤) 138
신록사기(新綠私記) · · · · · · · · · · · · · · · 고　은(高　銀) 140
토요일(土曜日)의 양식(良識) · · · · · · · · · · 조 병 의(曺秉懿) 142
풍선파도(風船波濤)〈화(畫)·문(文)〉 · · · · · · · · · 천 경 자(千鏡子) 124
단편(短篇) 따뜻한 손 · · · · · · · · · · · · · · · 최 태 응(崔泰應) 144
◇ 편집후기 · · · · · · · · 150

공 군

<코메르, 미사일 統솔>

제 76 호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명령(命令)의 존엄성(尊嚴性)에 대하여

참모부장(參謀副長)
공군소장(空軍少將)
오 점 석(吳 占 石)

훈 시

오늘도 각자 맡은바 임무수행을 위하여 작전분야를 비롯하여 일선 벽고지와 후방지원의 모든 분야에서 불철주야 온갖 고초와 애로를 극복 타개하고 임전태세와 전투능력 배양에 열성을 다하여 굳건히 분투하고 있는 공군 장병 여러분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북한 괴뢰는 이 순간에도 무력적으로 재침의 야욕을 달성코저 군사력을 확장 강화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민정이양을 전후하여 민심소란과 선거방해를 목적으로 대남. 공작기구를 개편하는 일방 불온문 투입과 간첩침투에 광분하고 있는 이 때에 장병 여러분은 변함없이 굳건한 미음으로 군의 본분을 다하고 있음에

새삼 장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우리의 사명이 무겁고 큰 것임을 또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날이 향상과 발전일로에 놓여 있는 우리 공군은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강력한 전투능력을 배양하여 내일의 전투준비에 만유감 없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평소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이 부여한 방대한 공역(空域)의 방패가 되어 국토방위의 참된 역군으로서 숭고한 이념을 완수하기 위하여 용감하고 과감하게 싸우고 최후의 영광된 승리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이 국가와 민족의 지상명령 일진대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나라의 수호신이 될 수 있는 사생관이 뚜렷이 서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군인의 숭고한 사생관은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자기 스스로 몸을 아끼고 나라와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깨끗하고도 참된 의로운 넋이 살아 있어야 할 것이며 존재의식(存在意識)과 목적의식(目的意識)이 뚜렷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확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중한 생명을 요구하는『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주저없이 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윤리관(倫理觀)과 사생관(死生觀)을 몸소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참된 용자를 바라는 곳이 사회와는 특유하게 다른 군대의 특수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초인간적인 희생정신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슬기로운 얼(백(魄))의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고도의 윤리관에 따라서만이 생사선(生死線)을 줄담음질 치는 싸움터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민족적 또는 온누리의 요청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사명감(使命感)으로 어느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자진 복종함은 건실한 국가관(國家觀)과 민족정신에 입각한 현명한 국민의 자질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러한 기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고한 국기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아전은 곧 국민의 정신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가 조회되어 하나의 굳은 국력(國力)을 형성(形成)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극도로 발달 된 현대 과학전에 있어서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원자무기도 사람의 손에 의하여 조작되고 또한 투하될 수도 있으나 그 손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이념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국력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요소가 정신적인 요소보다 우위(優位)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부군(國府軍)이 중국의 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밀려간 비참한 현실을 볼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막대한 미국의 원조와 무기로서도 썩어가는 당시의 국부군의 정신적인 상처는 아물지를 못하였으며 형클어진 군률에는 신념(信念)을 상실하고 사치와 안일에 젖어 이미 전의(戰意)와 사기는 떨어져 전전패배(戰戰敗北)의 고배를 스스로 들고 마침내 대만으로 물러나게 된 엄연한 산 역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의 존재가치(存在價値)는 국내외의 침략적인 적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구성되어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군인이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군의 기본이념을 명백히 인식하고 평소에 교육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여 투철한 군인정신을 길러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에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군은 하나의 특수한 조직사회를 형성하여 군률로서 일사불란(一糸不亂)한 질서를 유지하고 준수하여 명령 일하에 생사를 초월한 과감한 행동에 홀연(忽然)히 임할 수 있는 엄격하며 산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군에서는 군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엄격한 군기로서 다스려지며 상하의 구별과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며 통수계통을 확립하여 명령의 존엄성을 실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길, 제 3 절」에는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라고 다짐하여 군기확립과 명령복종의 중대성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군기가 바른 곳에 명령의 권위가 서 있으며 사기가 앙양되어 있고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존엄성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군은 이미 생명을 잃은 오합지중(烏合之衆)이나 또는 패배한거나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므로 군은 이렇듯 명령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행해지고 통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은 국가 권위의 위임 하는 바에 따라서 지휘권과 명령권이 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으며 통수의 계통에 따라 부하의 지휘통솔에 필요한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지휘통솔은 명령의 절대성과 그 명령에 대한 엄격한 복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명령의 존엄성과 자발적인 복종 없이는 준엄한 군률이라 할지라도 명령으로서 지휘통솔 하기에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한 결과적으로도 결코 형식에 불과함으로 사명을 완수할 기대마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각급 지휘관 및 장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부하들에게 군인으로서의 뚜렷한 사생관과 국가관을 각자가 인식하도록 간단없이 노력하여 확고한 신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명령의 절대성을 강조한 나머지 부하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또는 억압에 못이겨 복종토록 하는 것은 참된 복종행위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사기가 저하되고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부하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심과 창의적인 의욕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케 하는 일은 명령권자의 지도력과 인격 그리고 인간관계가 과분히 작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피명령자 스스로가 명령자를 신망하고 존경함으로써 그가 내리는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이 따를 것이며, 그 임무는 능률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그 명령은 존엄성과 권위를 겸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명령권자로서의 자질이 지휘통솔상의 명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휘 통솔이란 다수의 부하를 지시하고 명령하며 지도하고 감독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말하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나 장교는 이 지휘 통솔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인 바

즉 지휘관-Leader-는,

첫째, 피지도자가…즉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의 욕구를 만족(해결)시켜 주어야 하고,

둘째, 피지도자들의 욕구 조건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자 임을 요하며,

셋째, 이로써 그 지휘관(Leader)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휘관은 부하의 바라는 바 욕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신뢰감을 또한 소속감(所屬感)을 북돋고 용기와 의욕을 자극하며 감화감동의 목표로서 부하를 인도하는『힘』(능력)을 가져야 하는 바 지휘관으로서,

첫째, 임무에 대한 책임

둘째, 상부에 대한 책임

셋째, 동급 타 부대에 대한 책임

넷째, 자기 부대에 대한 책임

다섯째, 자기 부하의 각 개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심하고 참된 책임자로서 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정한 태도를 가지며 언행에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또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임하며 인내성과 신뢰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부하를 아끼고 보살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관에게는 부하가 스스로 복종하고 존경할 것이며 그의 명령은 권위와 존엄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일을 성공적으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공군장병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신에 충실함은 곧 군에 충실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진취성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애국 애족하는 길로 일관되는 것임을 명심하여『명령』에 죽고 살 수 있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엄정한 군기를 확립 함으로써 상하 일치단결하여 국가와 민족의 지상 목표인 승공 통일의 성업 완수에 일로 매진하여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외교관(外交官)의 능력기준(能力基準)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로버트 뱐싯터」경(卿)(영국 외무성 착관, 1881~)은 외교능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책정했다.

▶현명(賢明)하면서 나태—<제1급> 최량(最良)의 적재(適材).

▶현명하면서 에네루깃슈—<제2급> 권장할 만한 가치(價値)는 없으나 때에 따라 기용(起用)할 수 있는 자.

▶둔하면서 나태—<제3급> 청해서 기용할 인물은 못된다. 그러나 어떤 지위(地位)에 두면 필요할 경우가 있는 자.

▶둔하면서 에네루깃슈—<제4급> 가장 무서운 인간. 그저, 경계하라고 충고할 뿐.

◇구우불상면론(舊友不相面論)

어느 좌석에서 누가 「쇼-」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째서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십니까.』

그러자 이 익살 할아버지는

『누구나 젊을 때의 친구를 만나면 그가 나이 들어있는 꼴을 보게 되고 따라서 나도 그만큼 늙는단 말이오.』라고 대답했다.

◇의사(醫師)를 만다는 약(藥)

「쇼-」는 「크로루포름」이라는 약에 대해서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로루포름」은 지극히 중요한 약이지요? 어떤 서투른 외과의도 그를 의사 노릇 시키니까요.』

군인 (軍人) — 군기 (軍紀) — 명령 (命令) ②

군풍기(軍風紀)와 사회도의(社會道義)

권 순 영(權純永)
〈서울지방법원소년부지원장〉

어느 제대군인은 말하였다. 병무소집에 응하여 재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군복을 다시 입고 보니 자기가 사회에서 지키려고 하던 점잖은 체하는 것이라든가 예의와 도덕을 지키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즉, 본능은 다시 그대로 노출되고 감정은 원색으로 변하여 단체 중의 일인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서 자신이 의심할 만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말은 그가 사회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재훈련기간 중에 다시 군복을 입게 되자 단체 속에 하나로서 연대책임하에 행동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군복을 핑계로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군대와 사회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군에 처음 입대하는 청년들은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존재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집합하였다는 점과

젊은이들의 특성이 혼합하여 표현되고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행동은 각 개인의 그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에 있어서는 각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표현되는 전체 중의 하나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행동으로 책임이 돌아오고 군대에서는 이를 모두 합한 연대적 책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전체를 사랑하고 걱정하여 신중한 행동을 하여야 책임 있고 기강이 확립된 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와 같은 특이한 단체에서는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각자가 자기 부대를 사랑하고 아껴야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재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편 다른 면에서 본다면 군대생활과 사회생활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면 유니폼을 입었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직접 자기에서 비난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그러한 여러 젊은이가 모였다는 점에서 행동을 마음대로 하기 쉽고 풍기를 문란하게 함으로써「사람과 군인이 같이 간다」는 해괴한 말로 군인을 일반사회인과 분리하여 말하도록 스스로 행동하는 군인들이 있다. 군인 각 개인이 자기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던 그대로 예의와 도덕을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면 군복무는 사회생활의 한 연장이 될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윗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듯이 군대생활 중에도 똑같은 체계가 있고 또 똑같이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군대생활과 사회생활은 오히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생활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관료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학생과 군인은 극장의 입장료가 할인되고 버스의 요금도 적게 지불할 수가 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인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일까? 또는 수입이 적거나 없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오히려 수입이 거의 없다고 할 품팔이 노동자들에게는 왜 이러한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있는가? 외국에는 도대체 이러한 일은 없다. 그것은 학생과 군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반쪽 사람이야」하고 요금의 반액을 지불하고 스스로 만족하는지 모르겠다. 그만큼의 요금을 지불해도 좋다. 어떤 군인은「월급날 지난 지가 언젠데 그래」하면서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한 다음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용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자기의 철학 내지 인생관과 도의심의 발로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첫째는

똑같은 하나의 인간(人間)으로서. 그리고 둘째로 군인으로서 신중한 행동을 취한다면 자기가 지켜야 할 예의와 도덕 또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에 진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각 개인이 모인 군대는 국민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부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 ×

사회생활에서는 종적 횡적 관계를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자기가 빠진다면 그 자리가 공백이 되고 그 공백을 타인으로서 커버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똑같은 결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으로도 대치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책임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행동에는 신뢰성이 없고 또한 발전성이 희박하며,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사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단체정신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하나의 부속 품으로 생각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더라도 일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군대는 책임감이 없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따라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고 사기가 왕성하지 못한 대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전우애를 발휘하는 용사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는 의심스럽게 된다.

본분을 잘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장병이 모인 부대라면 전투태세를 완전히 구비한 강한 부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작전상 일정한 시간까지 적을 제어할 소대가 죽음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중대, 대대, 또는 연대가 작전에 따라서 전투를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후방에서 국민이 그들을 신뢰하고 후방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일전쟁때 일본군이 점령지역에서는 피점령지역의 주민의 물건에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었으나 제2차 대전 때에는 중국을 침략한 때에는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자를 강간함으로써 중국 국민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만든 것이다.

독일군이 처음 소련땅에 진주할 때에는 주민의 환영을 받았으나 독일군의 광폭한 행동과 대량학살 등으로 첫 번째의 환영은「레지스탕스」로 변했던 것이다. 즉, 이러한 모든 예는 군대의 기율이 서 있지 못하여 군풍기가 문란하게 되고 정치적, 애국적인 감정보다도 직접 눈앞에 보이는 일에 울분을 나타낸 것이다.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단결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을 합리적인 방법과 체계화된 계통에 따라서 발동하여야 정당한 권력행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군대의 기강과 기율이 잘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대의 풍기가 문란하고 기율이 서 있지 않아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 군대를 가진 나라의 사회도의는 따라서 엉망이라고 하겠다.

× × ×

그러면 군풍기가 사회도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고찰하여 본다.

군대는 청년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그 나라의 상징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군대의 정신이나 행위는 그 나라의 상징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융성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상이 건전하고 발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이끌고 나가는 나라는 그러한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부강한 것이 될 것이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할 때는 언제나 「은근과 끈기가 있는 예의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의심을 발휘하는 여러 면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새는 흔히 도의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다. 과거에 존중하던 도덕관념이 그대로 계승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다. 이것은 좀 다르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전에 지키던 도의심이 현대의 서구문명과 기계문명에 의해서 착용하여 변천된 것이다. 그럼으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이나 예절은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변천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른 앞에서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심지어는 안경을 벗어야 하는 정도의 강요된 도덕관념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상호 무난하게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지금의 도덕이란 상대편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즐겨 취할 행동을 택한다면 별로 큰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한계를 명확히 지을 수 없는 것이나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반 사회인의 기대에 어긋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때가 가끔 생긴다. 즉, 혈기가 왕성한 군인들이 그들의 정열과 욕구를 적당하게 소화 시킬 시선이나 이를 받아들일 사회인의 태도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서 군인 각 개인의 욕구불만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자기의 (성적)본능과 사회

에서 일정하게 세워놓은 제한 또는「타부」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욕구불만이 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은 군인 각 개인에게 특히 잘 나타날 것이다. 청년기에는 본능에서 오는 많은 욕구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의「타부」또는 군대생활 중에 제한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각자가 찾아야 할 것이다.「노만 매러」가 쓴「나자(裸者) 와 사자(死者)」에서 어느 준장이 말한 욕구불만의 해결책이 걸작이다. 즉, 군대는 늘 불평 불만에 찬 분위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없도록 육체적 혹사를 시켜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들의 불만이 점점 많이 쌓여져 있다가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불만이 적에게로 돌려져서 상상외로 용감한 군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이차 대전시의 일본군에나 있었던 생각이 물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으로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찾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건전하지 못하면 군의 기울이 서지 못하고 군풍기가 문란한 결과를 가져온다. 군풍기가 문란한 경우에는 사회도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모방하는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하는「틴에이저」들의 행동에 답습될 것이다.

그러나 욕구불만을 해결하고 그것을 발산시키는 방법이 건전한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기 공격적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산이 그릇되어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기를 벌하는 자학적인 태도도 포함하게 된다. 군인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길에서 주정하며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기분을 푼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어떤 실수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무슨 상처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욕구불만의 정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타인이 나 자기에 대한 공격활동에 관한 벌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공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저울질을 하게 마련인 때문에 공격하려는 의욕이 이에 대한 벌측보다 더욱 커서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공격활동은 즉시 일어나게 된다. 그럼으로 욕구불만을 잘못 해결하는 행위가 일정한 제한이나 벌로써 제지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는 성격파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욕구불만은 많이 쌓이기 전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군 풍기와 사회도의의「타부」를 침범하지 않을 한계 안에서 온건하게 발산하여야 본인에게 좋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군인이 모인 군대의 기울이나 풍기가 문란하지 않게 될 것

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군인들이 너무 기분을 내지 말고 자기 본분을 잘 지켜서 자기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던 그대로 예절을 차리고 도덕을 지켜서 훌륭한 국군을 가진 국민이 되고 싶다. 이러한 예절이나 도덕은 예전의 그것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요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명문명답(名問名答)

「에드가 월레스」(작가(作家), 1875~1932)는 추리작가(推理作家)로서 유명하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다.
"월레스, 나는 일전에 자네의 최근작 소설을 읽었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잠을 못잤네. 그리고 이튿날, 출근하는 것도 잊어버렸네. 때문에 나는 그만 회사를 쫓겨났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건, 미안하게 됐는걸.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어. 여기에 새로 쓴 소설이 있으니 곧 읽어주게. 전번에 읽은 것보다 더 재미있을 것이니 자네가 회사를 쫓겨났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거야."

◆구두쇠

미국의 대통령(大統領)「캘번 쿨리지」(제30대, 1872~1933)는 돈에 대해서는 물론 말을 하는데도 유명한 절약가(節約家)였다. 어느 날, 그는 교회(敎會)로부터 병상(病床)에 있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오늘, 어떤 설교(說敎)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만 끄덕하였다.
"어떤 설교가 있었어요?"
"죄(罪)"
"목사님께서는 뭐라구 하셨어요?"
"찬성하지 않았어."

× × ×

청년(青年)과 이상심리(異常心理)

장 병 림(張 秉 琳)
<서울대 문리대교수>

인간의 생활은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의 생활이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여러 가지 생활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지만 이 목표는 항상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적 사회적인 장벽에 저지되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욕구불만상태(欲求不滿狀態)(Frustration)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욕구불만은 심리적 불안정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목표에 대해서의 욕구긴장(慾求緊張) 또 목표달성하는데의 곤란(또는 시행한 다음의 실패)등으로 인하여 그 목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어 거기에는 두 가지 경향의 갈등이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상태는 불안으로서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구불만에 의하여 곧장 마음이 헝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불만에 대한 심리적저항력(心理的抵抗力)(Frustration Tolerance)을 그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점차로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평정(平靜)한 사태를 판단하여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을 적확(的確)히 판단하여 그것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환경에 대한 적응(適應)(Adjustment)이라고 한다. 그런데 적응에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① 환경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을 잘 적응시켜 나가는 것 즉 순응하는 것과

② 자신의 요구에 잘 알맞게끔 환경의 모습을 잘 조정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요인은 구체적 경우에는 불가분의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편이다.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기제(心理的機制)(Mechanism)가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적응의 기제라고 한다.

그리고 적응은 환경 속에서 자기를 방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적응의 기제는 자기방위의 기제(機制)(Defense mechanism)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할 때에는 그 사람을 정상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즉 적응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규정하게 되므로 적응의 양부(良否)가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부적응상태는 사회문제의 기본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그럼으로 정신적 위기의 하나로서 부적응상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적응상태는 자기와 외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어느 발달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은 주체 측의 조건과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측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청년기의 부적응상태는 우선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변화가 급격하다는 그 자체가 부적응의 주요인이 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청년의 자아도 이때까지 성인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던 것이 대등한 자아로 성장하려고 의식적으로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는데 약간의 불안이 수반(隨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심신 양면의 내부적 혼란에다가 가일층(加一層) 청년들을 둘러 쌓고 있는 외계가 용이하게 청년들을 완성한 성인으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사회적 의미인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기 쉬운 것이 청년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예외 없이 불안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친우(親友)에게 자신의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과 또 그것조차 할 수 없어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 또 얼른 보기에는 어떠한 고민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같은 사람들도 그 내부에는 심각한 불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안은 자기의 욕구가 저해되었을 때에 혹은 저해되어 있다고 느꼈을 때에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인데 각종의 부적응행동의 기본적인 준비인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기에 자기에 관한 문제와 또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 등 전부가 고민의 대상이 되어 불안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든다면 얼굴이 추하다든가 키가 적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비만해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신체적인 문제와 또 학교성적이 나쁘다든가 주의를 집중하여 공부할 수 없다든가 라는 등의 지적문제가 또 양친과의 관계가 여의치 못하다든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청년 자신이 성장하는 것으로써 비로써 해결되는 것이며, 단순히 청년의 주위에 있는 조건이 호전(好轉)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불안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

어떤 고민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것과 또 많은 고민이 중첩되어 있는 것과 또 하나하나의 고민이 의식되지 않고 전체로서 어떠한 불안감을 품고 있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주체는 아직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그 불안상태에 견딜 수 있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열등감은 아동기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청년기에 급격히 증대하여 가는 부적응상태의 하나이다.

열등감은 여러 모양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나 아마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아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그 불만의 감정이 자아의 중핵(中核)에 예민하게 미치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 반응형식은 거의가 고정된 행동의 유연성을 빼앗어 버리고 심각한 자기부정의 감정에 빠져가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서는 주체는 이미 문제해결 장면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한단 낮아진 수준에 자기를 거(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똑똑히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현실의 자신과의 낙차(落差)에만 민감하여 그 불만한 감정을 전부 짊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이다.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목표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목표달성의 성부(成否)가 자신의 책임 여하에 따라 있으면 있을수록 장(場)(Field)의 긴장은 높아지며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의 열등감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든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적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청년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네는 자신의 무능함과 모든 점에 있어서 전부 부족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열등감이 고정하게 되면 실제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계와 외계의 상황은 이미 결정적 현실인 것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분리되어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고 있는 부적응상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에 놓이게 된다.

꼭 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한편은 실패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정하고 자신의 혹은 자신 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는 다음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이와 같이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임상적(臨床的)으로는 청년이 자신을 인지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청년기의 신경증(神經症)(Neurore)인데 이것은 청년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의 하나이다. 불안이나 열등감과는 다르며 신경증의 경우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불안상태가 극도로 높아져서 직접적인 심리적기제는 후퇴하고 이상한 증상만이 나타난다. 그런데 증상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신체기능과 신체기관의 이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많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몇 개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안신경증이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는 별로 어떠한 절박한 사정도 없는데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며 또 실제적으로는 하등의 생리적인 이상이 없지만 어지럽다든가 숨이 막힐 것 같다든가 가슴이 이유 없이 공연히 두근두근거린다든가 하는 신체의 기능기관에 이상감을 느끼는데 그 이상이 점차로 악화하여 죽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으며, 또 현재의 학교나 직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보지(保持)되지 않지나 않을까 또 친우들에게 버림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등의 사회적인 희미의 것도 있으며 또 자기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까 하는 실존적인 의미의 불안 등도 있다. 이러한 것은 불안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게 호소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 그 자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막연한 호소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할 것 없이 본인으로서는 붙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불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강박신경증(强迫神經症)인데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공포감이 수반하는 것인데 높은 곳에 가면 무섭다든가 또 뾰족한 것이 무섭다든가 또 개나 고양이와 같은 특정한 동물이 무섭다든가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도무지 무서워할 리가 없을 터인데 어쩐지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섭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공포의 극에 달하여 있으며 얼굴이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진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나 않나 하는 정도에까지 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밖에도 특히 공포에까지 사로 잡혀져 있지는 않아도 불합리한 이념에 사로잡혀 벗어나려고 해야 벗어날 수 없는 강박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얼굴이 붉어지지나 않을까, 또 잡념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나 않을까, 또 독서 중에 손에 미균(黴菌)이 묻어 있다고 하여 몇 번이고 비누로 손을 씻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히스테리(Hysteria)성격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현시적(自己顯示的)이어서 유치한 과장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극단적인 것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이 히스테리 증상은 욕구불만 등의 긴장상태가 신체상의 증상으로 전환하여 나타난다든가,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행동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수족이 갑자기 무기력하게 되어 글씨를 전혀 쓸 수 없다든가, 또 전혀 걸어 다닐 수 없다든가, 또 극히 과민(過敏)한 연출적인 감정표현(웃는다든가, 운다든가, 격노(激怒)한다든가)등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히스테리라고 하면은 여자에게만 잇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히스테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여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경쇠약(神經衰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신의 권태감(倦怠感) 피로감이 현저한데 특히 청년기에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기억력의 감퇴(減退)와 주의산만(注意散漫)에 의한 학습부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때까지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좀체로 기억할 수가 없다든가 또 기억해도 곧 망각한다든가 또 좀 사색한다든가 무엇을 해도 끈기있게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곧 방기(放棄)해 버린다든가 또 빨리 해보려고 하면 그럴수록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실하고 침체된 매일을 계속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과로와 긴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일과성(一過性)의 것이 많으며 다른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잡한 발생적 심리기제는 그다지 없다.

그리고 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응상태의 극단적인 것으로서 정신병이 있다. 특히 분열병(分裂病)의 발병 등은 청년기에 눈에 띄는 것이지만 너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상의 부적응상태를 불안, 열등감, 신경증의 세 단계로 나누어 언급했지만 이것은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형적으로 나누었음에 불과한 것이며 임상적으로는 몇 개의 단계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도 많다.

그럼으로 정상(正常)한 정신상태를 지니게끔 정신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부터 우선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건전하고도 완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려면 중독성이 있는 음식을 삼가야 하겠으며 또 좋지 못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독(梅毒)과 같은 것은 정신작용의 장해(障害)를 많이 초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되겠다.

이럼으로써 하나하나의 행동은 정상해질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적응으로써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하나 주의할 것은 쾌(快)한 환경을 택하여 거처할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건실한 정신상태의 소유자라도 환경이 복잡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적든 많든 간에 부적응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주위의 성인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청년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성장을 위한 한 과정으로 보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청년들의 반항적 태도도 그 외계상(外界上)에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부모에게 반항한다고 이해 없이 청년을 취급하는 부모들도 많다.

이와 같은 거부적인 장면에서는 청년의 긴장은 더욱더 높아져 악순환은 가속도적으로 진행해 간다.

청년기의 정신위기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그 위기를 장래에 갖추어서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반대로 해롭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청년 자신의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사회적장(社會的場)의 전(展)이며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조건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보 안(保 安)

어느날 케네디 대통령은 국무성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협력이 없어도, 아니, 협력이 있어서는 방해(妨害)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뉴스의 자료가 되는 일체의 사실을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주는 협력이다. 이 협력만은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나는「화이트·하우스」에서 이 일 만은 나 혼자서 넉근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와 신문기자」에서)

군인 (軍人) — 군기 (軍紀) — 명령 (命令) ④

본질적(本質的)인 것과 형식적(形式的)인 것

군기주변(軍紀周邊)을 말하는 좌(座) 담(談) 회(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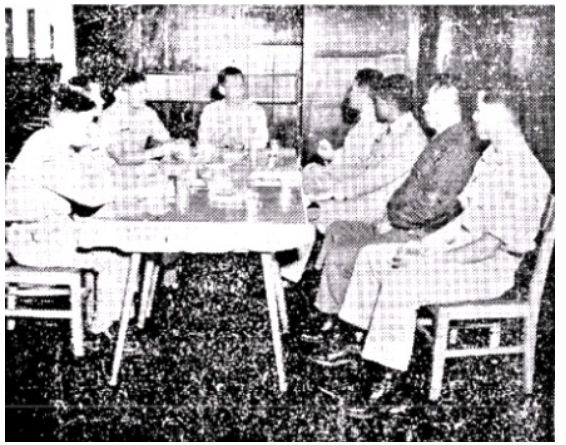
참석자(參席者) 사회(司會) 이 재 환(李 在 煥) 중령(中領)
(정훈감실 편집부장)

이현진(李賢瑨) 대위 감찰감실(監察監室)
한학수(韓鶴洙) 대위 군종감실(軍宗監室)
하경철(河炅喆) 중위 법무감실(法務監室)
한인섭(韓寅燮) 중위 정훈감실(政訓監室)
송기화(宋奇燁) 중위 통신전자국(通信電子局)
조종래(趙鐘來) 문관 인사국(人事局)
정말용(鄭末鎔) 병장 본부사령실(本部司令室)

일시 ·· 1963년 6월 3일
장소 ·· 본부 정훈감실

사 회=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기문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군기확립하면 언제나 같은 얘기가 되기 쉽지만 오늘은 평소의 직무를 통한 실제적인 경험같은 산 얘기를 해 주시면 합니다. 군기하면 주로 경례가 어떠니 복장이 어떠니 하는 외면적인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만 보다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정신자세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 공군의 군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좌담회 광경>

이대위= 대체로 우리 공군장병은 지적 수준이 높다는 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기도 그만큼 좋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평과 공군장병의 자질에 비해서 우리 군기가 이에 부합될 만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중위=타군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국군의 군기와 미군의 그것과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군기를 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대위=미군의 군기를 말할 때 그 근본적 차이가 정신적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자발적인데 비해 우리는 타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인데 비해 우리는 타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생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지켜야 할 일, 책임감 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자세의 표현으로서 모든 행동이 자발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송중위=미국사람은 그들이 가진 역사, 사회환경, 생활수준, 사고방식부터 다르고 자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으며 생활의 기본태도가 자기 충실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행동면에서는 자유롭게 표현되면서도 내적으로 그러한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방종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훈련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이기주의로 표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민족적 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문관=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발전되고 정돈되고 확립됐어요. 상급자에 대하는 태도만 하더라도 이제는 군대답게 바로 잡혔어요. 교육의 성과라고 봅니다.

하중위=그런데 관계법규에는 아직도 모호한 점이 많아요. 군형법 47조는 명령과 지휘관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군기유해에 관한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시행 안 하는 것

과 같지만- 한편 군풍기 위반의 원인은 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술 사고는 장교도 사병도 많아요. 그 다음이 복장위반, 무임승차, 결례 등.

사 회=정병장, 군기확립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병장=첫째 경례, 복장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내무반에서는 외출시의 주의사항으로 소지품 조사, 금주 이런 것이 언제나 문제돼요. 그리고 월간교육입니다 제식훈련등 …….

사 회=반복해서 똑같은 주의사항이 되풀이되는 느낌이 있겠군요……특히 외출할때는?

정병장=사고 없도록 하라고 외출 나갈 때마다 주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대위=그러니까 타율적인 면이 주가 되고 자발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죠.

사 회=군기에는 두 가지 면, 즉 외형적인 면과 정신적 내면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점에서 한 말씀…….

한대위=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군들이 퍽 멋대로 노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처럼 떠들어 대는 경례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군인이 미군에게 경례하는 예는 드물지만 미군들은 한국군인에게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적 사상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미군은 교육을 시키는데도 중심사상이 뚜렷해요. 자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중심과제입니다.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군의 교육은 중심과제가 산만하고 모호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군인을 양성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없지 않아요?

이대위=전번에 감님이 공군신문에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쓰셨지만 군기를 지킨다는 것은 일반 사회인이 사회도덕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규정이 다르다 뿐이지 그 정신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점, 이를테면 삼강오륜도 군대에서는 안 지켜도 좋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군은 자기 생활과 군대의 생활이 동일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상급자를 공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것은 삼강오륜의 사상과 부합되지만 장교 상호간에도 상관에게 경례를 하고 뒤에서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사병들이 본단 말입니다. 정말 곤란해요.

한중위=임관 직후 얼마동안 오산 미군들과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들은 항상 웃으며 일하고 있어요. 장병 간에 큰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노졸의 상사가 아들 같은 중위에게 상관으로서 깍듯이 대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천적인 기질, 풍부한 물자 대우 등의 차이도 있겠지만 문제는 정신적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하중위=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구별할 줄 알며 먼저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장교는 사병을 신뢰하고 사병은 장교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경례는 존경심과 더불어 믿음의 표시라고 한다면 한국군의 경례는 이같은 존경과 믿음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사 회=이거 얘기하다 보니 한미 군기대결이 됐는데-(웃음) 군기를 확립하는 가장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이대위=단적으로 말해서 윗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요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몇 배나 더 언동에 주의해야 해요. 계급이 위일수록 바라보는 눈이 많고 미치는 범위가 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랫 사람에게 무엇 무엇을 지키라고 한 것을 먼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하급자일수록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일동 찬동(贊同))

한대위=이런 면도 있습니다. 군대 내의 열등의식이 대외적으로는 우월감으로 발산되어 여러 가지 군기위반을 유발하는 경우-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외면적인 단속이니 제재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중위=군대생활의 긴장이 밖에서는 해이되기 쉽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세칙이 너무 많아서 솔직하게 말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너무 많은 규칙은 하나의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며 이같은 강박관념이 오히려 범죄를 낳게 하거든요.

한중위=군기위반의 심리적 요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내면적으로 인간적인 바탕이 덜 되어 있는데다가 외부적인 환경이 거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란 지휘관 혹은 상급자가 부당하게 자기를 억압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든가 동료들이 군기위반을 항다반사로 한다든가 이러한 환경하에 놓이면 자연히 열등감, 반항, 자포자기, 혹은 동류의식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신적 바탕을 각자가 지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악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위=사실 아까 하중위님의 말대로 시시한 것이 많아요. 매일같이 말하는 경례를 안했다. 복장위반이다 이런 작은 문제에만 골몰하고 원칙적인 문제는 등한시 하고-

사 회=단속이나 교정도 그러한데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자율적인 이행이 없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군기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말씀이군요.

이대위=네 그렇습니다. 또 군기 강조주간이라는 것이 연중행사처럼 있는데 미군에 이러한 강조주간은 못 봤어요. 정말 그들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경례는 값 안 들고 상급자를 즐겁게 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인데도 매일 이것 때문에 야단이니……

하중위=이대위님, 그 군풍기 강조기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자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대위=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도 같지만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장사도 손해가 나게 되면 누구나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재고하게 되니까요.

하중위=군기강조기간을 설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장교들이 평소에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몇 갑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송중위=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따라오도록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데 솔선수범이 이외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한대위=그리고 대체로 명령의 권위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 주요한 원인은 대체로 상급자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가령 내무생활만 하더라도 상급자는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부쳐서 외출하면서 하급자는 무조건 못 나가게 한다던가 하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이대위=윗물이 맑아야……

송중위=그렇지요. 군의 기간은 장교입니다. 군의 기간인 장교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한가지입니다. 경례는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존경의 뜻이나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대를 군대답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군의 명맥이 군기에 있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군기의 명맥은 경례에 있다 하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경례는 군인의 외형적인 심볼입니다. 이같은 군대를 움직이는 장교는 위신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신뢰성, 행동, 언어에서 먼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영향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교는 외면적인 것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산기지에서 본 일입니다마는 미군 대령 4-5명이 시찰을 왔는데 하사의 명의로 발부한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달고 들어가요.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과연 어떨런지?……

사 회=다음은 군기확립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문관의 입장에서 조문관께서……

조문관=문관으로 10여 년간 근무하는 동안 군의 생리라고 할까 알만한 것은 알게 됐는데-헌병들이 하급자에게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사병이나 문관… 그것도 문관들을 더욱 까다롭게 대하는 듯한 인상을(웃음)….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도 했지요. 만만한 사람만 취체하지 말아 달라고요(웃음).

이대위=아까도 말했지만 상급자가 자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가령 비가 올 때 레인코트만 하더라도 계급장을 안 달고 있다가 헌병이 뭐라고 하면 벗어들고는 이놈아 안 보여! 벗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이고 싸인하나 문제로서 유원지에서 본부까지 와서 실갱이를 하니…….

한중위=군기확립을 위해서 양면작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 분위기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 민족적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민주주의 사고방식과 체제에 하루속히 익숙해져서 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 윗사람들의 솔선수범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 군대 내에서 차차 분위기를 나가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규제, 단속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송중위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경례군기부터 철저히 확립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요. 작년 가을에 총장님 지시로 경례군기를 철저히 단속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에는 분위기가 훨씬 군대답게 돌아가더군요.

이대위=경례는 벌써 기계적이 되어야 하겠는데-자발적인 경례를 받지 못하는 상급자는 실은 상급자의 자격이 없다할 수 있겠죠.

하중위=당치도 않은 말이지만 아직도 경례한다는 것을 어색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위=상급자는 부하의 개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외출시켜야 할 사람은 외출을 안 시키고 나가는 자는 자주 나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중위=군기위반자 가운데에는 정말 딱한 사정이 많아요. 무임승차 같은 것도 모처럼 집에 가는데 돈이 한 푼 없어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알아서 돈을 좀 마련해 준다던가 참 딱한 사정이거든요.

이대위=정병장 물어보겠는데 혹시 애인하고 걸어가다가 상급자를 만났을 때 경례를 안하지?

정병장=첨엔 안했습니다. 창피한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동반자가 왜 상급자에게 경례를 안하느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대위=자기 자신의 긍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대위는 대위, 중위는 중위, 사병은 사병의 긍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긍지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경례한다는 당연한 것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중위=네가 뭔데, 내가 비록 이등병이지만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곤란한 것이 아닐까요?

송중위=하급자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는 아량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하급자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군기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대위=단속하는 사람이 군기를 지켜야지요. 이대위에게는 미안하지만 헌병들은 자기 특권을 공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자기들은 뭣을 해도 위반 카드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일반 사병들도 그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을 하거든요. 또 헌병이 장교의 위반사실을 잘못 취급하면 보복이 있어서 그 체크를 주저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위=그러한 사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군기가 조성되어야 올바른 군기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왜놈들의 군기가 그렇게 엄했지만 그것은 장병 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군국주의적 강압적으로 이루워진

◇조용한 승리(勝利)

「평화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에 우월하며 결코 못지 않는 높은 영예다」라고 「밀튼」은 말했다. 역사상 여하한 평시의 승리도 미국의 상호방위 · 원조계획이 과거 17년 간에 거둔 수많은 승리보다 광범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또 그만큼 자유의 대의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승리는 극적인 것은 아니며 조용한 승리였다. 그 목표는 미국의 영토보전을 위함이 아니고 또한 국연(國聯)의 지지를 얻고자 함에 있었음이 아니고 오직 세계의 몇십 개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와 희망을 보전하고 공산주의의 파괴공작을 저지하는데 있었다. (존·F·케네디)

◇미국 국민의 원조부담(援助負擔)

미국은 오늘날, 그들이 자유세계 제국의 원조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고 있는가? 미국은 안전보장체제를 위하여 미국총생산의 10%여를 소비하고 있다. 이 액수의 약 20분의 1약, 즉 국민총생산의 0.7%약을 상호원조계획에 충당하고 있으며 그 반액 즉 0.35%가 경제개발, 나머지 0.35%가 군사원조와 그 밖의 단기적 원조에 충당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그 국민소득의 1%를 가난한 자매제국에 대한 원조에 소비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제적 책무로서 자랑스러히 여겨야 할 것이다.」

(1962년도 케네디 대외원조교서에서)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여 조직이 무너지자 형편없는 꼴을 보였지요.

조문관=일전에 대구에 갔을 때 짬이 있어서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패전한 영국군 포로들의 수용소 내의 생활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비록 포로라 하지만 지켜야 할 그들 자신의 군기를 스스로 지키고 있지 않아요. 정말 민주군대의 민주적 체질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놈들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도 등이 닿지 않도록 꼿꼿이 앉았지만 패전하자 그 엄했던 규율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중위=군기에도 체질개선의 시기가 왔다고 하겠습니다(웃음).

사 회=그러면 이 좌담회가 군기확립을 운위하는 마지막 좌담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전(休戰)10년에 북괴(北傀)는 무엇을 했나

한(韓) 재(載) 덕(德)

북한괴뢰집단이 도발한 6·25동란은 세계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만치 잔화무쌍하였으며 처절한 동족살육의 남침(南侵)이 있었다. 3년간의 동란 끝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를 입힌 끝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調印)되었다.

그러나 남침야욕에만 사로잡힌 북괴로서는 이것은 결코 휴전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그들의 궁극(窮極)의 목적인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그들의 흉계는 결코 정지되지 않았다. 다만 무력수단으로 남침을 성취해 보려던 것이 우리측의 반격(反擊)으로 여지없이 분쇄되자 그들은 장시간 패배한 괴뢰군의 수습 재정비와 함께 폐허로 화(化)한 산업, 농업, 도시건설 등의 복구를 획책하는 등 새로운 힘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데 불과했던 것이다.

그들의 남침목적이 여지없이 좌절되자, 완전멸망을 모면하여 다시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기어이 그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리라는 것이 유엔을 상대로 해서 휴전협정(休戰協定)에 조인한 북괴의 저의(底意)였던 것이다. 그러면 휴전 후의 정책은 어떠한 곳에 치중하였으며, 또 어떠한 흉책들이 자행되었는가?

그들은 종래의 노선으로 되돌아가서 겨우 남겨 놓은 북한을 공산혁명기지로 복구한 다음 더욱 강대화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계속침투, 교란파괴공작과 비난선전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책략과 프로그램이 가장 기초적으로 잘 나타난 것은 김일성 1당이 휴전협정 조인후 불과 9일만인 1953년 8월 5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열렸던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제6차 전원회의의 결정서이다. 이 결정서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고 허풍을 날리면서 이것이 김일성영도하(領導下) 「북반부에 기지를 잘 축성해 놓았던 덕분」이라고 강변하고 금후(今後)의 이른바 기본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질 평화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북반부에 강력한 성새(城塞)의 기지를 건설강화하는 사업에 전체당원과 전체인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강력한 공산기지의 창설은 조국통일을 한층 더 촉진(促進)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재빠르게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3개년계획을 책정(策定)했으며, 동결정서(同決定書)는 「전후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위하여 증산운동과 생산혁신자들의 창의창달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그들의 대열을 계속확대(繼續擴大)하기 위한 사상동원운동사업들을 보장할 것이다」라는 명목하에 북한인민들에 중노동의 채찍질로써 달성케 하려는 갖가지의 목표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3년간의 전화(戰禍)로 곤궁이 극에 달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무력강화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 좋은 예로써 1953년 10월부터는 소련기술고문단이란 명목으로 수백 수천 명의 소련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소위 국제분업이란 원칙 밑에 북한의 중요 광산 탄광에는 전부 소련인들이 배치되어 전략물질인 중석(重石), 안치몬, 아연(亞鉛), 모나지, 금, 은, 동 등을 자유자재로 채굴하여 본국으로 수송을 개시하는 한편 군수공업(軍需工業)의 건설에 치중하여 65호, 42호공장, 26호공장 등등 병기공장을 확장 혹은 신설하여 그 생산능력을 1953년 초의 생산계획보다 2배 이상을 증가하도록 지령하였으며, 공장위치를 이설할 준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남침적화의 기본여건인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또 김일성은 「인민군의 육군용 저격무기와 박격포들과 그에 수용되는 탄약들을 자급자족할 것을 역설하였고 광업에 있어서는 군수공업을 보장할 것」화학공업에 있어서는 「급속한 기간 내에 군용, 민용, 화약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공공연히 군사력확충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소위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이란 이런 것에

서 출발했으며, 동시에 「전쟁시기에 모든 것을 전선에로」라고 하던 구호를 이제는 「모든 것을 기지강화를 위한 인민경제 복구에로-」라는 구호로 바꾸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동결정서는 강조하였다. 이어 김일성 일당은 휴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대남공작사업을 전담해온 남로당에 대해서 숙청을 단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니 당6차전원회의(8월5일부터-9일까지)와 병행해서 8월3일부터 6일까지에 이승화남로당최고간부 외 11명에게 「간첩죄」, 국가반역죄 등의 어마어마한 죄명을 날조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 이것이 김일성의 대립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개시였으며, 김일성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기도의 첫 출발인 것이다. 남로당의 최고간부를 위시로 수많은 남로당원들이 대량적으로 처단당했으며, 이 숙청이야말로 가혹하고도 철저했다. 그 당시 김일성 일당이 정부(괴집(愧集))전복음모(顚覆陰謀)의 무장소굴이라고 지적한 박헌영(朴憲永)계의 금강정치학원(金剛政治學院)과 소위 「526부대」(유격 및 지하당간부육성훈련기관들)는 모두 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 간부들도 또한 거의 검거 숙청되었다.

◆제네바 회담과 그 후

1954년 4월 27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이에 제네바에서 한국통일문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본시 이러한 정치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판문점휴전협정(板門店休戰協定)에도 예견되어 있은 것인데 1953년 8월 27일 특별총회에서 결의되고 이어 1954년 2월 18일 당시 백림시에서 열렸던 미, 영, 불, 소(4대국 외상회의(外相會議))의 합의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제네바회담에서 대한민국 및 한국참전 16개국은 유엔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북괴는 소련과 중공을 따라 공산측 대표로 참석해서 한국통일문제로 쌍방이 대결한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도 우리측이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방적이며, 기만적인 그들 류의 평화통일방안을 약간씩 변모시켜, 내놓으면서 이 회담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선전무대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회담에 대한 성의는 전연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제기한 건은 1. 전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초위에서 조선의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 의원총선거를 실시할 것. 2. 조선국회의 자유총선거를 준비실시하여 남북조선 간에 경제 및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긴급한 조치(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대표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할 것. 3. 6개월 기간 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일체의 외국군대가 철거해야 할 것을 인정할 것. 4.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 해당국측은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을 단일독립민주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과업의 급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조건을 지어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등등.

이와 같이 북괴측은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되었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듯이 가장선전(假裝宣傳)하여 대한민국은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반민주세력의 집결체인 듯이, 역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악랄무쌍(惡辣無雙)한 허위기만성을 여실히 노정(露呈)시켰으며,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무슨 기회나 그들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장된 평화통일을 되풀이하여 북한인민들을 기만하며,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인민들을 우롱하는 유치한 선전에 몰두하다시피 하고 있다.

◆북괴 제3차 당대회와 그 후

제3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1956년은 북괴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해였다. 이 해는 특히 그들의 떠들던 소위 전후 3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해로서 그들은 당초부터 그것을 초과 달성했노라고 선전을 되풀이하였다. 동년 2월에는 그들의 상전인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열려 후르시쵸프가 평화공존노선을 강조하고 또 극적인 스탈린비판으로 세계를 아연케 했다.

바로 이러한 때(동년 4월 24일)에 북괴 자신은 휴전 후 첫번째 당대회인 노동당 제3차대회를 열고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북괴는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의 등을 밀고 큰 소리를 쳤으며, 소련 상전을 본받아 평화통일협상을 분주히 제창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큰 의의는 여기에서 당헌(黨憲)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당규약을 개정채택하여 그들은 비로서 명확히 그들의 최종목적이 남한까지를 공산통일하여 전국적 범위의 공산국가를 실현시키는데 있다고 명시한 규약이다. 이로서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남침적화통일의 야욕을 여실히 명시하였으며, 이 당시부터 대대적인 군사력강화에 따른 현대무기가 소련으로부터 상품무역형식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휴전협정은 아랑곳 없이 각종 방법을 다하여 남침준비를 위한 간접침략의 적극화 직접침략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의 강화 및 각종군수품생산의 격증(激增) 등 군사력증강에 전국력을 경주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1956년도의 스탈린 격하운동(格下運動)의 파동이 북한에도 휩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스탈린주의를 배격하는 유일한 기회를 포착한 연안파(延安派)의 최창익(崔昌益) 김두봉(金枓奉) 일파는 이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간주하고 김일성 독재의 악랄상(惡辣相)을 폭로규탄하여 김일성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는바 그야말로 1956년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심각한 태풍기(颱風期)라고도 할 수 있을 만치 다난(多難)

하였었다. 그러나 김일성 일파는 연안파의 도전(挑戰)에 위기일발의 시점에 봉착하였으나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과 뒷받침으로 무난히 위기를 모면하여 시국은 연안파세력들을 숙청하고 김일성 독재의 길을 착착 구축하는 계기로 되었다.

이로써 김일성 일파는 소련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과 복종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고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을 북괴의 최상의 조국으로서 숭상하겠끔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제3차 대회가 끝나자 북괴의 평화통일공세는 더욱 강화되면서 더욱 소란스럽고 번거로운 것으로 되었다. 3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이 일익 절실해 가는 것을 기화로 공산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공산통일 및 자기들에 대할 지지획득에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평화통일의 간판 밑에 무력사용의 상호금지와 특히 1956년 8월 31일 까지에 인민군병력 8만을 감축(減縮)할 터이니 한국도 병력을 감원하라는 호소를 외쳐가면서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듯이 전체인민들을 기만하는 반면에 남침적화를 위한 대량간첩의 양성 및 밀파(密派)가 진행되는가 하면 중공의 알선으로 중공을 통한 일본에의 간첩밀파 혹은 일본거주 교포들의 적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송부 등이 공공연하게 개시되었고 특히 일본의 조련계매수공작(朝聯系買收工作)을 통한 교포적화에 전력량을 경주(傾注)하여 대남한파괴공작(對南韓破壞工作)을 본격적으로 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남침적화의 촉진책으로 납북인사(拉北人士)들을 강제규합하여 소위 허수아비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平和統一促進協議會)라는 것을 조작하여 안재홍(安在鴻), 조소앙(趙素昻), 오하영(吳夏英) 등을 최고위원으로 하여 100여 명의 인사들을 집행위원(執行委員), 상무위원(常務委員), 중앙위원(中央委員)이란 감투를 씌워 대남방송을 강제로 사주하는가 하면 남파간첩들에게 친서를 써주어 마치 이북정권이 진정한 주체정권처럼 과시하겠금 사주하는 등 간접침략과 남침적화를 위하여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가면서 그들의 음흉한 야욕을 달성하려고 단말마적(斷末魔的)인 발악 상을 연출하기 시작하였다.

◆4 · 19혁명과 북괴의 동태

이러한 형세 밑에서 북괴는 인민착취자금(人民搾取資金)과 대량간첩의 일본밀파, 일본우익정당 사회단체의 매수공작, 중공의 일본에 대한 경제교류의 흥정 등등이 주효되어 1959년부터는 재일교포의 북송강요가 성취되고 속속 북한의 노동지옥에 끌어들이는 한편 조련계의 강화 등에 일본화폐 25억 원 이상을 교포교육비란 명목으로 영국을 통하여 공공연히 송금하여 북괴는 마치 대한민국을 능가한 합법정부처럼 역선전에 광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 남한적화공세도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착잡무쌍(錯雜無雙)한 정세하에 1960년 역사적인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다. 이것은 김일성 일당을 비상히 흥분케 했으니 기회만 있으면 미국을 물러나게 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벼르면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 초조에 쌓였던 김일성 일당에게 있어 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인 양 싶었다.

그들은 재빨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월 27일 「남조선에서 조성된 현사태와 관계하여 진행된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연석회의(諸政黨社會團體指導者連席會議)에서 채택한 성명서라는 것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성명서에는 『남한에서 팟쇼, 테러정치를 철폐하기 위한 대중적인민항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모두 다 미제(美帝)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또는 남한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조직하에 단합하자』라는 요지를 발표하고 4월의거를 인민봉기로까지 규정하여 소위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극한폭동을 부르짖으면서 남한 인민들의 민심동요를 부채질하는데 여념이 없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민주당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끈기있고 집요한 대남정치공작이 격심(激甚)하여 갔으며, 특히 1960년 8월 15일의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북괴는 평화통일을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의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북한인민들을 현혹시키는 기만책을 새로운 각도로 선전함으로써 진정한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듯이 가장하여 적화남침에 더욱 교활한 전략적수단까지 쓰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민주당정권하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 가는 정쟁, 부패, 무능, 국민생활의 불안정, 나아가서는 용공적(容共的)이라고까지 보이기에 이르렀던 대공책의 공간과 우유부단 등등은 북괴의 부식토대(腐蝕土臺)가 되고 용공세력의 도량을 용허(容許)함으로써 김일성 일당을 광약(狂躍)의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초래했던 것이니 이틈을 타서 북괴의 대남선전공세와 간첩침투공작은 가일층 음흉(陰兇)과 포악(暴惡)의 극치를 이루었다. 따라서 남한에서까지 김일성 도당에게 호응동조하는 용공세력이 날로 팽창해서 의식, 무의식간에 그들은 북괴와 상통하는 기맥을 점차 노골화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김일성 일당은 6·25이래 전례없는 쾌재를 예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남로당 숙청 이후 대남사업의 부진으로 초조에 쌓였던 김일성 일당을 얼마나 흥분환희(興奮歡喜)케 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마치 자기세상이나 얻는 듯 했던 김일성이 5월 7일 함흥에서 열린 소위 「비날론공장 준공경축대회서 한 연설에는 「오늘 남조선의 사태발전은 조국의 평화적통일(공산통일)이 실현될 날이 드디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며, 5월 13일 즉, 서울에서 이른바 혁신계정당단체공동주최의 소위 「남북학생회담환영궐기대회(南北學生會談歡迎蹶起大會)」가 열리던 날 평양(平壤)에서도 조국평화통일촉진회라는 것을 조작하여 대대적인 결성대회를 열고 기세를 올렸다. 이 당시에는 마치 남한공산화의 숙망을 하루 아침에 이루는 것 같은 기세였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조국은 일반이 느꼈던 이상으로 위기를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쓰러질 수 없으며, 그렇게 쓰러져서는 안 될 나라이다. 이러한 누란(累卵)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는 5월 16일 미명(未明) 국군용사들의 궐기로 빈사상태의 조국을 구출함으로써 백배 눈부신 광명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니 5·16혁명은 그 누구와 어떤 것에 대해서 보다도 북한괴뢰 김일성 일당과 그들의 공산흉계에 대해서 결정적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5·16혁명 전인 1957년부터 소위 1차 5개년계획이란 방대한 계획을 조상(俎上)에 놓고 군수공업의 중점적 건설 전략물자대량생산종주국의 원조에 의한 예속적인 군수품생산 등에 북학인민의 노동력을 최고도로 착취하기 위한 갖가지의 노동경쟁운동을 조작하였는 바, 그 중에서도 1959년 2월에 실시한 천리마운동은 세계 어느 공산주의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보지 못할 정도로 가혹무쌍하였으며, 전체인민들은 완전히 노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세기적인 착취방법인 천리마운동을 강요하여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5·16군사혁명이 발발된 이후에는 그들의 간첩침략이 다소 완화된듯 하였으나 대대적인 노동착취는 가일층 격심해졌으며, 천리마의 수단으로 노동생산성의 강화는 가일층 증가되었던 것이다.

◆5 · 16혁명과 북괴의 대남책략

5·16혁명으로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괴의 당황한 꼴은 가관이었다.

이후의 대남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욕설정책(辱說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자초지종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야비한 발악인 것이다. 특히 5·16혁명 이후 공산측이 재빠르게 취한 첫째 대책은 북한괴뢰와 소련 및 중공간의 군사동맹체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와 그의 상전들과의 사이에는 새삼스러이 이러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만큼 실제의 군사동맹관계가 이미 북한의 괴뢰들에 의해 당연히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계열에서 다시금 표면화해서 이 문제를 떠메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보다 5·16혁명에 당황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정권은 소련, 중공 등 강대국들과 동맹되어 있으니 확고부동한 것이다』라는 대외적 시위와 북한동포들에게 대해서도『딴생각 말고 김일성 정권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을 선전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북괴는 대남공작에 완전실패한 소지를 다시 만회해 보려는 야욕 밑에서 소극적인 욕설공세로부터 점차 적극적인 비난공격과 갖가지의 모략중상적인 선전으로 전진하는 한편 형식적인 평화통일의 구호도 계속하면서 그 그늘에서는 무력증강과 그를 보장하는 경제책에 일층 광분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그들식 지하공산운동의 재건강화에 더욱 주력하는 일방 어느 기회만을 노리면서 대량간첩의 양성대기, 게릴라 무장간첩의 양성까지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듯하다.

약 2년간의 군사정권시대를 그들은 일종의 완충기처럼 보고 이상에 논술한 갖가지의 준비태세를 견지하여 보다가 금년에 접어들자 정치활동의 재개와 앞으로의 민정이양을 절호의 기회로서 다시금 유례없는 간악한 욕설공세와 청년학생을 중심으로한 달콤한 호소문, 특히 간첩의 대량밀파로서 민심교란, 파괴공작, 지하당조직공작을 결사적으로 조직진행하려고 갖은 악랄한 방법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한 폭동화의 조직에 전력을 경주하며, 고정간첩의 양성, 게릴라대의 진출 등 남한인민들의 위험의식을 조장시키며, 민심을 극도로 교란시켜서 기어이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음흉한 전략전술들이 꾸며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감행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속단이 아닐 것이다.

◆골프란?

마크 트웨인은 어느 날, 골프광인 친구를 따라 골프장에 갔다. 그런데 친구는 몹시도 골프가 서툴러 땅만 치는 바람에 트웨인은 흙을 잔뜩 덮어 썼다.
"내 골프가 어때?"하고 친구가 자랑하듯 물었다.
"나는 골프가 어떠한 노름이란 걸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네."

◆유머 기담(奇談)

어느 연회에서 마크 트웨인은 유머신문의 발행자와 자리를 나란히 해서 앉게 되었다.
"장께서는 매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취급해서 재미있겠습니다."라고 트웨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산떼미처럼."하고 유머신문의 사장이 말했다.
그러자 트웨인은 얼른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사장께서 왜 그 산떼미 같다는 유머만은 신문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휴전(休戰) 10년의 회고(回顧)

김 영 수(金 永 洙)
〈공군중령 · 국연군사령부
정전위원회한국군대표단근무〉

6 · 25가 우리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라면 7.2도 또한 그러한 날이다. 6 · 25동란이 7 · 27에 의하여 끝이었다고 하여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적 숙원이요, 지상목표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3년이 넘도록 우리의 온 겨레와 국군 그리고 연합군이 그처럼 막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채 판문점이라는 조그만한 ??에서 마침내 정전이 성립되어 전화가 일단 멈추어지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색이라고 할만한 것은 온 겨레와 국군이 치욕적인 이 정전을 극력 반대하였던 정세하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 국군대표가 조인장(調印場)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전쟁사상에 유례없는 정전협정이 조인되고만 바로 그날이 또한 7·27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인 정전도 어느새 오는 7·27로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151리 전선은 정전협정에 의한 4km의 완충지대(緩衝地帶)를 사이에 두고 피아간에 더욱 격렬한 적개심과 혈전일보 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동란 시만 하더라도 제공권 제해권을 비롯하여 군사력에서 완전히 아군에 제압당하였던 공산괴뢰는 정전 10년간을 그들의 재무장 재정비 재훈련의 유일한 기회로 악용하여 왔음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무색하리만큼 수적으로 질적으로 탁월한 장비와 훈련을

갖추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휴전협정의 경위

지난 10년 전에 되돌아가 당시의 정전협정의 경위를 회고하기로 한다.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뚜렷한 책동을 한 바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소위 조선인민군이라는 괴뢰군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남한침략이었으며 그 두 번째는 1950년 11월에 소위 중공인민지원군의 참전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 세 번째의 책동은 1951년 6월 23일 국제연합 소련대표 "Tacob Malik"에 의한 정전제의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 이 제의는 사실상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서구조야(西歐朝野)는 반신반의한 가운데 이를 맞아 들이었다. 이 정전안은 이미 전부터 태동하였던 것으로 즉 그것은 아랍연맹 12국이 공동명의로 제의한 정전안을 필두로 유엔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중지를 호소하였으나 중공에 의하여 반대되어 서울이 재탈환되던 3월초순까지는 이미 정전안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당시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을 지휘하던 맥아더장군은 착잡한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서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해임되고 정전의 기운과 협상의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그 중임은 릿지웨이장군에 의하여 인수된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 릿지웨이장군은 지체없이 북한괴뢰사령관 및 중공군사령관과 간접적으로 접촉하였다. 그는 그의 방송을 통하여 본인은 쌍방간의 적대행위와 한국 내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기 위하여 정전을 토의할 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당초에는 쌍방이 완전한 중립적 분위기에서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산만(元山灣)에 입항하고 있는 정말병원선(丁抹病院船)에서 회의를 갖고져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틀이 지난 1951년 7월 1일 괴뢰군사령관 김일성(金日省)과 중공군사령관 팽덕회(彭德懷)는 릿지웨이장군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공산군 수중에 있던 개성에서 하자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통일과 안정된 평화를 갈구하여 전진하자는 한국민의 절규를 한 귀로 들으면서 또한 이 끔찍한 유혈을 조속히 끝이려는 희망에서 릿지웨이장군은 그의 대표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개성에서 만나자고 동의하였던 것이다. 7월 8일 최초의 국연군(國聯軍) 대표들은 임진강(臨津江)을 넘어 제1차 정전회담이 7월 8일에 개최되기로된 개성으로 비행하였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쌍방사령관에 의하여 서명되기까지는 국연측 및 공산측 대표 간에 무려 75차에 달하는 회의를 하였으며 이 논란에 소비된 시간은 천 시간을 넘었다. 이 논란에는

협정의 어구(語句)수정 환자 부상자의 송환·전쟁포로(戰爭捕虜)의 송환이 포함되었으며 765차의 회의의 내용은 50차의 본회의 179차의 하급대표회의·11차의 연락단회의·189차의 쌍방참모장교간의 회의·227차의 연락장교회의가 진행되었다. 협상기간 중에 가장 길었던 휴회기간은 199일이나 되었고 이것은 1952년 10월 8일에서 1953년 4월 25일까지였다. 통상회의는 15분에서 1시간 혹은 1시간을 넘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14일에 개최된 회의는 가장 짧았으며 그 기록은 15초였다. 이리하여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또한 북괴 김일성과 중공대표 팽덕회를 일방으로 하여 조인되었다.

조인된 정전협정은 전문 5조 63항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협정내용(協定內容)

(1) 군사령관들은 일체의 전투를 중지시킬 것. (2) 군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 지대로부터 군대 및 군수품을 철수할 것. (3) 군사령관들은 증원하는 인원 및 작전물자의 한국 내로에 반입을 중지할 것. (4) 군사령관들은 출입하는 작전물자와 일체의 교체하는 인원에 관한 보고를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상대방에게 제출할 것. (5) 군사령관들은 정전협정의 문구와 정신을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 (6) 군사령관들은 정전협정의 위반행위들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며 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 인원을 적절히 처벌할 것을 보장할 것 이상이다. 본협정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 즉 본협정은 관계국가들의 외교대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사령관들에 의하여 조인되었으니 본협정의 성격은 순전히 군사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이에 조인한 군사령관들과 그들의 후임자들의 성의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흥미있는 것은 북한괴뢰군은 자기네 사령관들이 정전협정의 일방측 조인자이므로 법적으로 본 협정의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한국군은 본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연군 사령부와의 전적인 협조정신에서 전적으로 이를 준수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본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해 한계를 규정해 놓지 않았으며 군사령관들은 본협정에서 당해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정부들의 대표들 사이에 정치회담을 가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1954년 봄에 이러한 취지의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으나 그러나 쌍방측의 상반되는 견해로 인하여 여하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에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쌍방측의

입장에는 또 다른 정치회담이 개최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해 줄 만한 하등의 변경도 아직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협정은 그 효력이 앞으로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기관으로 "NNSC"라고 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있다. 이 기관은 국제연합군측이 지명한 서전과 서서 그리고 공산측이 지명한 체코슬로바키야 및 파란의 4개국의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쌍방정전위원회의 지배감독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쌍방이 증원하는 군사인원 및 작전물자를 한국으로 반입해 들이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전협정 제13항「ㄹ」목에 의하여 특별히 쌍방이 소유할 수 있는 물자를 본협정이 조인되던 당시 쌍방이 소유하고 있던 수량 및 유형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괴 파손 소모된 물자는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자로 1대1의 비율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만 허락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전 후에 중립국감시위원회 감시소조(監視小組)들이 구성되어 정전협정의 본조항들의 이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남북한에서 그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애당초 이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오랜동안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국제연합군은 이러한 정전협의회의들에서 본기구의 설치를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는 감독의 모든 권한은 당연히 정전위원회자체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연군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산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한 전폭적인 감독을 주장하는 국연국측 입장과 정전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조중(朝中)측 입장의 타협안으로 이 중립국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의했던 것이다. 과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파란대표는 완전히 편파적인 태도로 행동하였으며 한편 서서와 서전대표는 어디까지나 진정한 중립국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유엔측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활동 중인 중립국감시 소조로 하여금 작전물자의 일체의 반입반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 시찰활동을 하던 서서(西瑞)·서전(瑞典) 소조들은 반입하는 작전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려는 모든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효과적인 감독의 이행을 위한 서서 및 서저조원들에 의한 모든 제의는 체코슬로바키아 및 파란조원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방해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한에 있어서의 체코 및 파란조원들은 가장 능률적인 정보기관으로서의 활동 등을 자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1956년 5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회의에서 국연군 측은 드디어 단안을 내려 국제연합군은 중립국감시소조들의 국제연합군측 통제지역에서의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조항들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남한에 있던 체코와파란 감시소조들은 비무장지대 내로 철수하였고 그 후 북한에 있던 서서 및 서전 감시소조들 역시 비무장지대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감시소조들이 철수하고 난 중립국감시독위원회는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현재도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판문점 근역에 주재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휴전인가?

그러면 공산괴뢰들의 정전협정이행에 대한 지나간 10년간의 불성실한 태도를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전 이래 쌍방은 협정위반사항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공산측의 일관악의(一貫惡意)나 허위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음은 다음의 사실로 명백하다. 63년 5월 17일 현재로 공산측은 국연측에 대하여 도합 5,308건의 위반행위를 비난하였다. 이 주장된 위반사건은 국연측에 의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여 조사되어 사실이 확정되면 항상 국연측에 의하여 시인되었으나 공산측은 국연측이 항시 확고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된 총 2,274건의 위반행위 중에서 단 2건만을 시인하였을 뿐 여타의 사건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정전 후 2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을 시인한 것이니 그 후 공산측은 지상·해상·공중에 있어서 지난 10년간에 단 1건의 위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얼마나 황당한 괴변이며 가소로운 기만인가? 무모하게 숫자만을 진열하여 놓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일삼으며 세계의 여론을 현혹하려는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아간의 정전에 대한 성실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공산당에게는 이 정전기간이란 재무장을 위한 유일한 기회인 것이며 그러면서도 자기측만이 정전 10년간에 정전협정준수에 가장 성실하였던 것처럼 독선적인 모순된 논리로 강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사정전위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언의 여지없이 공산측 군사정전위원회 성원들이 본위원회의 합법적인 목적들을 수행하는데 협력하지 않는데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들의 회의들을 자기네들의 악랄한 선전 및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여 외부공산지역에 대한 선전무대로 악

(P113으로)

내가 겪은 붉은 군대생활(軍隊生活)

김 혁(金 赫)

북한의 인민군은 본래 김일성 일파의 청장년급과 연합군에 있던 한국인병졸, 중공군에 있던 한국인 일부로 구성되었는만치 그 구성성분이 복잡하여 상호간의 알력과 지휘권쟁탈을 위하여 치열한 내분과 암투가 계속되었는바 6·25 남침을 계기로 김일성 일파에서는 대립파 음성적인 불평불만자를 이러저러한 죄명을 덮어씌워 무자비한 추방숙청들이 간단없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김일성 일파는 괴뢰인민군의 절대적인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기회만 있으면 지휘관의 교체를 빈번히 단행하여, 김일성직속군대조직에 갖은 수단과 방법들이 고안되어 군대 내의 사상적감시와 정치적 교양에 치중하고 타파배격에 총역량을 경주하였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다.

1953년의 휴전을 시점으로 괴뢰인민군의 교육방침이 김일성유격대전통계승을 중점으로 하여 소위 인민군은 김일성 빨치산을 골간으로 한 혁명적 군대이며 김일성의 소위 영웅적 전투력과 강인성을 계승한 군대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강력한 군대이라는 것을 철저히 교육교양하여 순박한 괴뢰장병들로 하여금 다함없는 영예감과 긍지감을 가져오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괴뢰군은 김일성 독재의 사상적 훈련과 정치적인 교양하에서 그야말로 김일성에 우상화교육과 침략적인 교훈으로 육성되었고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나 역시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공산당에 대한 결사봉사성을 간직한 채 철저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된 괴로군대좌로서 마음대로 권력을 발휘하였으며, 독재적인 강권을 행사하여 부하군인들을 억압하였고, 착취하였고, 인민군입대를 강요하는 등 다함없는 충성을 바쳤었다는 것도 솔직한 나의 고백이라 하겠다.

특히 인민군의 고급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부하에 대한 교육목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에 대한 충직성을 고취시키며 침투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였고 나 역시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되었으며 또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다. 다만 인민군은 진정한 애국적 군대로서만 간주되었고 민족해방을 위한 군대로 육성되고 있는 줄로만 인식하였었다.

더욱이 인민을 위한 인민의 무장력이고『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인민군이 없이는 북한인민들이 살아나갈 수 없다는 신념까지 간직한 채 충실한 군간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였었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하는 군인과 김일성 일파를 배격하는 군인들이 많이 입대되어 있다는 것을 찰지(察知)한 나머지 소위 군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철저한 김일성의 예속적인 군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엄밀한 비밀내사와 개개인들에 대한 성분검토, 사상분자 등 일거일동을 내사하는데 몰두하였는가 하면 장병들에게는 사고할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부여하지 않고 군대 내의 당회의, 민청회의, 정치학습회, 김일성전집연구회, 남한에 대한 모략중상적인 날조 선전, 미국정책의 날조분석 등으로 철두철미 공산주의사상의 철저화, 민족상쟁의 사주(使嗾), 대남한증오사상고취로 일관되다시피 되었고, 북한의 사회, 정치제도만이 애국적이며 민족통일을 완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고취하여 순박한 청장년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소위 매일같이 괴뢰군 장병에 대한 정치학습회에서 김일성의 소위 신화성을 중점으로 하고 무조건 김일성에 교시를 맹종하는 것이 남한통일의 길이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학습의 근본목표이며 전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괴뢰군 내에 당세포를 통하여 혹은 민청의 조직을 통하여 안전부의 정보반조직을 통하여 괴뢰 장병의 출신성분, 사회성분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가 세밀히 분석되어 열성분자, 혹은 태만분자, 반공분자로 구분하여 사소한 의아점이 있으면 당의 정치부에서 또는 당의 안전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자체자백을 강요당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신랄한 심사, 내사로서 장병들의 자유를 여지없이 속박하는가? 괴뢰군의 최종목적이 적화이며 침략이기 때문에 공산군구성분자 중에서 반공사상보지자, 자유주의자, 혹은 불평불만자가 있으면은 그들의 지상목적인 적화공세에 큰 차질을 가져오며 또 남침에 있어서 일대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들에게는 여지없는 추방과 숙청이 단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1950년부터 195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 남침전쟁을 통하여 김일성 일파는 대립분자, 혹은 불평불만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죄명을 날조하여 수천, 수만의 그들의 괴뢰 장병들을 총살, 혹은 투옥, 강제제대 시켰으며 이들을 소위 반동으로까지 규정하여 선전 및 교양재료로서 사용하였다. 특히 6·25남침을 계기로 소위 전공이 있는 자들에게도 김일성 일파에 대한 불평분자라고 인정만 되면 이러저러한 죄명을 들씌워 처단하는 등, 군대 내의 김일성체제를 완수하고 다함없는 충직한 졸도들로서 재편성 재조직하는데 집요한 숙청과 모략으로서 일삼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극의 과정을 지나서 195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군대 내에 통일과 김일성 맹종의 일색으로 되어지는듯 하였으나 1956년도부터 노골화된 중국연안파의 반김일성세력이 대두되어 괴뢰군 내에 주로 지휘관급으로 있던 연안파 고급장교들의 반발이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일파의 연안파 장교에 대한 세밀하고 엄격한 내사와 사찰에 자기에 졸도들을 전부동원 하다시피 하여 무시무시한 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드디어 1957년에 가서 괴뢰인민군 4군단장인 장평산(張平山) 괴뢰중장을 위시로 수백 명의 고급장교와 이에 동조한 수천 명의 중견급 이하 장병들이 체포되고 혹은 강제노동에로 축출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숙청과 추방의 과정을 경과하여 김일성에 완전 예속된 직계군으로서의 괴뢰군으로 재편성강화되었다.

이 체계가 재편된 후로부터 전에 비할 바 없이 당의 세포를 강화하였고 정치교양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야말로 소위 김일성 유격전의 교육과 위조한 김일성의 영웅적인 역사를 의무적으로 학습케 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교육의 중점은『소위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한 강력한 현대적 인민무력을 창건하였다』고 자랑하며 지금 재편성된 인민군은 강력한 현대의 인민무장이기에 남북한을 공산통일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할 것이며 반드시 이 군대로 하여금 통일하고야 만다는 기정사실이라고 결론을 짓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통일의 성스러운 혁명과업을 완수하자면 인민군의 총지휘자이며 창건자이며 전설자인 김일성의 사상체계를 신봉하고 김일성이 명하는 데는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이 가장 영예스러운 임무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당과 수령에 대한 보답이라고 교양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으로 괴뢰군의 간부는 물론 전체장병들이 공산주동건설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대가 되어야 하며 특히 공산통일을 위한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괴뢰군의 특징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군대는 당에 절대복종하며 엄정중립을 배격하며 항상 당원으로서의 군인의 역할을 즉 공산침략을 성실히 하겠금 교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의 낡은 사상의 소지자로 간주되는 자들을 인민군에서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순수한 공산제도하에서 생장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입대시킴으로써 철저한 공산주의적 세뇌교육과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겠금 끈기있는 교양을 실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역시 과거 일제시부터 교육을 받은 장년으로서 괴뢰군의 고급간부로 등용된 환경하에서도 때로는 공산주의적 제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물질적 대우와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 스스로가 자연 공산주의에 휩쓸려 괴뢰인민군의 부하 통솔과 교양사업에 나의 열의를 다 바치곤 하였다. 공산독재사회하의 중앙집권제라는 엄격한 명령계통이 확립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특히 더욱 계급을 구별하는 군대에 있어서의 고급장교의 생활은 당에 의한 엄격하고도 악랄한 감독 및 통제가 있으나 하부부하에 대한 강압, 명령의 집행 등은 자유사회에서 보지 못한 정도로 철저하며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요할 따름인 것이다. 부하가 상부에 대한 충고, 즉 하극상이란 것은 당을 모욕한 죄악적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체 상부에 대한 반항, 나아가서는 충고조차 있을 수 없으며 무조건 복종하여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인민군의 규율이기도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일반 인민군의 장병들 간의 생활자체도 엄격히 구별되어 있으며 식사나 휴식시간에도 계급별로 구별되어서 식사하며 휴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락과 문화교양시간에도 김일성을 예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당을 절대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있으므로 일반적 교양문화와 자유세계의 문화소식 조차 듣지 못하고 다만 자유세계를 극구비난하는 선전물과 선동만이 충만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나 역시 과거에 자유제도를 마음껏 향유한 사람으로써 매일 기계같이 움직이며 일정한 규범 내의 교양만을 받아오는 가운데 어떤 기회에 남한의 방송이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갑자기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를 추구하며 자기의 현재생활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생활이며 전근대적인 군주정치 하에 살아나가고 있는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될 때도 많았다. 이럴 때마다 독재 하의 구속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인민을 우롱하는 우민정책이 얼마나 인간을 멸시하는 제도인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며 염세증이 발생할 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제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김일성에게 불평불만이 있다고 단정되면 그의 행방조차 모르게 없애 버리는 이 독재하의 군대생활이야말로 순박하고 천진한 청소년들을 용광로식 교육으로, 혹은 그들의 사상을 인간증오사상으로, 혹은 남한인민들을 적대시하는 사상으로 개변시키고 있으니 이야말로 민족분열의 산실이며 남침사상의 근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징병제도없는 강제소환입대로 기간제대없이 필요제대로 인간을 자기마음대로 소환하며 마음대로 추방, 혹은 제대시키며 필요에 의하여는 평생을 군대에 복종케 하는 인민군제도는 당과 김일성의 완전한 노예이며 침략적 도구로서 이룩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제도의 군대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무고한 청소년을 혹사하였으며 자기 안락을 위하여 수많은 청소년 장병들을 남침야군을 위하여 희생케 하였던 것도 나의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반면 지휘관 상호간에는 서로 충실한 당원이 되고자 혹은 김일성에게 아부를 다하기 위하여 상호 감시하여, 상호 뜯고, 서로 호시탐탐하게 노리면서, 자기의 지위승진을 위하여 갖은 모략과 중상을 일삼고 있으며, 사소한 사건이라도 발생되었거나 혹은 사소한 허위사실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당회의에서 가혹한 자기비판을 가하게 하여 여지없이 처단하며 숙청해 버리는 것이 인민군 내의 한낱 생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자비하고도 무인도적인 군대 내에서 광신적인 공산교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의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서 동요와 인간증오감이 있을 뿐이다.

나의 수년간의 군인생활은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시련의 시기였다. 마음대로 호령도 하여 보았고, 마음대로 강권으로서 혹사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항상 나를 노리고 감시하는 지휘관들에 대하여는 대담하게 역습식으로 그들의 약점을 파착(把着)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겠끔 미리 방어전술로서 임한 때도 있었다. 사실상 인민군의 고급군관이라는 것은 대개가 무지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순수한 공산교육과 김일성신화교육 대남한증오사상만을 교양받은 단순하고도 맹종적인 자들인만큼 이 자들을 다루기는 용이하고도 곤란하다. 그 자들의 약점과 맹점을 들고 사적으로 비밀히 충고만 하면 절대적인 복종과 아부가 생기는 법이다. 이러한 점을 나는 가끔 이용하여 그 자들을 마음대로 이용하였으며 또 그 자들은 자기 약점없이는 타협을 모르고 융합을 모르는 목석같은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완미한 가운데서 김일성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조직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군의 조직은 용광로식 공산세뇌교육으로서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산사상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강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네들이 자유의 진미와 민주제도의 진리를 음미하지 못하고 무지와 완미한 사상만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강력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조직이 한 번 와해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약체이며,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나의 생활을 통한 고귀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이 자들이 남한의 진정한 사회제도와 자유민주제도를 보기만 하여도 사상이 동요되며 그들의 지금까지의 맹목교육에 대한 증오까지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괴뢰군 생활의 수년간은 무지한 인민군 장병에 대한 가혹한 독재를 휘둘은 나의 전제적 시대인 동시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탄압과 착취를 자행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지하고 순박한 이 자들을 인간증오사상과 김일성 신격화 일색으로 교육시켜서 남침적화를 준비하였고 민족분열을 조장시킨 그 죄과는 무엇으로도 씻지 못할 만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대한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제도를 마음껏 음미한 나로서 과거의 인민군 생활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후진적인 일개개인 예속화의 군대이며 침략을 위한 완전한 정치도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공의 농경지총계

1962년, 중공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만주(滿洲), 몽고(蒙古), 티베트를 포함해서 총 농가 1호당 농경지는 9만보(九反步)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숫자다. 1939년, 만진조사부(滿鎭調査部)의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에 의하면 1호당 4, 내지 5반보였다. 당시에 비해 인구는 약 1억5천만 내지 2억5천만이 증가했다. 이 숫자에 기준한다면 신개척지가 거의 2억으로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아서도 믿을 수 없는 숫자다.

(「세계주보(世界週報)」에서)

공산주의와 사생활(私生活)

조 성 식(趙 誠 植)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도 귀중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없이는 생의 가치조차 음미할 수 없거니와 생의 욕구마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없는 곳에는 인간의 이성과 개성의 실현이 있을 수 없으며 희망과 이상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암흑을 횡보하는 동물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자유쟁취를 위하여 생명을 도(賭)하는 것도 인간본능의 자세를 간직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생활을 원만히 또는 행복하게 영위하려면 위선(爲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스러운 사회제도와 국가제도하에서 즉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이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지성이 발달할 수 있으며, 자유스러운 자기활동으로서 국가사회제도를 번영케 하며 무한한 자체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와는 다르다. 이 제도하에서는 개인을 위주로 하는 자유라든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중시하는 인권의 보장이라든가 하는 인격존엄성같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공산당에 종속하며, 공산주의를 절대시하는 이질적인 신봉만이 인간의 최고의무이며 인간개조의 수단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산주의 건설만이 전인류의 낙원과 평화 및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이론을 체계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위 공산주의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자유행위 자체가 해독(害毒)이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전체를 지도하고 향도하는 공산당에게 무한히 충성하며 당의 명에 의하여는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소위 신성한 교리처럼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자유와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공산주의 건설의 장애이며 이것은 인간착취산생의 근원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즉 개인주의가 발전하여 개개인의 자본축적이 이룩되므로 이것은 계급발생과 착취제도의 발생근원이며, 전체를 무시한 개개인의 가족제도 역시 사유재산

및 계급사회발생의 온상이라 하여 이것을 억제하며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 공산독재의 생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인간멸시의 교리를 철저하게 침투시키며, 교양하는 과정에는 인간본능적인 반박과 반대세력, 불평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앙양하며 또 거의 대부분의 인민들의 반발을 모면치 못할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체험으로 보아 당연한 사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독재자들은 인간본능의 반항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갖은 잔학하고도 악독한 처단과 학살, 숙청이 자행되기 마련이며, 또 그들의 무자비한 무력, 탄압 없이는 공산주의제도가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산당의 역사는 피의 숙청의 역사이며 살육의 역사이다. 오늘의 동지도 내일의 원수로 전변하는 것이 일수이고, 오늘의 장관도 내일은 죄인으로 전락되는 것이 그리 희한한 일이 아니다. 원래 정부욕만을 노리고 있는 그들의 역사적인 실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공산당위성국가 중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이란 미명하에 가장 악착같은 인민착취와 우심한 독재로서 인민들을 우마처럼 혹사하고 마음대로 억압, 숙청하는 곳은 북괴보다 더 심한 공산국가는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괴는 휴전 후 불과 4-5년간에 개인의 사소한 기업과 상공업마저 법령으로 폐쇄시키고 개인 상공업자들은 모조리 각종 중노동에 휘몰아 넣었으며 또 농업의 집단화까지 완수하여 개인농을 완전 폐지시키고 농업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모든 부문에 있어서 북괴당의 소유로서 독점하고 말았다. 특히 1958년부터 김일성의 독재의 길이 완성됨에 따라 더욱 강한 독재력을 발휘하여 철저한 중앙집권제하에 북한인민들의 노예노동의 강행은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 혹심무쌍하기 짝이 없이 되었다. 허울좋은 사회주의 낙원건설과 대남한의 중상욕설로 북한인민들을 기만하며 일루(一樓)의 자유와 기본권조차 완전 박탈하고 완전히 기계처럼 인간을 혹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인간개조란 명목으로 노동을 통한 공산주의적인 인간육성 및 공산주의도덕의 확립을 표방하며 인민들의 노동력을 격심하게 짜내고 있다. 그들의 소위 공산주의도덕의 기본내용을 보면 사회노동의무의 자각, 이기주의의 배제 당 및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고취, 자본주의사상잔재의 극복, 공산주의 적과의 무자비한 투쟁 등을 나열하여 인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개조하며, 공산당의 교리를 고취하여 실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산주의의 도덕을 확립함에 있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 소위 근로인테리층이 가장 핵심적이며 과거의 유산계급 낡은 인테리, 종교인 등은 도저히 공산주의신봉자로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고 결국은 반공으로 전변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 걸고 있으며, 실제 반동이라는 각인을 찍어서 수백만의 민주인사들을 노동지옥에, 혹은 감금형시켜 평생을 죄인취급하여 오늘도 잔학한 억압과 학살을 자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 중에서도 김일성 일파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한 낡은 공산주의자니 혹은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니 하는 명목으로 일시 이용하다가 제한하며 결국은 개조, 즉 숙청을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상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현실 그대로 실천하며 그렇게 처단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정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인테리, 기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제아무리 과거부터 공산주의 역사가 있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산주의적 세대교체와 인간개조 정책으로서 소위 낡은 인테리, 낡은 공산주의자라 하여 추방 및 숙청당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숙청방법으로 되어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 공산주의를 위하여 심명을 바칠 수 있겠금 교육교양한 순수한 신세대의 공산 인테리를, 혹은 공산근로자를 양성함으로써만이 독재를 원활히 계속할 수 있을 것이며 1인 독재의 영구적인 공고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며 독재권 확립에 있어서의 당연한 조치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멸되며 가족제도의 형성도 부모, 형제, 부부간의 숭고한 논리도덕마저 파괴되는 것이 제도상 필연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당의 독재를 절대시하는 만치 개인의 이익이란 당의 이익에 선행할 수 없으며 가족간의 비밀도 논리도덕도 당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광신교리를 철저히 진리처럼 고취하고 있으며 당은 신성무비한 공산국가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에 대한 허위와 기만은 최악의 죄악이며 최대의 반역으로 되어지 있다. 이것은 개인의 모든 것이 당에 예속되며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당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바 가족간의 비밀도 당에 토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일 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반공산주의요소가 발견되면 당 앞에 솔직히 비판하며 가족 상호간의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하여 당의 순결성과 당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을 총지도하는 수령에 대하여서는 소위 민족적, 국가적 지도자의 상징으로서 무한한 충성과 절대적인 신뢰 및 복종이 강요되는 법이다.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 신격화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여 역사의 위조와 함께 김일성의 소위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존재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한낱 종교처럼 신앙케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김일성 일파는 절대적 권리를 한 몸에 지닌 채 인민들의 생사여탈지권을 자유자재로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조작하고 전대미문의 독재를 자행하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사소한 불평불만과 반발이라도 표현할 수 없으며, 다만 독재에 복종할 자유노동혹사를 강요당하는 자유만이 있을 수 있고 언론, 집회, 결사, 신앙, 거주의 기본권이란 부여될 수도 없거니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다만 매일매일 묵묵히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먹고, 정한대로 거처하며 명령하는대로 응할 뿐이며 이에 이론과 반항의 기색이라도 나타내면 이색분자, 반동분자로 각인 찍히거나 혹은 무자비한 숙청으로서 응답할 뿐인 것이다. 이렇듯이 악랄무쌍한 공산독재하에서는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아예 인정받기 커녕

존재가치조차 완전 말살당하고 당의 종속물로서의 개인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과 이성은 자유로이 발전할 수 없으며, 완전히 기계처럼 되어 버리며 심경이 임비(痲痺)되고 희망과 이상과 계획이란 있을 도리가 없는 바 그 결과는 혼빠진 인간처럼 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부자간의 효도심, 부처(夫妻)간의 애정, 가족간의 정리(情理)는 자연 사라지고 상호 감시하며 상쟁하는 분위기로 전락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일파의 소위 공산당 수뇌자들은 그야말로 다함없는 환락과 주지육림 속에서 필요한 대로, 희망하는 대로 모든 물질적 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민에게 착취한 모든 생산부를 마음대로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며 탕진할 수 있는 바 이것은 공산독재하에서만이 야기되는 이질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독재자는 일평생 교체없는 독재정권을 지속하면서 전체 인민들에게는 일루의 자유와 사유의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갖가지 명목의 노동경쟁운동에로 휘몰아 넣어가면서 소위 노동의 신성을 부르짖고 노력적 기적을 구가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찬양하여 노동액의 최후의 일적(一滴)마저 짜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땅에서는 세기적인 독재권을 발휘하여 북한인민들을 모조리 천리마 기수라고 칭하고 전근대적인 노동혹사와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다. 노동착취의 정당성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갖은 구호와 심지어는 공산통일의 촉진책의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권은 전연 무시당하고 전부가 김일성의 대기업의 노예노동자로 전락되었으며 지정된 직장 이외에는 자유이동이란 있을 수 없고 사적 여행과 사적 휴식조차 있을 수 없다. 개개인은 농촌에서, 어촌에서, 공장에서, 광산에서, 탄광에서, 소위 당이 배치시킨대로 지정한 직종에서 평생을 노동으로 시작하여 노동으로 종말시키고 우마처럼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노력만을 소진할 것이 강요되고 있을 뿐이며, 개개인의 생활은 숨막히는 중노동과 당의 공산주의세뇌교육만을 충실히 받게하며 지령대로 행동하고 지시대로 움직이며 자기의 주장과 의견의 개진없이 다만 노력적 열성만을 다할 것이 강요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신격화의 일환으로 『수상님이 사유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대로, 숨쉬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하여야 되며 소위 김일성 원사님의 만수무강을 기도하며 수상님은 적어도 백세 이상을 살아야 하며 또 그러함으로서 우리들의 행복이 깃들며 공산주의 낙원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교양하며 진리와도 같이 습득케 하고 있다.

이것이 곧 북한인민에 대한 우민교육이며 맹종교육의 일단인 것이다. 이러한 암흑의 생지옥에서 개개인의 생활양상이란 완전히 기계처럼 되었으며 혼비백산한 인간처럼 화하고 생기발랄한 생동적인 활동과 희망과 이상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간자세라는 것은 전연 찾아볼 나위조차 없고 다만 삶을 위하여 노동하는 우마처럼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치하의 연 애(戀 愛)

이 철 주(李 喆 周)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기에 앞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간에 친밀감과 부드러운 이해를 부화키셔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

인간은 이 즐거움을 찾아 사랑 때문에 자기생명을 걸기도 하고 자기의 전재산을 탕진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사랑 때문에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질투, 복수의 불사조가 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자유세계의 사회인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사랑의 낭만을 구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극히 보편적인 사실인 것이다.

가령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 상호 간의 출신, 성분 또는 직업적 귀천 혹은 계급적 차이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마저 자유롭지 못하며 무서운 통제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 사랑할 권리마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자연인으로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도 통분할 노릇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공산독재집단들에서는 인간 개성의 자유와 진실한 생활 심지어 사랑까지도 포함하여 공산사회에서만이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 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론 공산사회는 공산사회대로의 질서가 있으며 자유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사회에서 공산주의적인 질서와 사랑이 어떤 형태로서 벌어지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소련이나 북한 등 공산사회에서도 분명히 사랑은 존재하며 또 성행하고 있다.

또한 영화나 소설, 시 등 문학작품에서도 사랑 문제가 허다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

즉 당성(黨性)이라는 것이다.

당성이 없는 사랑 연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성이라함은 공산당의 강령과 규약을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며 당강령 규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당의 이익을 위주로(선차적) 삼는 인간의 이성과 성품을 당성이라고 한다.

이 당성이 없는 사랑과 연애는 배타적이며, 비당적이며 혁명성을 거세하는 색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색정적인 사랑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잔재이며 세기말적인 추잡한 것이며 퇴폐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공산사회에서 숭고한 사랑, 연애는 우선 당적이어야 하며 당성이 발현된 사랑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적이며 당성이 발현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공산사회에서도 사랑의 낭만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 낭만자체도 자유세계처럼 조건이 없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붙는 낭만주의이다.

우선 이를 문학작품의 경향에서 찾아본다면 공산사회에서는 혁명적 낭만주의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혁명적이라는 전치사가 붙는 낭만주의란 곧 공산주의적, 로맨티시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로맨티시즘이란 우리들 인간의 감정을 토대로 하여 전통적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 놓고 자유와 분망과 환상을 높이 평가하려던 일종의 혁신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18세기 — 19세기 전반에 걸쳐 휩쓸던 낭만주의를 지금도 향수를 잊을 수 없듯이 고성에 감도는 사랑의 향기를 그리며 옛 무사들이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오던 그 많은 에피소드를 잊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낭만주의란 공산당의 이념을 토대로 삼는 낭만주의인 것이기 때문에 공산사회의 현실 다시 말해서 긴장된 투쟁속에서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위한 침략정책에 따르는 국방력 강화와 집단적 착취노동을 강요함에 있어서 공산사회 주민들을 건설자 및 노력영웅으로서 추켜세워 침략정책의 수행(이를 그들은 혁명과업이라고도 하고 혁명적 발전이라고도 한다)을 형상적으로 인식케 하는 조건 밑에서 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사회의 건설과 그 침략정책을 위해 선차적으로 당적 명령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하고 후차적으로 사랑의 낭만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형 즉 전형적인 주인공을 형상하는 문학창작방법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부르고 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공산사회의 유일한 창작방법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의해 창작된 허다한 작품의 전형적인 주인공들은 혁명 후 낭만주의를 현실적으로 생활을 펼쳐지게 한다.

소련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차바예보」「청년 근위대」「고요한 돈」「강철은 어떻게 단련 되었는가」

북한에서「백두산」「백두산은 보인다.」「역사」「땅」「두만강」등등 허다한 작품 등의 주인공은 작품 가운데서 순수한 사랑을 속삭이지 못한다.

즉 당의 혁명(침략정책)과 관련이 없는 인간본능으로서의 애정을 속삭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남녀가 모두 먼저 공산당의 정책을 놓고 공산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검토한 후에 비로소 사랑 문제를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작품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없다.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은 창작할 수 없거니와 또 창작하여도 검열관계로 출판 및 발표를 할 수 없다.

또 억지로 창작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곧 무사상적이며 자본주의사회의 순수예술작품이라고 하여 반동이라는 낙인을 찍히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제특징을 규정해 놓은 다음과 같은 부언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작품은 임의의 인간의 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격에 명확한 제특징(즉 공산당적인 것)을 명시하는 시대의 인간「타이프」를 창작」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의해 출현한 것이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연애관에 의해 현실생활에서 사랑은 먼저 통제와 제약을 받으며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현실생활에서 실례를 찾아 보자. 남녀 쌍방이 당원인 경우 우연한 기회에 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때 남녀가 갖는 사랑의 정은 자유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열열히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들 남녀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당성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결혼이 자기 장래에 유해한가를 먼저 따지게 되고 이 쌍방은 각각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당부의 비준을 받게 된다.

당에서 그들 남녀의 출신성분을 검토한 후에 가부가 결정된다.

같은 당원이면서도 남자는 노동자 출신의 간부요 여자는 지주출신의 당원일 경우 당은 이 결합에 대해 가급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현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당원이라고 하지만 여자의 출신이 반당적인 출신이기 때문에 장래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당원이고 남자가 비당원인 경우 이들의 사랑이 제아무리 열열하였다 해도 이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이 허락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자가 당원이고 여자가 비당원인 경우는 당에서 여자의 출신성분과 현재 여자가 어느 정도로 공산정책을 지지 협력하고 있는가 그 척도에 따라 결정된다.

비당원 남녀의 경우에는 당이(연맹노동조합) 여맹(女盟)을 통해 이들을 통제한다.

공산사회의 사랑과 연애는 이렇게 통제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을 통해 볼 때 그곳에는 진정한 낭만도 본능적인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작품을 통해 보는 사랑은 처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차적으로 밖에는 취급되지 못하나 작품의 세계에는 낭만이 있다.

그러나 이 낭만은 순수하지 못하고 모두 현실기만의 허구와 날조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공산사회의 젊은이들은 우리 자유세계 젊은이들이 사랑에서 갖는 즐거움, 괴로움, 슬픔과는 다른 의미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갖는다.

공산사회에서는 사랑 때문에 갖는 질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복수로 변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거나 자기 재산을 바쳐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슬기로운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사랑은 우리생활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지만 공산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사랑에 앞서 공산당을 읊조려야 하고 공산주의 건설을 먼저 말해야 하고 당성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래서 공산사회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위해 포옹과 키스를 할 수 있어도 그 포옹과 키스를 하면서『이 감미로운 순간을……이 애타는 뜨거운 가슴을 부여안고 이대로 영원하기를……』하는 따위의 감정표현을 외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외형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감미로움? 이것은 당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덕이며 영명(英明)한 수령(김일성)의 가르치심에 의해 이 순간을 영원토록……그리고 저는 이 사랑을 당을 위해 바치리라……』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하니 사랑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회이다.

이렇듯 생활의 진실성이 없이 인공적으로 구애를 받아서 기계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이기때문에 연애와 도덕의 윤리를 운운하더라도 그것은 곧 허무한 기만인 것이다. 그리고 사랑마저 자유롭게 외울 수 없는 사회가 곧 공산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픈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의 꿈

최근 중공의 신문은 중공의 농업을 기계화해서 농업증산에 혁명을 가져온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공정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면 그들은 그것이 일장(一場)의 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소련은 혁명 40년이 지났어도 아직 농업의 완전 기계화가 못 되었다.

소련의 공업수준은 중공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 중공은 농업기계화에 앞서 공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의 사정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호언은 넌센스다. 일본에는 현재 농업기계 생산회사가 350개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농업 기계화는 과연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중공의 농업기계화란 몇 세기 후의 꿈이 아닐 수 없다.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에서)

후진국(後進國)에 대한 공산원조의 본질(本質)

—그 현황 · 목표 · 본질—

양 흥 모(梁 興 模)

공산원조의 현황

공산진영에서 후진국에 대하여 원조를 할 만한 나라는 소련과 중공, 체코슬로바키아이다. 소련과 중공, 체코가 후진국에 대하여 얼마만치의 원조를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원조를 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소련은 1960년 현재 저리차관(低利借款)으로 아시아·아프리카 14개국에 약 90억 루불을 제공하여 3백 이상의 공장 또는 각종시설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에 대한 공산원조의 현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라마다 단편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즉 후진국에 따라 소련이나 중공 또는 체코의 원조를 받는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목표라든가 본질을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 후진국에 대한 공산원조의 현황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말하여 둘 것은 전체 후진국을

다 망라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자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나라의 경우만을 든다.

또한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노선에 따라 중립국가·공산위성국·자유국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산원조를 받는 나라는 대체로 중립국가와 공산위성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각국별로 보되 중립국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공산위성국을 보기로 한다.

1. 중립국가

①「버마」= 1962년 8월 소련은 경제협조협정이라는 이름 밑에 350만 루불에 달하는 장기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자금으로 버마는 댐을 건설하여 관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중공은 1961년 12월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여 3천만 파운드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버마는 이 돈으로 농업발전 또는 수력발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중에 약 3백 명에 달하는 중공의 기술자가 버마에 파견되었다.

②「캄보디아」= 소련은 댐건설과 프놈펜에 있는 기술학교의 시설에 재정원조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정당(精糖)공장건설조로 1억 9천 5백만 리엘(백리엘은 약 1.5 미불), 타이어공장건설조로 2억 6천만 리엘·트렉터공장건설조로 3천만 리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공은 1962년 3월부터 방직공장, 제지공장 건설을 위하여 4억 리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③「세이톤」= 중공은 1958년에서 1962년까지 철도건설조로 7천 5백만 루피(1불=8.55루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④ 인도 = 소련은 38억 4천 9백 30만 루피, 체코는 2억 3천 1백 루피의 원조를 1961년 말까지 제공하였다. (5.6루비가 미1불). 중·인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소련은 미국원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12대의 미그·제트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생산공장 건설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963년 5월 27일 인도의 크리슈나 마차리 경제·국방조정상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중 4대는 이미 제공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 5월 25일 소련은 인도의 정유소 확장을 위한 인·소경원협정을 조인하였다.

⑤「아프가니스탄」= 소련은 군사원조로서 소련제 무기로 장비하고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다.

⑥「이락」= 소련은 1963년 2월 8일의 혁명시까지 캇셈정권에 대하여 차관 2억 3천만 불 군사원조로 4억 불을 제공하였다.

⑦「예멘」= 소련은 1958년 7월의 차관협정으로 호데이타항을 준공, 그 밖에 군사원조로미그·제트기, 탱크를 제공하고 군사고문단을 주둔시키고 있다. 중공은 1958년의 차관협정으로 호데이타, 사나 간의 도로를 완성하였다.

⑧ 통일「아랍」공화국 = 소련은 1955년에서 1963년까지 무기원조 및 아스완·댐 공사비원조로 7억 불을 제공하였다.

⑨「기니아」= 아프리카의 가장 좌경한 나라로서 소련은 기술원조협정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⑩「에치오피아」= 1959년 소련은 1억 불의 차관협정올 체결하고 현금까지 1천 8백만 불을 제공하였다.

⑪「인도네시아」= 독립 이래 1960년까지 소련은 7억 6천 7백 50만 불을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군은 소련계 무기로 장비되어 있다.

이 밖에 공산위성국에 대한 몇 가지 원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산위성국

① 북한 = 소련으로부터 10억 루불·중공으로부터 8조 원, 그밖에 동구공산위성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② 몽고 = 1960년까지 소련으로부터 15억 루불, 중공으로부터 2억 6천만 루불의 원조를 받았고 1961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장기차관조로 소련은 6억 1천 5백만 루불, 중공은 2억루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③ 월맹 = 중공은 59년 2월 무상원조로 1억 원, 장기차관으로 3억 원(연리 1분 상환기간 10년), 소련은 1959년 3월 1억 루불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④ 쿠바 = 쿠바에 대해서 소련은 하루 백만 불에 달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카스트로의 모스코바 방문을 계기로 3억 내지 4억 루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산원조(共産援助)의 목표(目標)

한마디로 공산원조라 하더라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한 예로써 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공산원조라 하더라도 소련의 원조와 중공의 원조 또는체코슬로바키아의 원조로 나누어진다.

둘째로 공산원조를 받는 나라를 볼 때도 중립국과 또 하나는 공산위성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같은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지역에 있는 중립국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중립국으로 나누어진다. 이것도 자유세계와 지리적

으로 가까운 나라 또는 먼 나라와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공산위성국을 볼 때도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위성국과 그렇지 않은 위성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공산원조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첫째로 중립국에 대한 공산원조의 목표는 무엇보다 중립국이 처하는 입장과 연관된다. 원래 중립국은 동·서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비동맹주의를 내걸고 있다. 또한 중립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소련이나 중공은 중립국을 자기편으로 끌기 위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될 수록 중립국을 친공화하여 서방측과 이간시키려하고 있다. 중립국에 대해서는 서방측도 원조하고 있다. 공산원조는 여기에 대결하려는 책동도 포함하고 있다.

중립국중에서도 무기원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중립국이 서방측과 대결하고 있을 경우이다. 이를테면 소련은 한때 이라크에 무기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이라크가 과거 서방 진영이었다가 중립혁명으로 서방측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은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원조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서부 뉴기니아 문제를 둘러싸고 화란(和蘭, 네덜란드)과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중립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자유진영의 어느 나라와 중립국과의 싸움을 붙이려는데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서방측을 약화시켜보자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립국에 대한 무기원조 중에서 인도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들 수 있는데 인도가 중공과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의 서방화를 막아보자는데 있다.

또한 소련의 공산위성국에 대한 원조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테면 소련이 파테토·라오, 라오스 공산군이나 공산월맹군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무력으로 비공산세계를 정복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공산위성국에 대한 원조는 공산위성국의 지위를 확고히 시켜 철두철미 모스코바에 추종시키는데 있다. 소련은 알바니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였는데 그 단적인 이유는 알바니아가 모스코바의 말을 듣지 않고 중공을 따르기 때문이다.

중공과 소련의 이념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공산원조는 그들간에 경쟁이 되고 말았다. 서로 자기편으로 끌기 위한 공세가 심하여졌고 그들간의 충돌이 생기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인도에 대한 소련의 원조이다. 또한 라오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라오스 공산군은 소련보다 중공

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쿠바의 경우는 중공의 치열한 유인공작이 있었으나 지난 5월의 카스트로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모스크바에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공산원조의 목표는 사실상 다기다양한 면이 있다.

공산원조의 본질

공산원조의 목표는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그 본질은 적화의 한 방편이다. 원조라는 것은 원래 불행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밖의 분야를 통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조로 말미암아 주권 또는 영토의 침해가 없어야만 한다.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상이한 제도 또는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원조의 타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원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라에 따라 당면한 목표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의 강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원조는 원조라는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원조를 받는 나라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 원조 때문에 주권이나 영토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산원조를 받는 나라 중 그에 넘어간 예도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를테면 쿠바는 공산원조를 받은 끝에 소련의 위성국이 된 좋은 예이다. 그러나 중립국가 중 공산원조를 받으면서도 적화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것은 공산원조에 따른 공세를 그 나라가 얼마만치 직시하고 흔들리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중립국들은 공산원조에 숨은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산원조는 그들이 원조로서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이라크에 대해서 소련은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이라크에서는 오히려 공산분자를 소탕하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은 공산원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공산원조는 주권의식이 강하고 독립의식이 강한 나라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국들이 공산원조를 받으면서도 공산주의를 경계하겠끔 만든

것은 적화된 공산위성국의 처지가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일단 적화된 나라의 주권이나 독립 그리고 자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원조로서 감출 수는 없게 되었다. 한 때의 공산선전에 현혹된 나라가 차차 각성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공산원조 속에 숨은 책동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한때 소련의 원조만을 위주하던 중립국들이 미국의 원조를 더 호감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원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더 많고 그에 호의를 가지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미국의 원조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조로서 남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침해한 경우는 없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지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차등이 판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들은 다 같이 후진국의 각성과 함께 저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 조선일보논설위원〉

× × × × ×

◇아버지와 아들

석유왕 존·록크텔라가 워싱턴 위라드 호텔에 들었을 때 가장 헐한 방을 찾았다. 그랬더니 지배인은 항의하는 말투로

"그렇지만 아드님은 제일 좋은 방에 주무시고 갔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야 그렇겠지. 아들은 돈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처럼 행복된 존재는 못돼"

지배인은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백달러 지폐

미국의 백만장자 카네기는 교육, 사회시설에 많은 힘을 썼다. 또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다. 아무도 그를 모르는 어느 여행간 곳에서 그는 교회에 들렀다. 그리고 연보에 100달러 지폐를 넣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헌납금의 액수를 알리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떤 분이 100달러 지폐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분이 넣은 100달러 지폐가 가짜가 아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딱한 말

자동차 운전수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고장난 발동기를 고치고 있었다. 거기에 헨리·포드(미국의 기술자, 산업자본가. 1863-1947)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발동기를 고쳐 주었다.

고장난 자동차의 운전수도 매우 기뻐하며 그가 헨리·포드인 줄은 모르고 2달러의 팁을 주었다.

"아니 좋습니다. 팁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경기가 좋은 편이니까"

하고 포드는 웃었다.

"뭐라구요 그렇다면 왜 포드 자동차를 끌구 다니오"

핵시대(核時代)의 미소(美蘇)의 전략사상(戰略思想)

권 정 식(權 禎 植)
〈국방대학원 교수〉

전략의 개념

크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전쟁론」에서 전략을『전투를 전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지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전략은 전군사행동이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크라우제비츠의 사상은 고전적인 것이다. 고전적인 전략사상에 있어서는 전략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전투를 전쟁목표에 도달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행동의 계열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규정지워졌다.

전쟁을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유혈만이 승리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전쟁관에 입각할 때 상술한 전략의 개념은 타당한 것이라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조는 제1차세계대전시는 물론 핵시대에 들어선 제2차세계대전 종료 후의 한동안까지 군사학도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군사적 천재로서의 이름이 높았고 제1차세계대전에 있어서 연합군을 지휘하였던 프랑스의 홋슈장군의『어떠한 전략도 전술적 결과 즉 투쟁으로서의 승리를 보증하는데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나『전투없이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미국의 리델 하아트의『전략은 장군의 용병술』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시대에 접어든 다음부터의 전략은 그 개념을 달리하게 되었다. 구구한 설명이 불필요하리만치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지만 핵시대의 특징은 핵무기의 절대한 파괴위력과 경이적으로 고속 장거리화한 운반수단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안식처인 지구가 핵무기의 목표로서는 너무나 좁고 적어졌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전략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과 소련에 저장되어 있는 핵력의 총화는 30억 전 인류에게 1인당 15 둔씩 돌아갈 정도의 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유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항속거리나 사정은 지구의 어느 곳이고 도달하지 않을 지점이 없다. 여기에다가 장차 핵탄두를 운반하는 군사적인 인공위성이 등장하는 날이면 지구의 존재는 너무나 가련한 것이 될 것 같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생존을 보전해야겠다는 인류의 절대적인 명제와의 사이에서 핵시대의 전략사상은 희망과 실망, 비관과 낙관의 양안(兩岸) 사이에서 「지(之)」자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핵시대인 지금의 전략사조는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고전적인 계보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전략사조는 제1의적(義的)으로 먼저 어떻게 하면 절멸가공(絶滅可恐)의 전쟁의 참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전할 것인가에 부심하고, 일단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적측을 섬멸하고 우리측은 생존할 수 있겠느냐, 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라는 문제는, 제2의적이며 부가적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시대의 전략은 이면성이 불가피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상술한 전자를 전략의 정치적 기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전략의 군사적 내지는 현실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의 이면성은 이미 리릴·하아트가 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대분한데서도 인정되어 있지만 필자의 분류는 리델·하아트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분류이다.

요컨대 핵시대의 전략사상은 전쟁을 주어진 정치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전쟁자체가 제시하는 용병이나 작전과 같은 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전파의 관점에서 탈각하여, 전쟁수단과 도구의 위력이 과대해진 현실성을 중시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인류의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맞겨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병자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兵者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고 했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한 손자(孫子)의 사상으로 환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註)「병자국지대사, 사생이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兵者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전쟁은 국가안위의 중대사이다. 귀중한 인명의 희생이 강요되고 한 나라의 존망이 좌우되는 기로(岐路)이니 만치

결코 경솔히 일으킬 것이 못 되니 깊이 생각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 백 번 싸워서 백 번 다 이겨도 거기에는 적과 아방에게 공통히 손해가 생겼을 터이므로 이것은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쟁의 비결은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데 있다.

핵시대의 전쟁

핵시대의 전략사상은 핵시대의 사회적 현상의 소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현상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시대의 동·서의 전략사상을 검토하기 전에 전략사상가는 닭과 계란의 관계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전쟁, 그 자체를 고찰해 보는 것이 핵시대의 전략사상의 개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들이 흔히 쓰고 듣고 보고 하는 전쟁의 호칭에 핵전쟁, 재래식전쟁, 전면전쟁, 제한전쟁, 세계전쟁, 국지전쟁, 직접전쟁, 대리전쟁, 냉전, 열전 등의 용어가 있음을 안다. 이것은 각종 전쟁을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대조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관용어이다. 이 밖에도 해방전쟁이니 혁명전쟁 또는 침략전쟁 등의 호칭도 있지만 이것들은 전쟁목적상의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전쟁형태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시도는 별로 볼 수 없다. 다음에 미국 육군의 (FM 100-5. 1962년판) 분류법을 소개함으로써 핵시대의 전쟁과 관련시켜서 전략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한다.

⑴ 전면전쟁

전면전쟁이란 핵 보유국가 또는 그 집단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무력충돌을 말한다. 그의 특징은 제한의 결여와 각각의 본국에 대한 핵공격이다. 전면전쟁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접적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특수한 투쟁이다.

⑵ 제한전쟁

제한전쟁이란 교전국이 전쟁목적, 사용무기, 교전지역, 참가국 등 중에서 그 하나 이상의 사항에 관해서 의식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한전쟁의 규모, 강도 및 지속시간은 그 제한의 정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한했다고 해서 이것이 소규모이고 또 중요성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하는 소부대의 충돌일 수도 있지만 또다른

경우에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대병력이 참가할 수도 있다. 어느 선이나 정도까지 이 제한을 풀어 버리면 전면전쟁으로 발전하느냐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한전쟁에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 한쪽의 교전국이 그 국민의 생존이 직접적 즉각적으로 위태롭게 되어 모든 제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제한전쟁의 한계를 넘은 것이 된다.

⑶ 냉전

두 개의 국가 또는 국가집단간에 행해지는 힘의 투쟁 가운데서 전면전쟁과 제한전쟁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투쟁을 냉전이라고 부른다. 대립하는 양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인 힘 뿐만이 아니고 군사력까지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위를 획득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서 군사력은 중요한 냉전수단으로 직접, 간접 이 목적 달성에 공헌한다. 예비병의 동원, 현역병력의 전개 등으로 상대방을 견제할 경우가 있다. 또 위기에 처한 우호국 정부의 구원불안정지역의 안정, 질서의 유지회복, 생명 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군대가 사용된다. 냉전의 본질은 양진영간에 공공연한 무력충돌이 없다는 점에 있지만 냉전과 제한전쟁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냉전이라 할지라도 정규군대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전략사상

⑴ 핵전쟁에 대한 인식

군축이나 평화를 강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동·서의 어느 진영의 인사이고 간에『핵전쟁에 있어서는 전승자가 없고 교전 쌍방은 물론 전 인류가 전멸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직『핵전쟁의 결과』나『핵전쟁과 인류의 생존』에 관한 정설은 없다. 에드와드 텔라 박사와 같이『핵전쟁이란 항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과학자가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세계의 문명은 10년 내지 100년이면 현재의 수준으로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하에 핵전쟁 가능론을 부르짖는 허만·칸과 같은 낙관론자들이 있는가 하면「핵전쟁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방사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곤충과 박테리아 뿐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물학자들이었다, 그러나 동·서의 군사기획가나 군사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핵전쟁이 재래식전쟁보다는 훨씬 가열하고 처참하겠지만 전 인류의 절멸이나 교전 쌍방의 공멸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의 강령에도 핵전쟁의 결과

멸망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주장을 명기하고 있는 사실과 미국이 소련의 기습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공격력이라는 보복력의 증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하기 아쉬운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동·서양진영이 갖는 핵전쟁에 대한 치정(治政)적 견해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일치해서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계적화를 기도하는 소련이나 기타의 공산주의국가의 기습이 그 원인이 될 것으로 단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련은 소련대로 앞으로의 핵전쟁은 서방제국주의자들(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의 대량 핵기습공격에 의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뭐라해도 제2차세계대전 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스에즈 분쟁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대소의 전쟁과 분쟁을 소련이 직접 도발하지 않으면 그의 위성국가를 시켜 도전해 왔으니 소련의 대서방 불신을 하나의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핵전쟁에 대한 소련의 견해의 커다란 특색은 그것이 최초의 핵 로케트의 타격의 응수만으로서는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따르는 각군, 각병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에 의해서만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미국도 케네디 정권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아이젠하워 정권시대의 대거보복전략에서 일대전기를 이룩하여 강력한 재래식병력의 유지에 힘을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의도는 소련의 그것처럼 핵공격 후의 승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마당에서 핵전력이 지니는 취약성을 보완하여 핵전쟁, 재래식전쟁, 대전쟁 소전쟁의 일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데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2) 억제론(抑制論)

핵전쟁은 가공한 것이며 불행스러운 결과 이상의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현대전략에 있어서는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 최우선적인 주안(主眼)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서가 공통적이다.

억제란 보복력에 근거한 생각이다. 따라서 억제력이란 즉 보복력이다. 억제의 사상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최소억제이고 또 하나는 최대억제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두 흐름의 중간에 유한억제라는 전략사상이 있다.

최소억제는 열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성을 갖는 상대방에게 핵전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이것은 다음에 논급할 유한억제와 같이 대도시전략으로 귀착된다.

유한억제는 최소억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태여 구분한다면 이것은 핵열무기를 보유하고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는 그것만으로는 신뢰성이 있는 억제력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억제를 유효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유한억제론자들의 소론이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기습적인 제1격을 받은 다음에도 핵무기와 이의 운반체계의 필요량이 잔존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정책결정기관, 긴요한 군사요원, 작전의 수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군사지휘계통 등을 포함한 전보복체계가 살아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대억제는 억제의 효과는 적의 군사적 패배가 예기되는데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니 보복력은 적의 공격력을 완전히 그리고 확실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또 취약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대억제론자들이 생각하는 보복력의 주요목표는 적의 공격력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대전력전략으로 발전한다.

1961년 가을 소련 국방상 마리노프스키는 제22차 소련방공산당대회에서 행한 보고연설에서 군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제1의 임무는『적의 기습공격을 확실히 격퇴하고 항상 적의 범죄적 의도들 좌절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그리고 소련의 대표적인 군사평론가로 알려지고 있는 타렌스키 소장은『비록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해와도 소련의 ICBM은 엄체(掩體) 속에 있고 기동력이 있으며 또한 많은 위장목표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궤멸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표현으로 미루어 종전까지의『세계 제1의 군사적 강국인 소련에 대하여 소련보다 강한 미국이 감히 도전할 수 없다』는 단순한 선전적인 정치적 억제론에서부터 군사적 현실적 억제론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소련의 핵전력은 서방측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별표 참조). 이에 관하여 미국의 전략연구소의 일원이며 물리학자인 브라겟트 교수는『소련의 핵전력이 서방측의 그것보다 적은 이유는 소련이 대도시전략 즉 최소억제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국내 경제의 건설과 자본주의제국과의 경제경쟁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소련으로서는『상대방의 기지를 성공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에는 미급하지만 도시에 대한 보복공격은 가능한 핵전력』즉 최소한의 보복력을 갖는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군사비 지출의 절감을 기도하고 있으리라는 점에는 수긍이 간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최대억제의 대전력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공표된 것은 작년 6월 16일이다.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미시건 대학의 졸업식전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핵전쟁의 경우 미국의 주요 군사목표는 적의 일반시민이 아니고 군사력의 파괴라는 것을 천명(闡明)했다.

최대억제론에 연유하는 대전력전략은 수세적인 입장과는 조화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호전적이며 침략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또 이 전략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요청은 천문학적 수에 달할 위험성이 있어 군비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은 전략이다.

방위적이며 수세적인 입장을 전통적인 이상으로 삼는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면에는 서유럽을 비롯한 전 자유세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

⑶ 적국 대중에 대한 기대

장개석(蔣介石) 자유중국 총통이 본토진공을 역설함에 있어서 본토 내에서 공산 압정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국부군의 진공에 호응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기대가 큰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듯이 소련의 전략에도 이러한 일종의 사회전쟁적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920년대의 소련 전략은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을 전략의 기초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의 실례로는 당 강령에「만약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새로운 세계전쟁을 시작한다면 제국민은 그들을 황폐전쟁으로 몰아넣은 제도에 그 이상 인종(忍從)하지 않고 제국주의를 매장할 것이다.」라는 일구(一句)가 있다. 적국민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소련이 자기들의 전략이 최소억제이며 대도시전략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생각은 현행 대적심리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같지 않다.

⑷ 국지전쟁(局地戰爭)

소련의 위정자는 물론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습성 중에는 객관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이나 인도지나전쟁 및 스에즈 분쟁 같은 국지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전략론은 기묘하게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가르쳐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고 세계대전을 시발하기 위한 한 형식이라는 궤변을 농(弄)해 왔다.

그러던 것이 흐루시쵸프가 1961년 1월 6일 당 학교에서의 연설에서 국지전쟁의 가능성을 긍정한 후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국지전쟁을 인정함과 동시에 장래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소련군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⑸ 재래식병력

아이젠하워 정권하의 8년간 미국은 대량보복전략이라는 핵 위주의 전략으로 인하여 재래식 병력은 질, 양 양적 면으로 쇠퇴했었다. 이것을 그럴듯한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미국은 너무나 큰 폭탄과 너무나 적은 육군이라는 절름발이의 군사력에 그의 안전보장을 의탁(依託)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소련은 큰 폭탄과 큰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도 한때 미국과 같은 대량보복의 사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1960년 1월 14일 흐루시초 프의 120만 병력삭감제안의 연설이 그 증거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얼마 안 가서 취소되었다. 전쟁을 위해서는 대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정 러시아군 이래의 일관된 소련군의 사상이다. 따라서 핵시대에 있어서도 미국 사람들은 화력의 위력은 병력의 수적인 소요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소련사람들은 화력의 위력이 크면 클수록 병력의 희생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도 케네디 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재래식 병력의 중요성을 중시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핵전쟁에 미달하는 소규모의 분쟁을 통하여 자유세계를 잠식해 들어오는 공산주의의 팽창주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소련의 그것과 같이 핵시대에는 대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⑹ 유인폭격기(有人爆擊機)와「미사일」

미사일 시대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략폭격기로부터 전략미사일에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후반의 일이다. 미국의 국방성의 계획에 의하면 1963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전략폭격기는 하강하고 전략미사일은 상승하여 1970년에 가면 유인폭격기는 완전히 노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련이 미사일 위주의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이때 흐루시초프는 유인비행기는 이미 시대의 낙오자이며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호언하고는 매년 실시하던 에어·쇼는 중단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무슨 까닭이라는 설명도 없이 다시 에어·쇼를 열고 신형 항공기의 과시에 바쁜 것으로 보아 유인비행기는 박물관에 가다가 되돌아 온 모양이다. 그리고 400여 척의 강력한 잠수함대를 가진 소련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잠수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미국의 폴라리스 잠수함과 같은 잠수함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변경했다. 그것의 두드러진 증거는 1961년 11월 소련 정부기관지인

구분	미국	소련
ICBM	20	75~100
IRBM	105 (250)	200~300 (700)
폴라리스	160	80
원자력잠수함 (그중 폴라리스잠수함)	26 (10)	12 (5)
대륙간폭격기	700	200
중거리폭격기	800~900	1300
항공모함	16	0
항공모함탑재 핵공격기	400	0

「이즈베스차」지가 보도한 「쥬코프」전 국방상의 해임 이유에 나타나고 있다. 즉 동지는 쥬코프 원수(元帥)의 해임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쥬코프 원수는 로케트 무기를 경시하고 총검에 의존하려 했다. 특히 그는 해군력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원자력잠수함의 역할에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드디어 흐루시초프 수상은 핵장비의 고속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를 명령했다.』고.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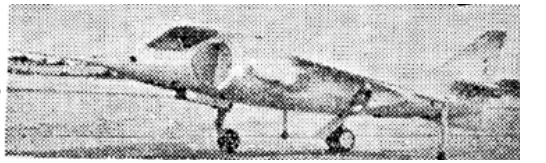
오산이나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핵전력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 지구상에는 전면전쟁의 대상에 해당할만한 가치가 소실되어 인간이 건실한 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전면전쟁과 인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밀주의와 선전에 의한 시위효과에 중점을 두고 공식적인 교의와 주관적인 독단에 흐르던 소련이 근년에 이르러 미국의 U-2기나 사모스 위성 등의 실용화 때문에 그 효과가 감퇴된 것을 인식하게 되자 이제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앞으로의 군의 건설이나 전략사상도 이 선에 따라갈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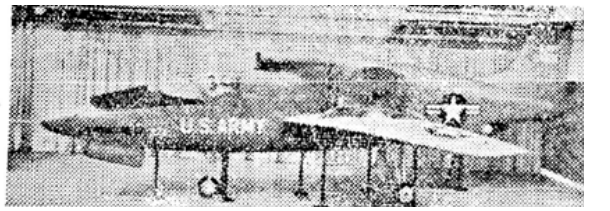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소련의 당면목표는 대서방 보복핵전력의 건설일 수 밖에 없다. 현재상태로서는 기습능력에 있어서나 제2공격력에 있어서나 엄청난 열세에 있어 목표와 현실과의 관계는『길은 아직 먼데 날은 저물어 간다』는 격이다.

미국은 안전의 요체는 대비에 있다는 생각 밑에 전쟁을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여유있는 핵전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풍부한 핵무기를 가지는 상황하에 있어서 핵의 교착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쌍방이 각각 상대방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보복력을 가질 것이 필요하니 소련이 이러한 보복력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여유있는 태도이다.

① Hawker P. 1127



② XV—5A



수직이착륙기(垂直離着陸機)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

주 영 일(周 永 一)

VTOL 이란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의 약어이며 문자 그대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로서, 현재 각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헬리콥터도 VTOL기의 일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헬리콥터와 같이 회전익(回轉翼)(Rotor)을 가진 기체에는 회전익실속(Rotor Stall)이라는 귀찮은 현상이 따르기 때문에, 수평비행속도는 비교적 낮은 값(200mph)을 넘을 수 없어서 현재의 VTOL기(機)가 목적으로 하는 속도범위가 넓은 항공기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Convair XFY-1, Loc Kheed XFV-1의 두 Tail-sitter 형 수직상승전투기의 시작이래, 더욱 속도범위가 넓은 VTOL기의 실용화를 부르짖게 되어 각국에서 속속 진정한 의미의 VTOL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 나와 있는 각종각색의 VTOL기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VTOL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현재 항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행기에서와 같이 고정익면에 생기는 공기력으로 조종하고 있는 기체에서는 속도가

	추력축향을 수직에서 수평까지 변향함.	플랩이나 편류판으로 후류(後流)를 편류함.	수직수평의 별추력(別推力)을 사용함.
팬 또는 프로펠러의 추력(推力)을 이용함.	Vertol V-76 Hileer X-18 Vought/Hilllr /Ryan C-142	Fairchild M-227	Wertland Rotodyne (수직은 Rotor에 의함)
제트의 추력을 이용함.	Bell VTOL 실험기 Hawker P. 1127	Bell X-14	Short SC. 1

0에 가까워지면 공기력은 격감하여 기체를 겨우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힘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수직비행때나 아주 속도가 낮은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VTOL기는 고속비행 중의 조종장치로서의 보통형식의 타면조정장치(舵面操縱裝置)와 호버링(Hovering, 공중정지)시 및 저속시의 특수조종장치(대개는, 동체전단에 분출구를 설치하여 제트분류 또는 압축공기의 분출의 반동력을 이용하여 기체자세를 조정함)의 두 가지를 모두 장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 양조종계통은 모두 조종사가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써, 비행변화에 따라서 양계통을 적당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직비행에서 수평비행으로 바꾸는 것을 트랜지션(Transition)이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전환하느냐가 현재 VTOL기의 개발상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VTOL기에서는 엔진 정지시의 안전착륙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헬리콥터 이외의 VTOL기에서는 기체의 중량을 지지하는 것은 프로펠러 또는 제트의 추력이므로 엔진이 정지하는 경우에는 곧 추락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VTOL기의 동력형식으로서는 가능한 한 엔진의 수를 많이 하고 1기의 엔진이 정지하여도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률이 높은 동력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C-142는 주익(主翼)에 4기의 T 64-GE-6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4개의 글라스 화이버제 프로펠러를 구동하며, 프로펠러축이 서로 교차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나머지 3기의 엔진으로 이 고장난 엔진의 프로펠러를 움직여서 기체는 안정을 잃지 않게 된다.

셋째, 엔진의 문제다. 여기서는 수직수평 별개의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트추력을 변향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수직상승용동력장치는 하향공기 속도로 구분할 수 있다, 헬리콥터는 하향 공기속도가 100ft/sec이하로서 호버링 효율이 좋지만 전진속도는 낮 다. 제트엔진을 사용한 기체는 배기속도가 2000ft/sec에도 달하여 호버링에는 극히 효율이 나쁜 반면, 전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를 얻을 수 있다. 상승용과 전진용 배기속도를 따로하여 상승시에는 저속배기, 전진에는 고속배기가 얻어지는 동력장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은 상승과 전진에 따로 따로 전용엔진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수직상승시의 조건은 시간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의 엔진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성능은 필요치 않고, 이 종류의 엔진은 단지 단위추력당의 중량, 체적, 및 가격이 작은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엔진은 저고도에서 비교적 단시간 운전될 뿐으로 고공에서의 성능이나 긴 TBO(Time Between Overhaul) 등은 필요치 않고 또 보통의 엔진에 비하면 요구되는 운전성능은 너무 좁은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프트(Lift,「양력(揚力)」전문의 엔진은 단순화되어 소형으로 될 뿐만 아니라 연료계통, 오일계통도 간단하게 될 수 있다.

리프트전문의 엔진은 또 터보 펜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양의 공기를 보다 낮은 속도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배기속도가 낮으면 또 이승(離昇)시에 지면을 덜 상하게 되고, 소음도 적어서, 도시중심부에서의 이착륙에 큰 장점을 발휘한다.

리프트 엔진의 예로서, Short SC.1에 장착된 Rolls-Royce RB 108 2연식 제트 엔진은 추력2130 lb, 추력/중량비가 8.2대 1이다. 또 Bristol-Siddley사에서 개발 중인 아후트팬 리프트 엔진은 바이패쓰비가 8대1, 배기속도 660ft/sec, 추력/중량비는 14대 1이나 된다. 이것은 현재의 J79의 4, 86대 1이나 J75의 4, 45대 1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것이다.

Short SC. 1은 동체의 중앙부에 4기의 리프트 엔진을, 미부(尾部)에는 추진용의 엔진 1기를 장비하고 있는데(5기 모두 RB 108엔진이다.) 리프트 엔진은 조종장치에 연동되어 전후 각 30도씩 경사되므로 트랜지션이 아주 쉬울 뿐더러 수평비행 중에 급속히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또 저속비행 중의 타(舵)의 감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양익단, 기수, 및 미부의 4개소에 압축공기분출노즐을 장착하고 있다.

Hawker P.1127에 장착된 BS.53형(추력 1,500 및 1b이보다도 큰 BS 100형 리프트/쓰라스트 엔진은 바이패쓰비가 큰 터보 펜 엔진으로서, 4개의 회전하는 노즐을 가지며, 이들 노즐은 추진용으로서는 수평으로 후방을 향하고, 양력발생용으로서는 수직으로 하방을 향하고, 혹은 브레이크용으로 약간 전방을 향할 수도 있다. 노즐 4개를 비치한 배열에 따라서, 합성추력은 늘 항공기의 중심 가까운 곳을 통한다. 따라서 엔진의 추력이나 그 각도가 변해도 항공기의 피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의 조종이라는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 다. 또 추력각도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는 비상히 조종성이 풍부하여 트랜지션을 원활히 행할 수 있다. 또 동체 내에 장착된 경우에는 전방에 면한 공기흡입구를 채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흡입효율이 좋다. 현재 Bristol Siddley 사는 초음속기용으로 연료가 바이패쓰 닥트안에서 연소하는 방식의 BS 53 및 BS 100의 개량형 엔진을 연구하고 있다. 온도가 낮은 닥트안의 공기를 가열함에 따라 마하 2의 속도에서 대략 3배의 추력을 낼 수 있고, 더욱 이때의 연료소비율은 너무 증가하지도 않으며, 아후터버어너에서 보통 경험하는 바와 같은 고온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 추력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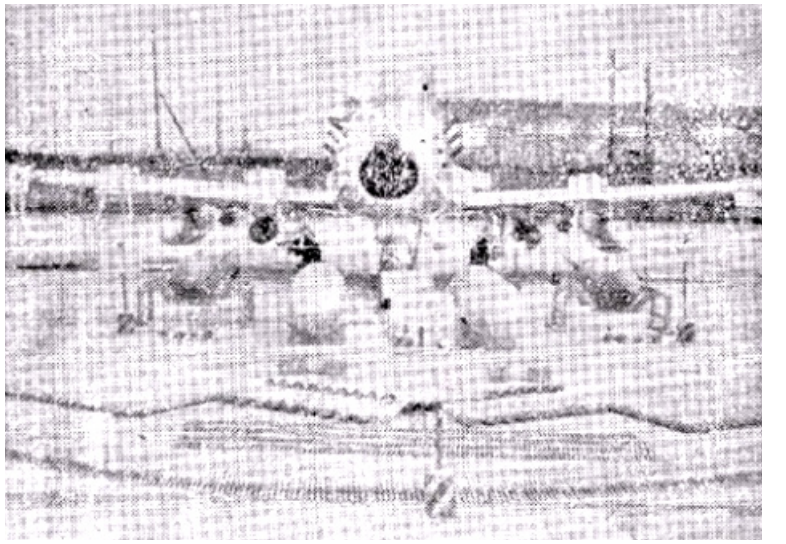
법은 공기실연소(Plenum Chamber burning)이라 부르며, 현재 정도의 크기를 가진 엔진으로서도 필요한 연소를 행할 수 있고, 더구나 회전식의 노즐계통에는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바이패쓰닥트에서 연료를 연소시킨 경우와 수직상승시의 추력증대는 30%다.

배기속도를 고저로 나누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1개의 엔진으로 상승용 저속배기와 전진용고속배기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Ryan XV-5A(구 명칭 VZ-11)에 사용되고 있는데, General Electric에서 개발되고 있는 보통의 터보제트와 리프트팬이라 부르는 장치를 조합한 형식이다. 사(社)에서 이것은 보통의 터보제트에서의 분류를 리프트 팬의 임펠러의 주위에 설치된 터빈에 부딪치게 하여 팬을 돌려, 수직상승시에 양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전진비행의 경우에는 밸브를 닫아 엔진은 보통의 터보제트와 같이 개스를 후방으로 분출한다. XV-5A는 2기의 J85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분류가스는 양익내 및 기수에 있는 리프트팬을 돌린다. 이 가스를 유도하는 닥트는 양엔진·양팬을 서로 교차하여 맺는다. 결국 C142와 마찬가지로 각 엔진이 각 팬에 통해 있어서 만일 어떤 엔진이 고장난 경우일지라도, 출력은 떨어지지만, 각 팬은 무사히 돌도록 되어 있다. 수착비행 중의 한 엔진의 정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VTOL기에서는 이 교차계통(Cross-over system)이 설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리프트 팬 형식의 최대의 이점은 양력이 큰 것으로서 동출력의 엔진을 사용한 경우 직접 가스를 분출하는 형식보다 3배의 양력이 얻어진다. 이러한 리프트 팬만을 개발하면, 엔진 본체는 현재 있는 것을 조금 개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NASA 에임스연구소의 풍동실험결과, 당초에 일부에서 염려하였던 트랜지션 때의 불안정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장래가 크게 주목되는 바다. GE사의 J85 엔진을 이용한 형은 추력/중량비가 6.5 대 1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방식에 따라서, 이 비를 15.1까지 올릴 것이라 한다,

이상으로 VTOL의 몇 가지 문제점 간단히 기술하였는데, 현재의 난제에서는 VTOL의 개발계획은 주로 군수로 촉진되고 있다. 기동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육군에는, 이 기동성을 채워주며, 영구지상시설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지상공격기가 불가결하다. 병기류와 행동을 같이 하는 항공기는 가까운 비행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선에 가까운 광장에서 날아올 수 있어야 한다. VTOL의 지상공격기가 개발되면, 이들이 활약하는 전장까지 보급품이나 연료, 승무원, 정비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다발전략수송기가 필요해진다. 이를 위한 수송기는 수직착륙하고 다시 수직이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종류의 수송기의 전형적인 사명으로서는, 먼저 그 기지의 활주로를 써서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륙하고, 전선에 오게 되면 무게가 가벼워져서 수직착륙할 수 있고, 여기서 보급품을 내리고, 수직이륙하여 연료보급을 받지 않고 기지로 돌아가는 예가 생각되고 있다.

VTOL 수송기는 군용만이 아니고 민간용으로서의 응용면도 생각할 수 있다.

(끝)



전투기(戰鬪機)의 무장전자(武裝電子)

김 진 억(金 振 億)

1. 서언(序言)

6·25사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전투기류의 위력에 대한 상식이 많아졌지만 그 운용작동에 이르러서는 생소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조준방법이 고도로 발달되어 레이더 전자식화 한 오늘날 폭발물이나 탄약자체의 위력보다 전달방법에 그 기능이 좌우되는 근대기들은 맹목사격법을 위시하여 대단히 정밀정확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우리의 관심사이나 그 내용이 많이 공표되어 있지 않다.

에컨대 MIG 형 전투기가 F-86형 전투기에 비하여 오히려 우세한 총포를 장비하였으며, 기동능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1대 25라는 압도적인 격추율로 참패당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근대전자과학의 정수인 레이더식 조준기의 힘이었던 것이다.

여기 간단히 전투기 또는 요격기 등 우리 공군기와 관계되는 무장군자 일반에 대하여 군사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고(一考)하기로 한다.

2. 무장(武裝) 및 폭발물(爆發物)의 종류

13세기 중엽 Roger Bacon이 불꽃 또는 폭파효과 등을 얻기 위하여 화약류 물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1525년 프랑스에서 입자상태의 화약이 제조되었다고는 하나 19세기 이전에는 별로 군용탄으로 사용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고 19세기 이후에는 화약류가 여러 전쟁에서 유일한 전구(戰具)로서 다방법으로 활용되어 세계 제1차대전에 등장한 군용항공기에 이미 항공기 상호간의 수동적인 총격전 또는 대지수류탄형 폭발물의 수동투하 등의 실전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음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전투기형의 항공무장으로는 대별해서 네 가지의 발사물로 나눌 수 있으니 기관총포, 폭탄, 로케트, 그리고 유도탄 등이 그것이다,

첫째, 기관총포는 공랭(空冷)반동작동 완전자동식의 Cal 50 구경(口徑)이 우선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F-100, 104, 105 등 Centry Series 전격기에는 20미리 기관포가 대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1분간 1,250발이라는 높은 발사속도를 가진 기관총보다는 비록 1분 700~800밖에 안되나 2차적인 탄착폭발을 하는 기관포가 유리하다는 전술일 게다. 물론 사용되는 탄환에는 AP(철갑탄), API(철갑소이탄), Incendiary(소이탄), Tracer(예광탄), 등이 있어 각각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됨은 지상총탄환과 같다. CAL 50 기관총은 현재 F-86D 요격기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F-86F 전폭기에 6문(총, 1,800발)이 비부(鼻部)에 장착되어 대공 대지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폭탄에는 통상 2,000파운드, 1,000파운드 750파운드, 500파운도, 250파운도, 100파운드, 류 등 각 20개의 장착이 가능하며 소형핵폭탄의 제조성공으로 Centry Series의 전투기에는 수십 메가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폭탄은 우선 그 충물(充物), 종정류(種塡類), 또는 양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용을 제외하면 0.002조에 1인치 평방 약 100톤이라는 고압 팽창을 하는 티엔티류의 폭발물을 충전하여 전반적 다목적에 사용하는 고성능폭탄(Explosive), 화학물질로서 가스나 연기 등을 발생케하는 화학탄(chemical) Naphthenic에 야자수열매 가루가 원료로 혼합되었다는 고열발생용 Napalm탄 Pyrotechnic질을 넣어 조명효과를 얻게 하는 조명탄 등으로 분류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고성능폭탄에는 건물, 콘크리트 진지, 활주로 등 관통파괴를 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갑탄(鐵甲彈)(Armorpierce)과 인마살상(人馬殺傷)같은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탄(General Purpose)가 대표적이며 기타 껍질을 얇게 철피(鐵皮)로 씌워 순고성능폭발효과를 얻기 위한 경피탄(Light Lase) 적은 파편을 모아 붙인 듯한 파편탄(Fragmentation) 대 잠수함 목적의 수심탄(Depth)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폭탄은 또한 신관(信管)(Fure) 장착에 따라 충격시에 폭발하도록 할 수도 있고 수심 또는 목표물의 조방에서 의도하는 거리에서 아무 때나 폭발시킬 수도 있음은 그 큰 장점이라 하겠다.

셋째, 로케트에는 근래 종류가 많이 간단해져서 2.75인치 구경과 5인치 구경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래식으로서는 2.75인치 만이 사용되고 있음)

이 로케트는 우선 지극히 단순한 뉴톤의 작용 반작용 원리가 이용된 것으로 철통 속에 연소성 물질 즉 Nithroglycelinnitro collulose의 혼합물 등이 후방의 일방향으로 연소되어 이 분사력으로 전근(前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면에 폭약탄두와 휴즈를 장착, 폭파력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 공군에서 전천후 요격기나 주간전폭기에 다같이 사용되고 있는 2.75인치 로케트를 보면 중량 18.5파운드로서 연소분사속도가 무려 초속 2,600피트로서 발사거리평균 3.5~4.5마일이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F-85D 전천후기에는 24발이 적기 1,500피트 전방에서 자동발사되도록 사용하고 있으며F-86F 전폭기에는 대지, 대공, 양용으로 각각 56발씩 장착하여 고속, 고성능의 폭발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넷째, 항공기 장착용 유도탄에는 G.A.R(Guided Air Craft Rocket)W G.A.M.(Guided Aircraft Missil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가 적기 또는 표적에서 얻어지는 열, 광, 음, 파동 등의 필연적인 유도원을 찾아 자동적으로 추적해서 일발필중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대공 유도탄의 기초적인 원리는 물론 지대지 유도탄과 다를 바 없겠으나 항공기의 설계목적에 따라 제트기에서 분사되는 열(또는 적외선), 음파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도탄은 어떠한 것이고 통상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액체이건 고체이건 간에 운반력을 가진 추진부가 그 하나요 앞에서 말한 유도원을 찾아 가도록 전자적인 힘을 만들어 주는 유도부가 그 둘째요, 핵탄두 혹은 티엔티 등을 이용한 탄두부가 셋째요 유도부에서 얻어진 전자적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움직여 탄도 또는 추적로를 조종해 주는 익부가 그 넷째다. 발사요령은 대부분이 레루식 발사대를 날개 밑 또는 동체 밑에 고정하여 항공기전원으로부터 추진부를 점화 발사케 한다.

군사비밀상 각종 유도탄의 개개의 원리 및 성능일체를 여기서 밝힐 수 없음이 유감스럽지만 최근의 전투기 무장으로는 다발희중(多發稀中)의 총포나 로케트보다 상기 유도탄류로 일필 중의 전술로 변천되어 GAM GAR가 전투기 무장으로는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특기할 사실이다. 또한 근래에 각군에서는 전투기형의 항공기에도 공대공 뿐만 아니라 공대지 또는 공대 수중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흥미있는 전술경향이라고 하겠다.

3. 조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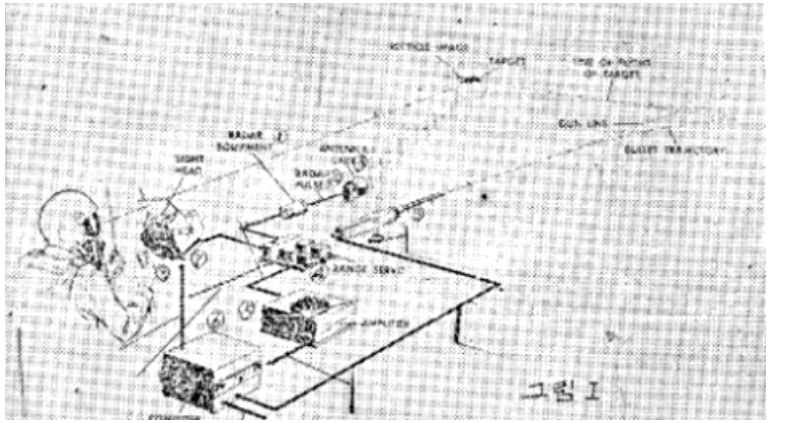
전술한 바도 있지만 근대공중전은 무엇보다 이 조준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즉 음속 이상의 고속의 항공기로부터 음속 이상의 적기를 격추하는 데는 상대적 방위각이 순간 초소에 변하여 명중하기에는 인간의 눈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짐작이 갈 것이다. 거기에는 적기의 속도, 아기(我機)의 속도, 발사무기의 속도, 탄환의 중력공기밀도, 관성, 상대거리, 등 절대적인 계산을 요구하게 된다.

2차 대전 중만 하더라도 극히 원시적인 조준방법이 이용되었으나 대전 이후 더욱이 6·25사변을 계기로 그 중요성과 발달된 레이더를 이용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노출되어 오늘날 특히 미국의 이 레이더를 이용한 조준방법은 극도로 발전되있어 우리의 전투기 무장에 관한 관건과 그 흥미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레이더식 조준기에는 보통 Visual Attacking 형과 Blind Attacking 형이 있다. F-86형 같은 F-100 이하의 주간 전폭기 종류에 장착되어 있는 MA-3 화력제어계통과 같은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여기서 이용한 APG-30 레이더나 A-4 Gun Bomb Rocket Sight 같은 것은 대단히 그 성능이 우수하여 Gun Sight의 전면 발사 유리에 제공되는(조준용 불빛 표식)은 동 레이더에서 발사한 Signal의 적기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Signal로서 자동적으로 적기에 도착할 미래의 탄환위치를 예산해 주어 Signal 계통에서 계산해내는 모든 자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래의 탄착점을 예정해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좀 더 상기하면(그림 1참조) AN/APG-30 레이더 송신기 작동주파수 9,300±300 MC. 최고 5KW 출력으로서 매초 800 Pulse 즉 0.3-0.55 Microsec의 간격으로 발신하면 이 신호는 적기거리에 정비례하는 DC Voltage로 수신기에 나타나 수차의 증폭단계와 Servo System을 거쳐 기구적 작동을 가진 기계적 에너지화하여 A-4 Sight와 조화해서 공중사격시에 장애로서 나타나는 방위각(Prodiction Angle)이 해소된다. 이 방위각이라 함은 아기의 탄환이 적기에 도착할 때는 이미 적기는 고속으로 전진되었을 것이므로 아를 사전에 수정 미래의 위치를 미리 찾아낸 평각이나 탄환의 중력으로 인한 자연강하율 총구의 발사방향과 항공기의 이동방향에 영향받은 합성의 힘, 기타 공기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컨데 이 조준기는 3,000야드 이내의 모든 적기를 자동으로 수색하여(그 전까지는 GCI 유도)자동으로 표적을 선정, 미래의 탄착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수동으로 탄환을 발사케 된다.

여기 그림 1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이 ①부터 ⑨번까지의 작동원리가 다소 명확해질 것으로 믿는다.

다음 전천후 요격기인 경우 조종사는 완전히 가시능력이 없으므로 적기를 수색하는 범위도 대단히 넓고 포착 추격 발사에 이르기까지 완전 레이더 자동식이다. 역시 전형적인 F-86D의 E-4 화력제어계통을 보면 Hughes 회사 제작으로 F-89 F-94 등 전천후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무려 159KW라는 고출력을 가진 레이더 송신기는 Tunable Magenetron을 갖고 50,000야드까지 그 작동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가변 안테나는 좌우 각 45도와 상하 +33½°—13½°를 수색하여 적기는 항상 피할 수 없는 자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잡혀진 적기에 이르는 추격경로는 「B」Scan Scope상에 Flight Data Computer가 자동적으로 Lead Collision Cours(충돌할 수 있는 의미의 항로를 말함)로 유도해 주는대로 조종만 하면 동체하부에 부착된 24발의



2.75 로케트는 1,500피트 전방에서 자동발사되어 정확하게 적기를 격추하게 된다.

이상 그림 II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면 성질상 보다 상세한 이론을 논할 수 없으며 조종석 내에 위치한 레이더 스코프에 대하여 개략적인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수신기에서 얻어지는 적기의 동태는 우선 스코프 「B」Scan Scope 상에 백반점으로서 나타난다. 이 스코프는 직경 약 5인치의 T.V. 스코프와 비슷한 원형으로 아래 원변에 방위각이 좌우 30°60°의 표지(標識)가 있어 어느 방향에 적기가 위치하여 있나를 알 수 있고 좌측 원변에 0.510, 25, 30마일로써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스코프 중앙상부에 2, 10, 20초의 적기와 마주치기까지의 시간이 표시된 원(외원)이 있어 조근(措近)거리와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추격항로를 지시해 주기 위한 Steering dot와 내원은 비행경로를 산정기에서 얻어지는 자료로서 적절한 사격방위각으로 맹목비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가령 현재의 대적상황이 좌우 수직선상에 백반점으로 적기가 나타나 있고 위치는 우측 30°방향에 전방 12마일 이라면 조종사는 steeringdot를 중앙원속에 포착하고 비행하면 중앙 상부의 사격 22초 전이라는 것과 180 노트의 상대접근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아기의 비행자세는 15° 좌선하 항중이다. 한국동란 이후에 NATO 산하 여러나라 또는 미공군에서의 전술개념은 대체적으로 다목적단좌기로 흘러 좁은 지역에서의 각양각색으로 일어나는 전투에 응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장 및 화력제어계통은 실로 극에 다다른 듯 복잡하다. 불(佛) 공군의 MirageIIIC, FIAT기, 서독공군의 주요장비가 될 Lodched F-104G 몇몇 MAP 국가에서 사용될 예정인 North rop의 F-5F(N-156) 또는 미공군의 F-105, F-110 등은 모두가 공대공 전투는 물론 전천후요격과 아울러 대단한 공대지

무장능력으로 문자 그대로 1인의 조종으로 다목적 전투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전투기들은 항공기 자체의 가격과 동등할 정도의 고가인 화력제어계통이 장착되어 있어 고도로 정밀정확한 다목적 전자 레이더가 장점인 반면 유지비나 정비기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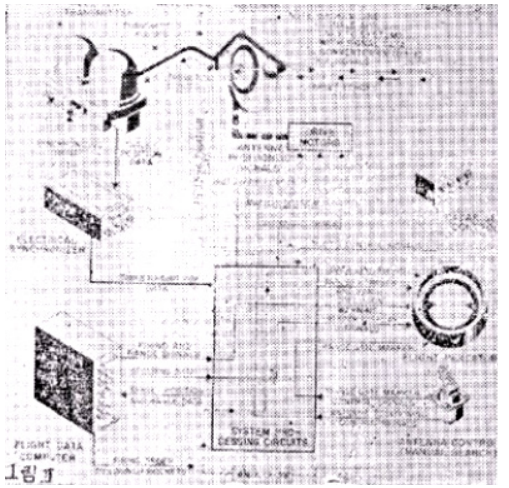
이렇듯 복잡한 조준사격방법과 더불어 발전되는 공대공 유도탄 등은 그 성능이 양호하게 작동할 시 절대적인 전투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정비유지면에 있어 많은 군사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비시설을 요함으로 후방면에서 볼 때 근대 공군의 제일 큰 문제점이며 또한 공군전력의 기준이 감히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Century 계열 항공기 중에서도 F-100형이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다면 F-102(MIG-10형 화력제어 Radar 장치)가 불과 20% 미만의 가동률밖에 못 낸다고 생각할 때 그 전력은 이 정비효율에 어느 만큼의 의존도를 갖게 하는 가가 짐작될 것이다.

더욱이 핵탄두를 장비한 유도전 등의 등장도 이 복잡성을 배가하고 있으며 우리 무장정비 진용에 그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인항공기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르메이 장군 이론가 존속하는 한 이 분야의 군사적 복잡성은 더욱 더해 갈 것이며, 한편 나는 감히 우리의 전력이 조종사에게 일임되던 과거가 완전히 이 계통무장정비사의 능력에 좌우되는 미래가 아니 현실이 왔음을 장담하는 바이다.

- 끝 -



<세계경이순례>

폼 페 이

—죽음에서 소생(蘇生)한 도시(都市)—

리챠드 하리바톤

폼페이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나폴리까지 남하하여 거기서 다시 해안을 따라 4-5킬로쯤 가면 스카트를 펼친 것 같은 베스비오 산 밑에 이른다. 바로 눈앞에 화산이 우미(優美)한 모습으로 솟아 있고 산정에서는 유황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아름다운 만(灣) 위로 퍼지고 있다. 죽음의 도시에 다달아 돌로 포장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부석(敷石)은 서기 79년에 있었던 그대로이고 그 옛날 파멸의 날에 곡식을 운반하던 우마차라든가 전차의 바위 자죽이 완연하다.

그리고 길 양쪽에는 석조로 된 상점이 늘어서 있는데 2층은 목조였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아래층만은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그 당시 마부들이 해장술을 한 잔 하던 주막도 있는데 거기에는 다란 술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으며 집주인이 서 있던 카운터도 있다. 그리고 그 옆집은 과일이나 야채를 팔던 성이었던 모양으로 그곳을 파헤쳤을 때 새까맣게 끄슬린 콩, 포도, 배 따위가 발견되었다.(이러한 유물들은 모두 나폴리 박물관에 보내졌다) 또 한편 쪽 실렁에서는 밤 그릇이 발견되고 뒷뜰에서는 돼지, 염소 같은 가축들의 해골이 나타 났다. 화산이 폭발한 날 땅이 흔들리고 대량의 재가 쏟아져 내렸을 때 이들 가축들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듯하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가축들을 처리할 겨를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기에도 바빴을 것이다. 길 건너 빵집에는 빵이 솥 속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목수집에서는 쇠망치라든가 못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조각가의 집에서는 조각 중이던 작품이 발굴되고 길모퉁이 레스토랑에서는 접시, 항아리, 따위가 발굴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나폴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찾아간 곳은 황폐한 이시스사원으로 이 안에서는 폼페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비극을 상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미처 피난하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인 것이다.

그 당시 재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을 때 이시스사원의 승려들은 절의 재보(財寶)와 금화, 은기(銀器)류를 모아서 구석방으로 피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독한 가스가 그 방에까지 밀려들어 승려들은 질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 사람의 승려가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금화(金貨)한 푸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는 사원 입구까지 와서 재로 뒤덮인 어둠 속을 빠져나가 대리석 층계를 올라가려고 할 때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 사원 기둥을 뒤흔들어 그중 한 개가 그 사람 몸 위로 자빠졌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은 그의 시체는 1,800년 후에 발굴되었는데 그는 돈 푸대를 손에 쥔 채로 죽었던 것이다. 또한 구석방을 파헤쳤을 때 다른 승려들의 해골이 죽을 때 몸부림치던 그대로의 위치로 발견되었다.

필자는 전장에서 저 공포의 날 아침 학교에 가던 어린이가 담벼락에 낙서한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 낙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똑히 읽을 수가 있다. 폼페이 사람들은 이러한 점잖치 못한 낙서 때문에 벌을 받은 것 같이도 생각된다. 이 어린이들의 낙서는 흰 돌 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글 뜻을 보면「복동이는 금순이를 좋아한다」는 따위로 어떤 것은「나를 만찬에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등 우리들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있다.

공회당(公會堂) 둘레의 벽은 여러 가지를 쓰는 흑판으로도 쓰이고 또한 예고판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인데 투검사(鬪劍士)의 시합이라든가 연극 광고가 발표되고 재액일에 부친 한 장의 포스터에는「명일(明日) 30조의 검사가 투기장에서 시합을 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정치 포스터에는 폼페이 시민에게「시장에는 바레리우스에게 투표하자! 그는 훌륭한 인격자로 여러분의 좋은 심부름꾼이 될 것이다」등의 글이 쓰여있다. 또 다른 게시판에는「개를 찾아주신 분에게는 후사함. 털빛은 차색, 연락은 렉크스에게」라고 쓰여있는 것도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폼페이 시민들은 개를 대단히 좋아했다. 어떤 집 대문에는 개 그 림이 그려있고 그 옆에「맹견주의」라고 써 있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것의 하나는 똑바로 눕혀진 채 마지막 죽어갈 때의 모습이 역력한 개를 볼 때이다. 이 개에 관한 사연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 개는 거리에서 쓰러질 주인을 그대로 버려둔 채 갈 수 없어서 저도 같이 희생을 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 집 안에서 미친듯이 새끼를 찾고 있는 사이에 유독가스로 쓰러진 것일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들은 개가 굉장히 충실한 동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죽어간 것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다.

폼페이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몇 채의 호화로운 집과 많은 간이주택이 있다. 그중에서 부호의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밝은 적색으로 칠해진 벽에는 고대 미술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운 몇 점의 그림—그리스 신화에서 딴 것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나폴리만이나 폭발되기 전 베스비오 산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안마당에는 아름다운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된 동상이 서 있는데 몇 세기 동안이나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옛날 그대로의 빛깔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찾아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비극적인 집의 하나로는 다이오메데스의 별장이 있다. 이 사람은 부와 지위를 겸비한 귀족으로서 폼페이에서는 식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스비오산이 폭발하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신하지 않고 가족과 하인배 16명을 데리고 지하실로 피난하였는데 다이오메데스의 딸은 개와 염소를 데리고 가족들은 식량과 음료수를 날랐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가서 다이오메데스는 치명적인 오산을 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가스가 지하실로 스며들어와서 가족들이 질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다이오메데스는 마지막 용기를 내서 집안 열쇠를 간수하고 있는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층계를 가까스로 기어 올라와 재로 뒤덮인 안마당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문 있는 데까지 가서 문을 열고 빈공지경(頻孔之境)에 빠진 가족들을 구하려고 되돌아섰을 순간, 화염과 유황연기가 밀어닥쳐 지하실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

후일 발굴기로 그의 집을 파헤치다가 다이오메데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돈이 들은 지갑이 쥐어졌으며 집 열쇠는 하인 시체 옆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열네 개의 해골이 나왔는데 머리에는 모두 무엇을 뒤집어 쓴 흔적이 있어 이것은 아마도 가스를 막으려고 하였던 것 같다. 이오메데스의 딸 시체 옆에는 개와 염소의 시체가 놓여 있었고 식량과 음료수에는 아무도 손 하나 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전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지하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우리는 세계여행에서 아득한 옛날의 경이를 현실에 보여주고 있는 고대도시의 폐허를 몇 군데 보아왔다. 앞으로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만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폼페이 시민들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폼페이는 재앙으로 삽시간에 매몰된 채 있다가 다시금 발굴된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현대인들과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폼페이가 1,800년간이나 잿더미 속에 잠자고 있었던 동안에 베스비오산은 활화산으로 활동을 계속하여 굉음과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크게 폭발해서는 산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멸시켰다. 즉 18,000명의 희생자를 냈는데 이것은 서기 79년 때의 몇 배나 되는 숫자인 것이다. 앞으로 그 어느 때 이 산이 다시 폭발하여 폼페이시를 매몰시킨거와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나폴리를 쓸어 덮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이 베스비오산을 찾지 않고서 정녕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와 작별할 수는 없다.

치차(齒車)가 달린 열차가 1,200미터의 급사면을 정상까지 우리들을 운반해 준다. 아래쪽 사면에는 포도나무가 꽉 차 있으며,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그 옛날 폼페이의 소년들이 양 떼를 몰고 다니던 꼭대기 사면은 화산재로 해서 불모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산봉에 올라서서 들끓는 소리를 내면서 증기를 내뿜고 있는 화구를 들여다보면 화산암이 분출하였다가 다시 꺼져 들어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화구 근처 식어버린 용암 위에서 본다. 그런데 이 용암은 아직도 뜨거워 신바닥이 뜨겁게 달아옴을 느끼게 된다. 연기가 나오는 균열에 단장을 찔러보면 이내 불길이 올라오며 타 버린다. 커다란 구멍 안에서 이글거리는 용암은 전에 말한바 있는 포포카테페틀보다도 훨씬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 그곳에서 보다 더 가까이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후를 내려다보면 아래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8키로 남짓한 곳에 폼페이가 보인다. 지금 우리들 옆에 있는 이 분화구에서 불길과 재가 분출하여 산밑의 저 평화로운 도시를 괴멸시켰던 것이다. 저 멀리 해안을 따라 대(大)푸리니우스가 죽은 지점이 보이며 나폴리항 건너 쪽에는 미제남시(市)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녁 늦게 나폴리로 돌아온다. 호텔창을 통해서 베스비오산을 바라다보면 산정에서 빨간 불길이 뿜어올라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광경은 소름을 끼치게 한다. 그러나 나폴리 사람들은 자기네들 머리 위에 드리우고 있는 화염의 위협에는 아주 둔감해져서 무관심한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만약 오늘 밤 베스비오산이 또다시 폭발하여 폼페이 시민들과 같이 재 속에 파묻친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1,800년 후에 발굴기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녔던 카메라나 칫솔, 시계, 양복 등이 발굴되고 또한 재난의 날 오후 베스비오산을 올라간 것을 기록한 일기를 그때 사람들이 흥미있게 뒤적거리게 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따위의 방정맞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무부차관 알렉키스스 존슨씨는「일본과 자유세계」라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946년에서 1956년, 10년간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0억 불의 원조를 받았다(이 중 6억 불은 변제). 일본이 금일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의 자각된 노력에 있는 것이지만 미국의 원조를 무시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일본은 오늘날 자유세계를 위하는 사업에 공헌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과거는 고사하더라도 오늘의 자유세계와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을 잊고 있지는 않다고 믿는다. 일본이 한국과 협조한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으로 한국에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일본의 안전이 한국의 협력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오 위험한 생각이다.」

전쟁영화(戰爭映畫)와 예술(藝術)의 마음

- 아울러 그 촬영 방법도 -

김 규 동(金 奎 東)
〈평론가〉

「전쟁영화는 어떻게 찍나?」이런 제목으로 재미있게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 벌써 1주일이 넘었다.

나는 이 청탁서를 받고 그실은 몹시 고민했던 것을 여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필자의 이러한 고백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혹시 우습게 받아넘길지는 몰라도 그러나 난 나대로의 견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청탁받은 원고를 출제자(편집자)의 주제에 따라 기술하자면 편의상 불가피하게 나의 견해란 어떤 것이길래 이러한 제하(題下)의 글에 고민을 느끼게 되었나? 하는 사연을 기록해 가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는 첩경이므로 우선 이것부터 말해 둬야겠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영화예술이면 예술이었지 또 거기에 따로 붙는 다른 사두(蛇頭)같은 것에 노상 질색인 것이니 아마도 그것은 대중소설 가요하는 따위의 것들이 이 부류에 속하리라.

가령 소설에 일례를 들어 본다면 원래 근대산문으로서의 리얼리즘의 문학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는 대상에 대한 명백한 인식의 세계로서의 산문정신이 확립되기 이전엔 이야기로서의 로망(ROMAN)이 있었고 이야기가 단순한 정리가 아닌 그 이상의 인식에로의 승화로 비약한 곳에 근대의 산문정신의 기초출발점이 마련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배 없는 것이다.

끄레뉴가 일찍이 증언한 바와도 같이 근대산문 정신의 기초가 없는 것은 노블(NOVEL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망의 범주에 속하고 만다.

따라서 이른바 대중소설과 같이 상식과 상정의 평면 위에 전개되는 본능과 인습과 일상의 안목 속에 그려지는 세계 다시 말하면 신문에 연재되는 따위는 소설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 하는 반발이 있을 것을 필자도 알고 있다. 이 반발인즉 그것이 소설이라고 생각해 온 다대수의 독자들로부터 날아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터이나,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작품의 작가인 당필자는 이런 경우에 아마 거의 항변이 없을 것을 단정할 것은 필자의 지나신 지레짐작만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그것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를 잡아당겨 신문부수나 늘이자는 목적으로 저널리즘의 독단으로 도피처를 미리 준비한 명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면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논가인 원덤 르이스씨이다.

그는 말하기를 산문정신도 없는 소위 로맹계의 음영작가들이 작품에 들이대기를 "그게 다 소설이냐?"고 하면 그들은

"아니 물론 소설은 아냐!"

"그럼 뭐야?"

"신문소설이야!"

한 발자욱 뒤로 물러섰다가 두 발자욱 앞으로 나오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얼버무려 간다고 말한 일이 있다.

이것은 꼭「흰말은 말이 아니다.」하는 단정론자에게 「그러면 건 뭔가?」물으면「흰말은 흰 말이다.」식의 형식논리학의 빠질 구멍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형식논리학은 저널리즘과 그것에 영합하는 작가와 또 그러한 결합으로 벌어지는 남모르는 계몽(?)속에서 자라난 독자의 상식이 야합하여 거리낌없이 그것도 소설로서 상식화된 것이 20세기에 존재하는 희극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면을 W·H 오든 같은 시인은 시간은 자꾸만 사람의 마음에 지혜의 씨를 뿌려가는 반면에 사람의 머리를 퇴화시키는 무지와 혼란의 씨를 뿌리기도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까닭없는 표현이 아니다.

어쨌든 탐정소설이니 신문소설이니 하는 따위가 그실은 소설이 아니라는 건 그것이 상식에 더 얽매어 빛의 세계나 전진하는 의식의 축성에 나가지 못하도록 본능의 스릴이나 강렬한 호기심의 유발을 기초로 주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본능과 호기심이나 그것들이 빚어놓는 스릴 그것이 제아무리 사람의 말초신경을 흥분시키더라도 현실이나 인간이 직면한 오늘의 제문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아편과 같은 성질을 가졌을지언정 그것은 결코 예술로서의 소설은 못되는 것은 물론이다.

원래 예술로서의 소설이란 인간의 발전을 위한 인간 본래의 빛을 위한 정신이라면 왜? 그것들이 소설이 못되고 또 그것으로 제작하는 작가(?)들이 스스로 겸양해서(?) 소설이라 부르지 않고 신문소설이나 대중소설이라고 따로 명명하는 비밀을 우리는 대개의 경우 묵과하고말 뿐만 아니라 그만 그러한 속임수에 동화되어 소설이란 그런 것인 줄 알고 만다.

우리는 이같은 상식의 오염 속에 살고 있다.

서두가 지나치게 길어진 감이 있지만 이상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일이다. 이와 거의 마찬가지로 영화에도 탐정영화니 전쟁영화니 하는 타이틀 상의 장르나 오늘날 상식화되어 이미 하나의 관념상의 살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고 또 제작자 스스로조차 별 타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무기에 의한 승리도 좋지만, 그러나 무기에 의한 승리가 결코 무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시사담당 고문역할을 한 월터 딮맨의 견해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일정한 집단이 지닌 물질의 총화와 문화의 총화가 합쳐진 힘의 총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에 의한 승리를 위한 형식 또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결코 인간을 위한 선의 전진을 위해서 그 상대적인 정당성이 허용된 성질의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허구많은 파괴전술을 단행하는 전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살육을 가장 증오하는 문화가 전쟁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전쟁이 최후의 한계선에서 허용되는 마지막 합리성이란 인간을 억누르고 인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악을 저지르는 불가피한 수단인 까닭에 여기에 문화를 참여시키려면 그것이 더 위대한 선의 창조의 전제가 없이는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쟁영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의 선행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자칫하면 그러한 작품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다시말하면 탄환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속을 마치 탄환이 없는 경기장을 달리듯 표현하는 어리석은 연출가들이 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해도 탄환 속을 탄환이 나르지 않는 경기장을 달리듯 똑같은 기분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연출가의 주제상의 관념이란 뭘까? 그러한 영화장면을 보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하는 공리적이며 비인간적인 주제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힘없는 어린이에게 역도산(力道山)과 같은 대 씨름꾼에게 용감하다고 덤벼 들도록 충동질하는 어리석은 연출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케이스 2차대전 당시의 일본군국주의의 이른바 전쟁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수법이다. 그들은 관중이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그 좋은 일례라 하겠다.

결국 전쟁영화가 예술로서 존립하는 조건이란 어떻게 하면 살육을 다반사로 하는 전장에 있으면서도 주위의 거친 이웃의 마음들을 착하게 이끌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동료의 생명의 현실을 해석하는 사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제가 인간의 마음을 석권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날 가장 전형적인 전쟁영화의 제작국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아메리카이다.

가령 여기서 「유황도의 모래」라는 작품을 감독한 죠지 마샬 감독과 전쟁에서 돌아와 자연인이 된 인간의 허무를 그린 같은 미국의 작가인 윌리암 와일러는 똑같이 전쟁영화의 범주에서 메가폰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망각하는—말하자면 존 웨인 분장의 상사와 같이 철두철미한 군의 규율 이외엔 아무것도 아랑곳없다는 식의 인물에 스포트라이트를 줌으로써 관중이 무아의 망각 속에서 그 용감성에 끌리도록 함으로서 전쟁에 대한 이념적인 면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와일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운명으로서의 전쟁을 반성하는 각도에서 전쟁을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집단을 위해 싸운 한 비행장교의

복원 뒤의 허무를 통해서 전쟁이 약속한 환멸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은 주로 전쟁영화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어야 하나? 또 우리와 덮어놓고 군대놀이 식으로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는 문화적인 연대에서 그 윤곽만을 흘깃 살펴 본 것이다. 대충 이와 같은 예비의식이 없이는 그냥 흥미를 위한 흥미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겉봉투 식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함정이 될 뿐이기에 노파심으로 개술해 본 것이다.

◇ ◇

이 같은 전쟁영화에 있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들을 어떻게 실전을 방불하게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남아 있는 흥미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전쟁의 사실을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은 말뿐이지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 그대로 재현하지 않아도 관중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령 그대로 비슷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에게 큰 불만을 주지는 않는 것이 당해사항을 그린 전쟁에 대개의 관중이란 직접참전한 일이 없으니까 속임수가 통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영화의 실전 씬이란 관중이 실전이라고 상상하는 장면에 알맞게끔 미스가 없이 셋트로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셋트 촬영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야외촬영용의 셋트가 있고 실내촬영용의 셋트가 있다. 감독의 지휘 아래에 셋트 데코레이터가 손발같이 목수나 공사 인부를 써가면서 먼저 씬 구성을 완성하고 스크린 프로세스에 의해서 탄환의 발사라던가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같은 것은 미리 따로 고속도촬영으로 찍어둔다.

스크린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따로 말해두기로 하고 그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임무를 띄고 나타나는 것이 효과인데 이것도 어느 군대의 연습장에 가서 미리 포탄소리나 기타 모든 필요한 총성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를 준비해 가지고 동시녹음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꾀한다.

고증도 셋트구성에 있어서 진실감을 빚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쿡(식당으로 말하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맨에 훽터 라이트 맨들은 마치 군대에 있어서 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와도 같이 감독을 받들고 감독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효과를 쓰고 라이트의 강약을 조종하고 앵글을 돌려 혼연일체의 작업을 한다.

비행기의 추락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스크린 프로세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뭔고 하면 가령 헌 비행기 같은 것을 높은 받침을 만들어 올려놓고 (한 20미터의 고도래도 된다.) 휘발유 탱크를 겨냥해서 쏘면 그것이 불을 뿜으면서 굴러서 떨어지게 되는데 우선 이것을 먼저 카메라에 찍어 넣는다. 그다음엔 실제로 나르는 비 행기에 카메라를 싣고 비행기로 하여금 추락하는 것처럼 내리다지로 조종하면서 바깥 하늘을 찍어 내려간다. 그러면 자연이 굴러떨어지는 기체 밖의 광대한 하늘의 필름에 수록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을 전기한 불을 뿜고 떨어지는 비행기에다 수백 콤마의 길이로 현상해서

돌리면 마치 20미터의 상공에서 떨어지는 비행기가 아니라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보는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다.
물론 현상할 때 거꾸로 바로의(비행체) 반복을 사용함으로써 굴러떨어지는 도수를 나타내어 실감을 자아내게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스크린 프로세스라는 속임수 법은 2대 이상의 카메라와 착의의 구성과 현상 상의 화학적 기술을 토대로 얼마든지 응용하는 기술인데 문제는 이같은 기술상의 문제란 30분이면 대개 그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윌리암 와일러도 언명한 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역시 영화도 예술인 한 주제나 무엇을 그려야 하나? 하는 모탑 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하나 흥미 있는 것은 이 야외촬영때에 흔히 남녀배우들의 연문이 피기 때문에 일명 야외촬영을 연문의 숲이라고도 하는 말까지 생긴 것은 흥미라면 흥미라 할 것이다.

◇닭소리 역(役)

명배우 데빗드 가리크(1717-1779)는 길을 가다가 전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인양 불리었다.

"가만있자, 자네는 누구더라?"

"나는 하므렛트에서 닭소리를 내는 역을 맡고 있지요."

◇사자(死者)에의 예의(禮儀)

사스무어라는 영국의 명배우는 매우 뚱뚱했다.

이 배우가 어느 비극 장면에서 죽는 역을 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운반할 때 너무 무거워서 관을 들 수가 없었다. 이때 삼층의 관객석에서 누가 소리쳤다.

"여—, 기름으로 튀긴 고기덩이."하고 농을 했다.

그러자 널 속에서 빠져나온 사스무어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법이다!."

◇죽기는 일직다

험악하고 커브가 많은 길에서 쇼는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 이때 좋은 작품의 상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런 생각은 어때?"

하고 쇼는 옆에 있는 운전수에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운전수는 가장 영리한 사람으로서 쇼는 그에게 문학에 대해 상의한다. 지금도 각본을 쓰면서 운전수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착상을 듣고 있던 운전수는 핸들을 자기가 잡았다. 왜 그러느냐고 쇼가 물었을 때 운전수는 말했다.

"이 길은 매우 험악합니다.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선생님이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의 차이점

-독재제도와 경제정책-

〈알렉산더 · 커신 퀑〉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내가 이 논문을 쓰고자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소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서이다. 논문의 목적은 금일의 소련과 스탈린시대의 소련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범위와 정도를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있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간략한 한 논문의 범위 내에서 이 논제를 충분히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나 문제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분야를 적술하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치려 한다. 먼저 어떠한 분야를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거니와 그것을 결정하는데는 제22차 당대회에서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이며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 현상들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오늘날 소련에는 여러 가지 나사가 맞지 않는 현상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드러나는 것이 약간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순이 제22차 당대회에서 기묘한 이론으로 전개된 사실을 그들 자신인들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동대회가 개최된 표면의 목적은 우선 새로운 당 강령 즉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강령을 검토함에 있었다.

이제 한 번 더 최종목표에의 비전을 다짐한 셈이다. 오랜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원을 달성하고 이데올로기 상의 약속을 이행하며

오랜동안 도탄적 생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후의 목적이 드디어 현세대의 생애 중에 달성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들은 말했다. 사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거의 대회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회 당대회의 의의는 이들 문제와는 별도로 엉뚱한 문제로서 그들의 기억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후일 역사의 자료 카드에는 색인(索引) 속의 가령 스탈린, 스틸린 주의, 스탈린 주의자, 스탈린 주의비판, 또는 중공과의 분쟁과 같은 항목에 동대회의 의의가 기록될지도 모를 것이다. 특히 중공과의 분쟁은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또알바니아라고 불리우는 가시 돋친 잎사귀에도 연막을 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탈린주의 비판은 비밀회의의 어둠 속 무대에서 일거에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와 격투를 전개하여 과거와 현재가 미래와 격투를 전개하여 과거와 현재가 이긴 것이다.

당 강령과 당대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겠금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다른 큰 변화가 없겠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동 대회에서 이것을 획책하였다. 그들이 명백히 밝힌 바에 의하면 스탈린은 공산주의 사회에 필요한 선행조건에 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훨씬 빠른 도정(道程)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공산주의 제도의 확립에 앞서서 먼저 무엇보다도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확립케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치 않았다. 그는「사회주의적 제원칙의 진보적인 역할을 다한 뒤에야 공산주의적 제원칙의 완전한 확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스탈린주의 비판자들은 지적했다.

이와 같은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캐어보면 그들의 의도는 향후 20년간에 걸쳐 공업의 성장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며 생산재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따라서 매우 불균형한 소득구성(所得構成)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를 강조함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스탈린은 이같은 필요 사항을 빠뜨리고 있었다. 때문에 한때는 천재적 논문이라고 떠받쳐 올렸던「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에 관한 그의 최후의 논문(1952년)도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불완전한 것이다. 또 소련공산당의 신강령의 기초로서 전연 쓸모가 없다는 낙인을 찍혔다.

그러나 아무리 우상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비판은 무리가 너무나 많다. 스탈린은「사회주의 제도로부터 공산주의 제도를 이행함을 가능케」하기 전에 먼저—마르크스이론에 따라—실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전제조건을 지적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경제성장의 필요한 조건으로 소비재보다도 생산재 증산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을 불가결의 법칙임을 되풀이 강조했다는 점이다. 즉,「생산재의 우선적 확대가 없이는 국민 경제성장의 달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칙은 이론적 명제로서 볼 때 실로 넌센스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플러스의 성장률은, 순투자율이 가령 영(零) (또는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같은 법칙은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소비수준을 낮게 억제하면서 투자를 위한 투자정책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죽은 뒤 그의 후계자들이 스탈린의 이와 같은 잔혹한 정책을 계속 실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집단지도제의 연막 뒤에 진행하는 가열한 권력쟁탈전에 의해 투쟁 당사자들은 소비재를 어느 정도 증대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탈린주의자 마렌코프는 소비재 증산을 위한 5개년 계획을 4년으로 완성시킬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흐루시초프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유는 마렌코프가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중공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반 스탈린주의자인 흐루시초프는 소비재 증산을 꾀한 마렌코프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한편으로는 스탈린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또 한편 입으로는 소비재의 증산을 부르짖고 뒤로는 생산재의 증산을 우선시했다. 향후 20년 간에 있어서의 장기목표에 의하면 소비재의 생산에 공업 총 생산 중에서 점하는 비율은 1960년의 32.2%로부터 1980년도의 257로 인하되겠금 책정되어 있다. 흐루시초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중공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장내에 있어서도 생산발전을 위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제22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벌린 연극은 사실이지만 9년 전의 제19차 당대회에서는 불우한 라이벌 마렌코프가 당시 크레믈린의 법적추정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중요보고 연설을 행했다. 전기한 스탈린 논문이 발표된 직후라 마렌코프의 연설에는 이 논문을 거의 인용하였다. 따라서 마렌코프가「생산재의 우선 증산」을 강조한 것은 당연했으며 그는 이 대회에서「동무 스탈린은 보다 높은 경제형태에의 이행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완비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번 22차 당대회에서 이 전통적 노선을 답습한 자는 바로 흐르시쵸프와 미꼬얀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산주의의 노선에 관한 스탈린의 견해를 철저히 비관하고 이른바「질적 전제조건」가령 (「소유의 사회주의화」촉진)이 부가되기는 했으나 이에 의해서 기본적 사실이 캄프라아쥬 되지는 않았다. 기본적 사실이란 즉 보다 높은 소비수준과 일반적으로 넉넉한 경제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유지와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잡을 수 없는 목표를 국민에게 보이면서 정책을 강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그들의 수법은 그것을 미끼로 해서 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국민에 요구하는 상투적 방법이기도 하다. 전 대회때 미꼬얀은 스탈린이 공산주의의

이행 문제를 부당하게 단순화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스탈린이 권력행사의 기술이 뛰어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만약 스탈린이 생존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단순화된 이른바 공산주의 이행문제를 좀 더 복잡화했을 것이며 또 영원한 목표를 수평선 저편에 세워놓고, 그것에 가까이하려 해도 수평선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수법을 썼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소련 지도자가 왜 그처럼 격렬하게 과거를—따지면 그들 자신의 과거—공격하고 동료의 한 클럽을 비난하는가? 이 이유를 말하려 하는데 있지 않다.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계속 흐루시쵸프 반대파와 중공과의 결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재제도라는 것이 치열한 적대자를 가지는 것이며 많은 굴욕들을 가지는 법이다. 이런 일련의 과거가 22회 당대회에서 폭발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시체를 파헤친다. 2차대전사를 새로 엮는다. 도시의 이름을 바꾼다(스탈린그라드를 볼고그라드로) 스탈린과 그의 일파의 극악무도한 잔악행위를 백일하에 폭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폭로한 것은 조심성 있게 검토하여 발표했지만 비밀경찰 감방 내에서 행한 살인, 시베리아 감옥에서 죽어간 수백만의 가공할 범죄는 모두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것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놀라운 변화에 눈이 팔려 진짜의 변화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안정된 요소는 누구의 눈에도 크게 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소련의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진로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변화된 현상만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 요소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비 스탈린 주의화의 떠들썩한 외침에 숨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강력한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지나 않을까? 이같은 의문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역할의 하나가 후자로부터의 관심을 감푸라아쥬 하는데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소련 지도자의 태도에는 변화라 할 만한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흐루시쵸프는 자못 자연스럽게 스탈린과 그의 후계자가 지녔던 모든 것을 인계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흐루시쵸프의 이 입장과 위치를 즉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연적인 결과 —즉 장래에 그가 추구할 경제정치의 기본노선—이미 알아내기에는 그리 힘드는 일은 아니다.「그러나 그것은 다룬 문제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빠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하나의 예로써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흐루시쵸프가「균형이 맞는」경제적 발전을 강요하고「최근에 설치된 확대경제지구(擴大經濟地區)와
이들 지구에서「소흐나르호즈(국민경제회의)와의 조정을 목적으로 조직된 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흐나르호즈」란 국민경제회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1957년 5월에 소련 전국에 걸쳐 합계 약 100개소(정확히는 105)가 설치되어 각 경제행정 구역 내의 일체의 공업을 지도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흐나르호즈는 그 이전에 모스크바의 각 경제관계기관이 가졌던 관리기능을 모두 이양받게 되었기 때문에 소흐나르호즈 설치 그 자체의 목적이 매우 대담한 산업의

지방분련화의 조치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조 개혁은 이것을 경제적 발전의 필연의 결과라고 설명되어 왔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다. 즉 소련의 산업은 양(量)적으로 질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행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을 지방으로 분양하고 중앙으로부터의 감독은 오히려 능률을 전하시킨다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능률증가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비재의 결핍이 계속되는 상태하에서의 중앙집권을 폐지하고 지방분권화를 실시한다면 많은 기업이 현지의 민수수요를 위한 생산으로 전환되기 마련이며 생산재의 생산이 등한시되기에 필연적인 결과이다. 종래에 있어서 개개의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소련 정부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의 예는 허다하다.「소흐나르호즈」가 이들 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내부 활동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현지 당국이 국가추진사업에 그다지 열을 보여 주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기는 했으나 자기들이 속하는 지역의 이익에 관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의 증거는 얼마라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행정당국이 자기 관할하에 있는 지역기업동지(地域企業同志)의 물자의 바타 거래를 묵인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기업간의 바타 거래는 기정계획 루트의 물자를 횡류한다는 것인데 당해지역의 자급자족 체제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실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반거래는 거의 묵인되어 왔다. 만일에 중앙당국이 이 바타 거래를 엄격히 취체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책정한 기정계획이 송두리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때문에 스탈린도 비밀경찰도 알고도 모르는 체 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 소련이 가진 경제계획의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바타거래는 결과적으로 엄금할 수도 없었고 그 그늘 밑에 기업 당담자는 사복을 채웠다. 또 부작용으로는 생산보다 소비재 생산의 증산을 가져와서 정부가 계획한 것과는 반대현상을 나타내었다. 소비물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간다. 때로는 보상품(報償品)의 형태로 때로는 공장 경영자가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하나 지방분권화의 필연적 결과의 하나로서 중앙계획 입안 당국이 입수하는 통계 숫자나 기타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저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흐루시쵸프 자신도 때때로 지방 농업관리당국이 속이고 있다고 분격하였다. 이것은 농업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공업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분권화가 실시된 이래 중앙정부가 발표한 산업통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련의 신문이 지방분권화 정책을 크게 비관하고 나선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16세기 러시아에 있어서 매스토니체스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귀족들의 서열을 정하는데 쓰여진 말이다. 귀족들의 이러한 집회

가 있을 때마다 서열문제로 말썽이 생겼다. 후에 조그마한 지위 다툼 하잘것 없는 다툼에도 이 말이 쓰이고 결국 나쁜 버릇의 대명사로 전용되었다. 현재 이 말이 다시 되살아나서「지방주의」로 쓰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비난의 용어로 등장하였다.

만약, 소련정부가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을 파악할 만한 민감성을 가졌다면 여기서 당연히 생겨나는 의문은 무엇 때문에 지방분권화를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소련 공업의 능률증대에 목적이 있었다는 흐루시쵸프가 지방분권화에 파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을 과소평가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그치는 문제일까?

소련의 지방행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을 속이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알면서 지방분권화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수 없다. 거기에는 적어도 몇 가지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로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것을 들어보자. 그것은 그 수많은 중앙 경제관계 기관의 관료주의의 타파다. 이 경제관계기관의 관료주의는 소련 정부의 암이었다. 때문에 지방분권화의 조치가 일시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목적은 엉뚱한 곳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 증거로는 흐루시쵸프가 실권을 장악하자 흐루시쵸프의 적으로 지목되는 경제관계관료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밀려 내려갔다. 따라서 소흐나르호즈도 흐루시쵸프에 충성하는 신 관료진의 편성을 목적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대된 경제행정지구의 신 경제회의 설치는 그 제2의 포석인 것이다.

이들 지방경제회의는「조성 및 계획」의 기능을 시도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종류의 회의는 17개가 있다. 최초로 설치된 국민경제회의는 그 후에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 중요한 기능의 대부분은 새로운 경제회의에 이양되었고 앞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실로 기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소련의 신문이 이 신경제회의 조직을 마치 40년이나 전부터 있었는 양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정치적 의도는 물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40년 전부터 이 새로운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아무도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40년 전부터 있었다는 인상은 낡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그처럼 칭찬되었던 이 조직체를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의도가 숭어 있다고 보아진다. 때문에 당분간은 손을 대지 않을지 모르나 결국 소흐나르호즈의 전면적 해체 소멸로 낙착될 것이다. 새로 설치된 이 조직체는 규모가 크고 그보다도 규모가 작은 조직체가 지방업체에 보다 많은 실용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소흐나르호즈는 중앙기관도 못되고 그렇다고 독재자의 의도를 수행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번의 신정책은 중간적 또는 과도적 성격을 띤 것으로 추단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복잡한 작전의 최종적 완료 작업으로 한 번은 폐지된 모스크바의 중앙 경제관계 기관이 부활한다고 예상된다. 만일 이 같은 해석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표면으로는 비 스탈린주의화

운동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그 실은 극히 교묘한 스탈린주의 복귀 (Re-Stalinization) 운동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소련의 경제발전계획을 서구에 있어서의 경험의 단면적 수록에 기초한 장기적 역사적 관찰에 입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적 요인 또는 공업기술상의 요인과 이것이 사태의 추이에 미치는 결정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그치기 쉽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실로 안이한 의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련과 서구와의 차이가 가장 작은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공업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최후에는 소련사회의 모든 부분이 공업기술의 요청에 순응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당연한 경향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른다면 소련의 진화의 과정도 우선은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의 사회는 아무리 기묘한 일 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구사회의 흡사한 사회로 변화하고 말 것이라는 참이다. W·W 로스토우 교수가 전 세계 경제발전계획에 소련을 포함시킬 것을 시도한 것도 같은 경향의 견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의 약점은, 전체주의 독제체제의 모다스 오펜다이(수법), 그중에도 독제제도에 있어서의 전력행사의 역학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되었다면 오늘날의 소련의 특수조건 밑에서 공업기구의 분권화는 가령, 지방행정당국이 중앙정권의 대방침을 속이거나 왜곡시키지 않더라도 도저히 유지될 수 없음이 판명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재권력이란 언제나 상의하달에 의하여 권력 자체에 손이 닿지 않겠끔하지 않고는 침식당하여 붕괴될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재자는 하잘것 없는 일에도 과도한 신경을 소모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 독재자가 가지는 통폐이다. 나폴레옹이 전장(戰場)에서 정복한 지역의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 곳에까지 신경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가령, 그가 원정 갔던 러시아에서 이탈리아의 나폴리까지 전령을 보내어 직물소포의 수입이며 조그마한 기계공장의 건립에까지 명령했다는 사실은 역시 독재자의 불안감이 빚어낸 노릇이었다. 소련의 지방분권화는 일종의 권력이양이며 독재권력의 이양은 권력의 위축을 의미한다. 만약, 분권화와 독제제도를 병존시킨다면 오랜 기간 동안에는 반듯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물리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의 소련의 지방분권화는 그만한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고 벌써 한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이상에서 나는 소련정책의 두 가지 분야에 관해서 말했다. 하나는 기본적인 경제정책과 공산사회 건설에 대한 태도이며 이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탈린 시대와 실질적으로 하등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보여진 변화가 후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전주곡으로 의식적으로 꾸며진 획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변화 또는 개혁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조 성 식 역〉

민주주의원리(民主主義原理)

민주주의사상(民主主義思想)의 발전(發展)

이 극 찬(李 克 燦) ②
〈연세대 교수〉

좋은 정치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成員)이 하나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정치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정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방식을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인류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여러 가지로 생각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단 한 사람만이 또는 몇몇 사람들만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하게 된다면—비록 그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사회의 모든 성원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는 것이 판명되게 되었다. 좋은 정치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 즉 국민전체의 의사에 기안하여 정치가 행해지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전호(前號)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정치가 민주정치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민주주의 사상은 과연 어떻게 발전되어 온 것일까. 다음에는 그것을 지면관계로 간략하게 고찰해 보려고 한다.

(가) 고 대(古 代)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한 정치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인류의 문명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즉 인류와 정치관계가 어떤 지배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의 기원은 이를 고대희랍의 도시국가에서 찾는 것이 통례로 되고 있다.

고대의 희랍사람들은 주로 그 풍토적인 조건과 고대의 유치한 교통기술로 말미암아 소규모의 폴리스(Polis=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했다. 희랍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폴리스 속에서 왕정(王政)과 귀족제(貴族制) 및 참주제(僭主制)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정치적 경험을 겪은 후에 수많은 도시국가에서 민주정치를 발달시켰던 것이었다.

그러면 희랍에서 이와 같이 민주정치가 대두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아테네의 경우를 들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아테네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은 민회(民會)에 출석하여 그곳에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자격이 인정되었다.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이 일찍부터 사유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유민에게 그와 같은 자유들 누리게 했다고 한다. 또한 화폐경제가 보급하여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부(富)의 힘에 의해서 평민의 세력이 대두하여 귀족과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아테네의 민주정치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보인 무산시민(無産市民)의 정치적 발언권이 증대하여 고대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민주정치는 아직 완전한 것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희랍의 민주정치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많은 노예가 있어 그들에게는 참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조차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이른바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는 인구가 많은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형태로서는 행해질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희랍의 민주정치는 근대와 현대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나) 중 세(中 世)

중세사회의 특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봉건제(封建制)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봉건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토지소유가 정치적 지배권력의 원천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봉건제도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의 특징은 토지를 매개로 한 신분적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중세의 정치 조직은 토지대여에 의한 지배복종관계를 기간으로 한 것이며 봉건적 영주에 의한 토지의 독점적 소유와 농민을 토지에 구속하여 인격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그를 억압 하는 이른바 장원제도(莊園制度)를 그 경제적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장원 내에서 직접 생산노동에 종사한 사람은 반 노예적인 농노(農奴)였다.

이와 같이 중세에 접어 들면서 성립된 봉건제도는 계층적인 지배조직을 통하여 일반 백성의 자유와 권리를 극도로 억압하여 민주적 제도의 출현을 크게 저해했다. 그러나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출현하여 자치도시로서 독립권을 갖게 되었다. 그 리고 이 도시의 대표자는 귀족과 승려와 더불어 국왕의 행위에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등족회의(等族會義)」들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의 의회의 기원으로 된 것이었다. 대체로 중세기에 있어서 민주정치는 하나의 정치제도로 발달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다) 근대민주정치(近代民主政治)의 發達(발달)

근대민주정치는 절대왕정의 붕괴로서 성립되었다. 절대왕정(또는 절대주의(絶對主義))이라는 것은, 중세의 봉건영주의 지배가 무너져 그 대신 여러 봉건영주로부터 제약을 받아온 국왕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하에 —하나의 전제군주로서—근대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절대왕정의 특색은 국가권력이 전제군주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 행사는 국왕의 측근에 있는 소수의 귀족, 관료, 군대 등에 일임된 것이었다. 국왕의 의사는 절대적이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전제군주가 가진 국가권력은 국민 개인 개인의 모든 생활에 걸쳐서 간섭과 제한을 가했음으로 그와 같은 국가를 경찰국가(警察國家)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되었다고 보는 이른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주장되어 왕권을 신성화시켰는데 이것은 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주(註)】루이 14세(Louis XIV)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짐(朕)은 국가다)라는 생각은 전제군주의 강대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는 국가를 군왕의 소유물로 보았던 것이었다.

또 한편 절대주의 정치는 신흥 상인계급과 결탁하여 시장의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민족적 지반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은 정치가 채용한 경제상의 정책이 이른바 중상주의(Mercantilism)이다. 이와 같이 절대왕정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일면을 보였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많은 봉건적 세력을 온상(溫床)하고 있었음으로 마침내는 부르주아지(시민계급(市民階級)의 대두로 말미암아 타도되어 질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대두를 보게 된 시민계급은 경제적·정치적인 자유를 희구하여 국왕과 토지귀족 그리고 귀족화된 대상인 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절대왕정에 대립하여 반항을 보이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을 붕괴시킨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17세기에 있어서의 영국의 청교도혁명(淸敎徒革命)과 명예혁명, 18세기에 있어서의 아메리카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시민혁명에 의해서 근대민주정치의 시대는

시작을 보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국왕과 귀족 및 그 관료들의 절대적인 지배에 맹종해온 사람들은 혁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기네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대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종래의 지배자들에 대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케 했다. 그와 더불어 권력이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권력의 분립도 주장되었다. 또한 온 국민들의 요구와 희망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의회정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테면 아메리카 독립전쟁 때에 발포된 1776년의 독립선언과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美合衆國憲法)이라던가 또는 프랑스혁명때 발포된 1789년의 인권선언 등은 모두 시민혁명의 사상인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 및 의회정치의 원칙을 확립한 것이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제선언과 헌법의 정신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제 그와 같은 사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민주정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의 반항을 통해서 점차로 발달해 간 것이었다, 그런데 영국은 따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다. 즉 영국에서는 본래 국왕의 권력이 강대했지만 그 반면 국민 편으로부터의 저항도 그만큼 강하여 이미 13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일단 의회정치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그 후 의회의 세력에는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의회는 여러 가지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테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왕은 과세할 수 없다는 민주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명시한 1628년의 권리청원(權利請願)(Petition of right)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여 그것을 입법화한 1689년의 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과 1215년의 대헌장(大憲章)(Magna carta)과 더불어 영국의 민주발전을 보장하는 불멸의 기본적 법률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서 의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마침내 절대주의적인 전제정치는 영국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민주정치의 기초가 확립되었는데 근대민주정치는 또한 아메리카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을 거쳐서 더한층 발달을 보게 되었다. 즉, 아메리카는 1620년 영국본토의 종교적 압박에 반항하여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이주해 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었음으로

처음부터 자유주의의 기풍이 강했다. 그들은 영국 본토의 식민지 압박의 정책에 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발포된 독립선언은 근대민주정치의 원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표명한 것이었다. 즉 그 선언에서는 뭇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인간은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기본적 인권이 부여되었다는 것,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18세기에 이르자 절대주의적 전제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여 근대적인 민주정치에로 이끌려 나가는 사상적 분위기가 점차로 형성되어 갔다. 이를테면 몬테스큐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1748년)속에서 전제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이른바 삼권분립론을 주장했다. 이와같은 생각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 때에 발포된 「사람과 시민의 권리선언」—여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평등하며 주권 즉 국가의 최고권력은 원래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강력하게 천명되어 있다—과 더불어 그 후의 민주정치의 발달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적 민주사회는 시민혁명을 하나의 계기로 하여 제3단계인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면 그 시민의 행동을 지도해 온 정치사상과 지적(知的) 운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과 계몽사상(啓蒙思想)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사회는 자연권을 가지는 인간상호간의 합리적인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권력도 이와 같은 계약에 기인되고 있다고 한다. 즉 정치의 주체는 자연이라던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며, 따라서 정치사회는 인간의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생각이다.

【※주(註)】이를테면 죤 록크(John Looke 1632-1704) 는 그의 저서「정부론(政府論)」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정치적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에 자연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여 이 자연상태하에서는 자연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이 자연법하에서는 각자는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며 제각기 생명과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논한다. 요컨데 그는 인간은 본래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간은 각 개인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서로 동의한 계약에 의해서 정치적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권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에 위탁 권력이어서, 만일 이와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이 위탁을 배반하여 자연권을 침해하게 된다던 사람들은 그것에 반항하여 위탁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말하자던 인민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록크의 계약설은 영국의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이론화시킨 것으로 이는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8세기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이성에 기인하여 인간사회의 불합리를 비판하여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몽사상(啓蒙思想)이 발달되었는데 이것 역시 근대민주정치의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몬테스큐(1689-1755), 루소(1712—1778) 등은 그 중심적 인물이었는데 그 중 볼테르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계몽사상의 선구자로서 관습과 낡은 제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미신(迷信)과 전제정치를 타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루소는「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쇠사슬에 얽어매여 신음하고 있다」라는 유명한 말로서 시작되는「민약론(民約論)」(1762년)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인민주권사상을 전개했다. 그의 이와 같은 사상은 프랑스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요컨데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낡은 권위와 전통 특히 기성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시에 과학지식의 보급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상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과 계몽사상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특권계급의 불평등한 지위와 권력에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근대민주정치는 절대왕정을 타도한 시민혁명의 결과로써 생겨진 것이며, 그 법적인 표현이 근대헌법이었다.

그 후 이와 같이 발전해 내려온 민주주의는 뿌리 깊이 잔존하는 전제군주의 세력, 전체주의와 파시즘과 같은 반동세력의 대두, 그리고 노동운동의 활발화에 따르는 계급대립 등과 같은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민주주의는 이미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세계사람들의 귀중한 공동재산으로 —즉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되기에 이른 것이다.

공산주의비판(共産主義批判) ②

전회(前回)의 (結論)

김 창 순(金 昌 順)
〈평론가〉

전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이란 것은 물질의 운동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왜냐면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과정에는 통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신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만 뇌수(腦髓)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를 물질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고기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우주의 무한을 생각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철학의 동물이며 의식적인 존재이다. 물질로서의 기계적(機械的)원인은 필경(畢竟) 기계적 결과에 대치(代置)된다. 물질과 기계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며 소(牛)와 말(馬)은 능동적(能動的)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의식적인 동물이 아니다.

둘째 인간에게는 알기 쉽게 말하여 유쾌하다든가, 불쾌하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물질과 기계는 그것이 없다. 소와 말은 불을 피할 줄 안다. 이것은 화상의 고통(苦痛)과 관계가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정신적 고민과 깊은 참회(懺悔)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 일지라도 정신적 고락(苦樂)을 피할 수가 없다. 물질로서의 뇌수(腦髓)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지만 정신의 경우는 다르다. 어찌하여 뇌수를 정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정신은 도덕적 가치로 충당(充當)되어 있다. 보통 말하는 선악의 판단이다. 물질과 기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선악의 판단을 못한다. 소와 말도 그러하다. 아무리 기묘하게 만들어진 로보트라 할지라도 이것은 도덕적 가치로 충당되지는 못한다. 그는 정신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다만 물질(기계)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보트를 파괴했다고 해서 살인죄, 상해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고작하여 기물파괴, 파손죄로 되어질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뇌수가 아무리 물질세계의 최고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의 존재이다 뿐이지, 정신의 근원일 수가 없으며, 다만「사실의 조직」인데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근원적인 것인가,

정신이 근원적인 것인가의 철학의 명제(命題)에 있어서 전자를 택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에 빠짐으로써 인간까지도 물질과 도구시(道具視)하는 타락을 범하고 있다.

변증법(辯證法)이란 무엇인가

변증법이란 말은 그리시야말(希蹟言)의「디아레고」란 말귀에서 나온 것으로서, 회화(會話), 또는 토론(討論)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시야에서는 변증법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그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기술로 이해(理解)되어 왔다. 그리하여 고대의 일부 철학자들은 대립된 견해의 충돌이 진리를 발견하는 최선의 수단인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것이 18세기 후반에 독일고전철학(獨逸古典哲學)의 최고봉이었던 헤겔에 의하여 부활된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은 자연, 역사 및 정신의 온갖 세계가 하나의 과정(過程)으로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고, 전환(轉換)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모든 사물의 운동 및 생명성(生命性)의 근원은 모순(矛盾)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물질임을 막론하고 그것은 자체 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모순에 의하여 운동하며 충동(衝動)과 활동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면 모순이란 무엇인가? 두가지 것이 서로 부정하는 것을 말함이다. 서로 부정하면 대립(對立)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서로 부정하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 헤겔의 변증법은 대답하기를 모순은 대립투쟁에 의하여 지양(止揚)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양이란 무엇인가? 두가지 것이 서로 부정한 결과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헤겔의 변증법은 말한다. 새롭게 발전한 것들은 또 그 자체 내에 모순을 내포하게 되는 바, 그것들이 서로 대립투쟁한 결과는 다시 새로운 것을 발전시킨다고 헤겔의 변증법은 말한다. 그러나 헤겔은 모든 것의 근원(根源)을 오직 물질로만 보는 유물론자는 아니다.

헤겔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겔에 있어서는 그가 이성(理性)이라는 이름 하에서, 심지어 독립적인 주체(主體)로까지 변화하는 사유과정(思惟過程)인즉 현실세계의 데미우로고스(조물주(造物主))이라고 보고, 따라서 현실세계는 오직 데미우로고스의 외부적 표현일 따름이다. 이와 반대로 나(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의 두뇌에 이식(移植)되어, 거기에서 개조(改造)된 물질적인 것이다.』(마르크스의 저서「자본론」제1권, 독일문 제2판 발문)

마르크스와 동일한 사상가인 엥겔스는 말하기를『헤겔은 의식적(意識的) 변증법이지만, 마르크스와 나는 유물적(唯物的)변증법이다.』고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말하기를『우리는「포이엘박흐」은 유물론 가운데서 기본적 알맹이만을 취하고 관념론적, 종교적, 윤리적 외피를 없애버렸다. 「포이엘박흐」의 확실한 관념론은 우리가 그의 윤리학 및 종교철학에 접촉할 때면 즉시에 외면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대로 보면 그들은 헤겔 철학과「포이엘박흐」의 철학을 본딴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물질시하는 관점(觀點)에 섰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여 그들(마르크스, 엥겔스)은 유물변증법(唯物辯證法)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법칙으로 삼았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의 자연관(自然觀)과 역사관(歷史觀)이다. 자연변증법(自然辯證法), 유물사관(唯物史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공산주의의 자연관 및 역사관)은 과연 옳은 법칙인가? 예컨대 유물변증법에 질량법칙(質量法則)이라는 것이 있다. 즉 양(量)으로부터 질(質)로 전환하는 법칙을 말함이다. 공산주의는 이 법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바,『물의 응집상태(凝集狀態)가 변하여 어떤 경우에는 증기로 변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얼음으로 변한다. 인간사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라고.

과연 그들의 말대로 물은 평상(平常)의 기압하에 있어서는 섭씨 영도로써 액체(液體)로부터 고체(固體)로 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기온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혹은 고체(固體), 혹은 액체(液體), 혹은 기체(氣體)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언제나 필연적으로 자연히 질변(質變)하는 것은 아니다. 적이 문제점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물의 변화가 그대로 인간사회의 질적 변화에 원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면 근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대적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노동자들의 수가 늘어서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면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로 질변(質變)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이 섭씨 백도에 달했을 때 증기로 비등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체계 안에 그와 같은 백도라는 한계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다. 또한 그와 같은 한계점은 측정이 가능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부정(否定)하고 있다. 만일 유물변증법과 유물사관대로 되자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실현되었거나, 또는 인위적(人爲的)으로라도 되어졌어야 하는 것이지만, 세계의 어느 곳에 그러한 예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의 발달이 뒤진 후진지역의 사회에서 공산주의국가가 만들어졌으니,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사관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유물사관이란 것은, 가설(假說)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고 만다. 고작하여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서는 가치가 있을런지 모르나 인간사회의 질변(質變)에 관한 원리·법칙(原理·法則)일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러시아에서 레닌 일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만하더라도 당시의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공업국가는 결코 아니었다. 물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빙점(氷點), 또는 비등점(沸騰點)에 확실히 해당될 만한 일정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닌 일당은 혁명을 감행하여 사회의 질적 변화를 기도했던 것이다. 당시의 러시아는 원시농형태(原始農形態)의 농업이 전반적(全般的)으로 지배적인 후진국가였다. 농민이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공업 노동자들은 주민(住民)의 근소(僅少)한 퍼센티지 밖에는 없었다. 그나마 이들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여하히 개척해 나갈 것이냐의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 아주 결여되어 있었다. 이때의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은 사회의 질적 전환을 일으킬 주체의 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레닌 일당은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사실은 유물변증법과 그것을 적용한 유물사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레닌의 러시아 혁명에 적용되는 설명은「가치판단의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극렬적(極烈的)인 인테리 분자들이 선전선 동하여 폭력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기왕 유물변증법의 질량법칙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이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질적 변화로서 기체(氣體)로 될 적에는 그 전부가 기화(氣化)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질적 변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봉건사회(封建社會)의 기초적 부분이 변화되어서 자본주의사회로 변화된 것이라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봉건사회의 이러저러한 잔재가 장기(長期)에 걸쳐서, 적이 산 힘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스탈린 등의 폭군에 의하여 인간이 인간을 토벌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질적 변환을 가져온 데서야 원리고 법칙이고 따질 것이 없는 일이다.

◇ ◇

유물변증법에 있어서는 운동, 발전, 변화, 진화라는 것을 중요한 명제로 삼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現象)은 무엇이 인식하는가?

운동, 발전의 과정(過程)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객관시(客觀視)할 수 있는 의식(意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물(事物)의 현상(現象)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무엇이 운동이고 발전이라는 규정(規定)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존재(存在)가 의식(意識)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유물론적 기반에 서 있는 유물변증법으로서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의식하고 규정짓는 능력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헤겔은『모든 사물이「이레」의 구현(具現)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변증법을 관념론적기초(觀念論的基礎) 위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그의 동조자(同調者)들은 헤겔의 그 부분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유물변증법으로 자처하였다.

대부분의 관념론자들까지도 유물변증법 논자에 못지 않게 자연은 변화하며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단지 문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있어서 관념론을 택했던 것이다.

유물변증법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종종『유물변증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운동과 발전이 이해(理解)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무엇이 운동이며 발전이라는 인식의 주체(主體)가 그에 앞서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자연(自然)은 변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객관적 위치에서 보고, 규정짓는 의식을 부정한 데서야 철학의 성립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왜냐면『위선 존재가 있고, 모든 것은 그에 따르는 것이다.』라고만 본다면 논리(論理)는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산주의자들은 고정(固定)되어 움직이지 않는 유물변증법이란 개념(槪念)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있는 성장발전(成長發展)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고정적 개념,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낙후물(落後物)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모든 것은 움직이 며, 움직이는 운동은 어떤 점(點)에 있으면서도 그 점에 없다.』고

하는 유물변증법 논자들이, 유물변증법만은 영원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한 데서야 결국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지 않는가.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억설(臆說)을 농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피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유물변증법의 논리를 어거지로『살아 있는 현실의 논리이며, 현실 일반에 대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을 억설가로 만들 어 버리는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편리여하에 따라서 유물변증법의 논리를 아무렇게나 남용(濫用)하여 왔다.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충돌과 견인 등을 마음대로 긍정(肯定)과 부정(否定)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편리에 맞도록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법(論法)으로 자신을 채식(彩飾)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진리의 탐구, 사실의 진정한 해명보다는 남용, 의곡이 더 많이 성행(盛行)하는 것이다.

× × ×

〈P136에서〉

각자가 자기 직책에 대한 헌신적 봉사를 다하여 책임완수에 진력하는 한편, 국민의 자제요 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표(儀表)되는 생활로 일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군은 스스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증강을 기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면서 조국과 자유우방의 시대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렵고도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군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충성심을 발휘하여 군무를 통한 군과 국가에의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신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한 과감한 실천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국토방위의 보람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요」「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힘이 행동으로 과감하게 실천될 때 비로소 부강이 오고 승리가 오고 영광이 나타나며, 나아가서는 찬란한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일상어 분석의 중심과제

—언어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김 형 석(金 亨 錫)
〈연세대 교수〉

지금도 영국에는 인문계를 영도하는 옥스퍼드 대학과 자연과학계를 존중시하는 캠브릿지 대학이 학술과 사상계의 중책을 맡고 있다.

19세기 후반기 영국철학은 옥스퍼드의 쁘랫들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념론의 세력 밑에 있었다. 칸트·헤겔·롯체 등의 독일철학이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영국의 경험론을 다시 살리려는 운동이 줄기차게 일어 났다. 그 처음 대표자는 G.E·무우어와 B·러셀이다. 무우어는 관념론자들이 체계의 완비와 통일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내용의 정밀성과 명확성을 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철학은 먼저 사상의 분석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노력이 영국철학을 관념론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러셀은「논리적원자론」을 제창함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경험론의 완성가인 18세기의 휴움 자체에도 철학의 분석적 과제는 주어져 있었다. 휴움은 과학자들이 사물을 분석하여 더 분석할 수 없는 궁극적 부분에 이르는 것 같이 철학은 사상의 분석을 거듭하여 궁극의 단순요소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단지휴움은 그것을 심리적인 것에 그쳤던 것 뿐이다.

일찍이 라입니쓰의 영향을 받은 러셀은 이러한 전통을 새로운 방법과 방향으로 진전시켰다. 처음 동료자였던 화잇헤드와의 공저인「수리철학원리」에서는 어떻게 수학의 내용과 원리가 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는가? 함의 업적이었고 그 뒤 제자이면서 동료자인 뷔트겐슈타인과는 일보 더 전진된 논리적 원자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러셀은 휴움과 같이 사상이나 관념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언어의 명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물 자체를 취급하는 것은 과학이지만 철학은 어떤 관념 내용을 차지하기보다 사실의 원자가 그대로 나타난 언어로서의 원자적 구조와 성격을 분석 비판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비판의 방법이 무엇인가? 논리인 것이다. 명제의 논리적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수학까지도 논리에 환원되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학, 수리 철학의 방법이 적용되어 명제들을 분석한다면 논리학의 구조는 오해로 이끌기 쉬운 자연언어와 달리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명제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요소적인 명제로 분해되며 이로부터 소급되어 구성되는 진리함수로 추리될 수 있다고 본다. 요소명제는 더 분해될 수 없는 원자명제로 도달한다. 일반명제는 이 원자명제의 진위에 따라 그 진위가 구별될 수 있으며 정당한 논리체계는 이로부터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진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명제의 논리적 진위를 가리는 근본성격으로 나타난 것이 이미 설명된 토오톨로지(동의어반복(同義語反復) 또는 항진명제(恒眞命題)와 모순명제(矛盾命題) 등이다. 러셀은 이러한 논리학의 진리함수적 구조를 언어, 일반의 구조에까지 진전시키려 했다.

여기에 러셀을 협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얻은 이가 뷔트겐슈타인이다. 그는 영국학계에는 물론 뷔엔나 학단이 받아들인 내용이 바로 이때의 뷔트겐슈타인의 학설이었던 것이다. 경험과학과 사실의 원리, 사실의 원자와 명제의 원자와의 관계, 종합명제의 진위성을 포함하는 언어분석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철학적 문제를 포함하는 명제를 논리구조를 가지는 인공언어로 번역 환원하여 다시 그것을 원자적 명제로 분해환원시켜 그 진리성을 검토해 보자는 논리적 분석법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뷔엔나 학단에 미친 뷔트겐슈타인은 역시 영국적인 무대로 되돌아 온다. 이미 러셀과의 공통성보다는 무우어와 일치점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 때문이다. 철학적 이론을 존중시하는 러셀보다는 언어분석 그 자체에의 과정을 밟을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무우어가 공통점을 가진 바가 있다면 언어에 관한 분석이다. 그러나 그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무우어는 논리적 원자론을 주장하지도 안 했으며 이상언어에의 번역과 환원을 뜻하는 논리적 분석이나 환원적

분석을 택하지도 안했다. 그는 관념론의 약점과 그들이 가진 학설의 애매성을 비판 정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조심성 있게 검토 분석하는 일로 출발했다. 여기에 무우어가 발견한 것은 형이상학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 표현의 양식이 얼마나 언어상의 과오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선(善)은 무엇인가? 함을 취급한「윤리학 원론」이 바로 그 태도와 방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이다. 관념론자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술어나 명제를 꺼내 놓은 뒤에는 제각기 다른 해석을 부쳐 본다. 따라서 통일도 계통도 없는 결론들을 내려 보지만 그 어느 것도 신빙성을 가질 수는 없다. 쁘랫들리는『시간은 비실재적이다』는 명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기 시작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결과로 이끌어 간다. 이러한 관습적인 과오가 철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철학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이러한 철학의 약점을 시정하며 진정한 진리에의 길을 찾기 위하여서는 과거와 같이 철학적 명예나 파라독스가 관용어법에 의하여 정식화되어서도 안되며 자각없이 공허한 개념들이 나열되어도 안 된다. 의미의 혼란이나 오용이 배제되며 불필요 무의미한 명제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우어의 이러한 제안은 극히 건전하며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그의 분석이란 사색을 전개시키는 하나와 방법이며 우리들이 지켜야 할 비판과 구별의 의무인 동시에 문제의 규정과 해명의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 만일 철학적 명제나 파라독스 속에 잠겨있는 언어상의 혼란 의미의 애매성에 따르는 오해와 그로 인한 형이상학의 무의미한 이론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철학은 아무 때도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는 형이상학을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하지도 안 했으며 논리실증주의자들과 같이 어떤 형식과 법칙에 언어를 적응시키려는 태도를 강요하지도 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태도가 후기의 뷔트겐슈타인의 이론과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일상언어의 분석인 것이다.

러셀과 더불어 일하고 있을 때의 뷔트겐슈타인은 논리적 원자론 엄밀한 형식적 분석을 앞세우는 입장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우어의 학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의 후기는 의미의 도구주의적 이론으로 기울어『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는 버리게 되었다.『애매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구(道具)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배제되지 안 해도 된다』는 견해로 변했는가 하면 문장의 의미는 그것

이 어떤 현실의 문맥, 어떤 목적 밑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르렀다. 러셀같은 논리적 구성, 카르납의 의미론적 체계 등은 지나친 태도이며 오히려 형이상학적 역설이나 혼란의 근원을 치료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언어를 그 형이상학적 사용법에서 일상적 사용법으로 이끌어내리는 일이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며 옆길로 빠져 일반적인 것이 아닌 어떤 기술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일상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내용없는 공허성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언어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언어가 활동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말하자면 공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인 때문이다. 이렇게 무우어의 입장을 앞질러 일상어의 분석을 주장한 뷔트겐슈타인은『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현실의 맥락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실용적 의미론을 암시하는 동시에 새로운학파에의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오늘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의 공명을 얻고 있는 영국의 분석철학, 일상언어학파이다. 요사이는 그 주도세력이 캠브릿지보다 옥스포드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 분석학파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러셀의 환원적 분석은 수학이나 논리학의 영역에 적응될 수는 있으나 일상어를 분석함에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카르납의 형식주의도 철학의 건전한 전통과는 일치성이 적기 때문에 택할 바가 못 된다고 단정해 버린다. 이와 같이 1930년대까지는 대륙 미국적인 논리적 실증주의와 공통성이 없지는 않았으나 2차대전을 계기로 일상어분석학파는 완전히 독립된 방향과 이론을 전개시키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위즈톰(J. Wisdom, 1904-) 라일(G. Ryle, 1900—) 오스틴(J.L.Austin, 1911) 스트로오손(P. F. Strawson, 1919-) 봐이즈만(F. Waismann, 18969—) 하아트(H.L.A. Hart, 1907-) 웰돈(T. D. Weldon, 1896-) 등이 일찍부터 이에 가담 했다.

이들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같은 학파성의 통일된 과제를 내걸지는 않고 있으나 거의 공통적인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언어에 관한 것이지만 분석적 방법이다. 무우어와 후기 뷔트겐슈타인의 영향 밑에 있는 그들은 일상 언어에 따라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언어표현의 논리구조를 발견하며 이로써 언어표현에 섞여드는 여러 가지 혼란 오해를 제거하며 잘못된 형태로 제시된 철학적 명제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배제하도록 노력한다. 그렇다고 과거의 학자들이 택했던 좁은 입장의 논리

학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논리적 성과를 확대시켜 비형식적 논리규칙을 택한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어의 적극적 해명을 위하여 논리가 필요한 방편으로 채택되는 셈이다.

그들이 이러한 언어분석의 방법을 치료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뜻도 여기에 있다. 언어의 분석과 비판에서 사상의 내용을 명백히 하며 따라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일은 하나의 치료적 역할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좁은 의미의 철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미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의 사고와 언어적 표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뒤따르게 되는 분석론이다. 오직 그 방법론에 부분적 차이가 약간씩 있음은 불가피한 일이다. 타일같은 이는 사실의 형식을 중심으로 철학성을 긍정하기도 하며 오스틴은 보다 순수하게 언어사용의 구체성에서 문제를 전개시키고 있다.

만일 논리적 실증주의의 방법을 그대로 택한다면 경험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실천성을 동반하는 학문에는 언어법칙과 내용문제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어의 분석은 보다 넓고 정통적 내용을 용인할 수 있는 길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적인 경험주의의 한 특색이기도 하다. T.D. 웰돈이 정치철학 분야에서 치료적 분석을 시도하여 보다 간결하면서도 실제성있는 정치적 사고의 논리성을 암시하고 있음은 그 하나의 실례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없을 수 없다. 많은 문제들을 그 개별성에서 취급한다는 특수성의 반면에는 일반적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약점이 잠재해 있다. 그들의 말과 같이 언어분석은 단순한 사고의 교통정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일 개념정리를 하는 것만이 분석철학의 일이라면 이러한 철학은 별로 창의성이 없는 과도적 방법론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이론적 과제가 발견되어 가고 있다. 흔히 비형식논리적연구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러셀을 중심으로 하는 학설은 주로 수학 및 형식주의적 논리학을 택했기 때문에 언어분석의 현실성이 경시되었으며 원리론에 치우쳐 버렸지만 현실적인 언어생활의 일상어는 그 자체대로 많은 비형식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들의 언어세계에서 형식논리적 적용성만을 찾는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언어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형식논리와의 일치성을 벗어나는 부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비형식논리의 임무인 것이다. 명령이나 질문을 뜻하는 언어명제들, 감정, 결의를 표명하는 언어들, 감사와 사과를 나타내는 명제 등은 반드시 진위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 같은 개념이라 해도 그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맥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스토로 오손이 설명이 기술을 표시하는 문장 즉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를 언명문장(言明文章)이라고 보아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 관련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어떤 고유한 의미나 사용법을 가려보려 노력한 것도 이러한 방향의 한 대표적인 시도라고 보아 좋겠다. 어떤 규준적인 사용법이 주어지지 않는한 학(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문제의 방향이 보다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주어진 언어의 분석과 해명에 따라 보다 명백한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일반화해가고 있으며 모든 과거의 사상과 학문이 일단 경험적 정밀성을 통하여 정리된다는 단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철학에의 방향이 가능한가를 찾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앞으로 기다려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는 영국의 일상어 분석자 둘이 처음에는 잘못된 명제들을 바로 잡으며 불필요한 언어를 배제하여 치료적 역할을 하면 된다고 출발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를 종합해 가는 동안에 공통된 과제를 발견했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비형식논리적인 체계적 분석이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새로운 발전인 동시에 건전한 건설적 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뷔엔나학단의 철학자들이 어디까지나 논리 형식 원칙적인 것에 빠져버리기 쉬운 대륙적 요소에 매여 있음에 비하여 항상 경험과 전통을 살려나가는 영국적 기질의 철학이라고 보아 좋은 것이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어의 범위는 생활의 범위만큼 넓으며 그 적용되는 영역도 사고가 미치는 데까지 도착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우리들의 생활이 단조로웠을 때는 언어 활동도 비교적 단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정신생활의 다양성은 그만큼 언어의 복잡성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 따라서 예술이나, 종교 실천적 생활의 언어 등은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그들에 의하여 제시된 내용만 보더라도「극도로 형식화를 싫어하는 일상언어」,「비교적 형식화를 허락하는 일상언어」,「과학에 사용되는 언어체계」,「수학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주의적 언어체계」,「형식논리학」등의 다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구성해가는 것이 학문의 길이며 상상력이 예술의 바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언어분석은 항상 그 뒷정리에 종사치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언어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그것의 절대성, 유일성을 강조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을까? 최근 딜 타이의 계통을 밟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들이 새로운 각도의 언어분석을 전개시켜 보는 이유도 수긍이 되며, 철학의 새로운 내용이 용납된다는 사실은 언어적 분석이 있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학문적 과제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철학인 분석철학의 문제를 여기서 끝내기로 하자.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재에도 수많은 분석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방법론과 학(學)의 체계를 모색해 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언어분석의 방향이 과학과 악수하여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려 하는가 하면 일방에서는 언어분석의 방향을 실용적인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전개시키고 있다. 역사, 사회과학 전체에 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 개념과 의의가 새로운 비관과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보다 정확하며 타당성 있는 사고와 표현의 태도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철학은 항상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역사의 유구한 흐름에 남겨주는 바는 극히 적은 경우가 많다. 분석철학자들이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관념론도 그때는 유일한 철학이었다. 17세기의 합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배척받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오늘의 분석철학자들이 가지는 역사적 운명, 그것은 역시 오늘날의 철학자들에게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철학을 주로 대륙의 실존철학과 영미의 분석철학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갈래의 철학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이지 철학의 전부라는 것은 아니다. 이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 철학, 실용주의 철학, 토오미즘의 철학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세계성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철학 본래의 입장에서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철학이면서, 유구한 의의를 가지는 두 가지 조류를 택했던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제1회에 실려졌던 현대철학의 개관에서 엿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끝)

(P39에서)계속

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사정전위원회는 과거 10년 동안을 통하여 군사정전협정문의 서언정신과 협정조항준수에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이 기구가 언제까지 존속될 것이냐는 질문이 으레 예상된다. 즉 그 답변은 우리 민족에게 남북통일의 숙원이 이룩될 그 날까지 이 기구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북괴와는 달리 우리는 전쟁 파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경제적 발전과 민생의 복리는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결국 진정한 평화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불과 40 내지 50리이면 바로 적의 초병에 달할 수 있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속에서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언제나 명기하여 경계심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겠다.

망명(亡命)해 온 소련인이 말하는

소련의 공포정치(恐怖政治) ③

비밀경찰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A. 그리고레프

비밀통보원과의 연결

비밀경찰 건물 안에서 징모(徵募)된 비밀통보원들은 처음에는 검찰관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으레 밤 아홉 시나 열 시가 지나서라야 된다. 왜냐 하면 이때쯤 되면 패스를 발행하고 있는 비밀경찰 건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달리 주목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또한 어두워서 몰래 드나들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패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컴컴한 구석을 찾아가 앉아서 애써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패스가 발급되는 창구에 설 차례가 되면 재빠르게 자기의 신분증을 내보이고 들릴락 말락한 가는 목소리로 이제부터 찾아갈 방의 번호를 대는 것이다. 그러면 창문이 닫히고 연락원이 검찰관에게 방문자가 왔음을 전화로 통지한 다음 검찰관의

허가를 얻어서 패스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통보원이 정기적으로 비밀경찰건물을 방문한다는 것은 저마다 낯이 익은 지방의 소도시 같은데서는 특히 사람들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통보원으로서 그의 보고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비밀장소에서 은밀하게 회견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회견에는 소위 모의소(謀議所)(약칭KK)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밀경찰은 아파트에 든 사람이 무슨 죄과로 체포되었을 경우에 그가 들었던 방을 뺏어서 모의소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모의소로 지정된 방은 말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벽을 두껍게 하고 출입구가 두 개 정도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의소를 비밀통보원이 찾아갈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에 빠듯하게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약 그가 찾아 갔을 때 마침 다른 통보원이 와 있을 경우에는 난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모의소의 비밀이 어떻게 해서 외부에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은 물론 때로는 주위에서 의혹을 느낄까 두려워 주재원이나 비밀경찰 직원을 그곳에 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때는 검찰관 자신의 집에서 회원이 있을 경우도 있으나 체키스트의 집에 자조 방문객이 나타난다면 이웃의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하고 있다.

한편 통보원이 일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장소를 바꾸어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예로써 오·게·페·우가 키에프에서 있었던 소위 SVU(우크라이나 자유화연맹) 사건을 취급하고 있을 때 그 연맹의 일원으로 비밀통보원이 된 의사한 사람은 환자로 가장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비밀통보원을 통해서 보고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에 비밀통보원은 몇 개의 소위 반혁명행위를 체키스트 손에 넘겨주어 신뢰도의 테스트를 받은 다음 그곳 주재원의 권한 밑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주재원은 특히 열성적인 공산당원이거나 검찰관직을 은퇴한 체키스트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주재원은 그의 전력을 능히 숨길 수 있는 미지의 지방으로 배치하여 좋은 대우를 해주는 한편 비밀통보원을 장악하는 일을 맡기며 때로는 이러한 주재원이 통보원을 뽑는 경우도 있다.

주재원은 그의 수하에 있는 비밀통보원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주재원의 자유재량에 달렸으며 주재원은 통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검찰관이나 비밀경찰 관계부문의 장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다음 훈령을 통보원에게 내린다. 그리고 주재원과 검찰관과의 회견은 비밀경찰에 직접 종속되어 있는 통보원과 회견할 때와 대체로 비슷하다.

주재원은 비밀통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흔히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선동적인 활동에 직접 종사한다.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는 통보원과의 연락은 비밀경찰 본부로 통보원을 출두시킬 경우와 주재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재원은 경험을 쌓고 시련을 겪은 사람이며 여기에는 간혹 부락당서기(部落黨書記)도 끼는가 하면 부락 주재원이 비밀경찰 관리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통보원의 보수

비밀통보원에 대한 현금 급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데 그나마 그 액수는 통보원으로서의 구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들은 또한 소위 활동적인 통보원에게는 식량이나 의류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련에서는 돈보다도 그런 것이 더 요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보원의 급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을 잘했다는 표시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만약 일을 하는데 있어 그 솜씨를 높이 평가할 만한 통보원이 자기 일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다 수월하고 대우가 좋은 지위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비밀경찰은 통보원에 대한 다른 형태의 보수로서 무료여행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당이나 노동단체에 교섭을 해주는데 비밀경찰은 대개 그러한 기관 안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실력자를 은밀히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원이 학생일 경우에는 정부의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원조해 주기도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비밀경찰은 그 경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뜯어내는데 힘쓰는 것이다.

사건의 개시

비밀경찰이 어떤 사람의 소위 반혁명적 언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면 지체없이 검찰관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건이 개시되는데 누구라도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 만으로서 사건을 개시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건이 개시된 인물」의 이름은 그 비밀경찰 관할구역 내의 소위「잠재적 해적」을 수록한 특별 카드식 색인 안에 기록이 되는데 피의자의 카드에는 보통 그 사람의 사진, 약력, 혐의의 기술 및 그에 관한 조사보고가 들어있는 목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비밀경찰에서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특별 지문 카드가 마련된다.

새로운 사건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검찰관은 맨 처음에 부장이나 지방 비밀경찰본부장이 인정한 특별 형식의 의견서를 쓴 다음 범죄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검찰관은 사건 진행사항을 부장에게 규칙적으로 보고 한다.

만약 피의자가 다른 도시나 부락으로 이동하면 담당 검찰관은 모든 관계서류를 그곳 비밀경찰로 보내는 것인데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정보는 보통 민영의 여권부에서 제공되며 이와 같은 단계의 조사가 때로는 몇 해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조사자료가 늘어가는 것이다.

V라는 여자는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지만— 1940년에 모스크바로 불려가 그 당시 외무차관으로 있으면서 NKVD의 일을 보고 있던 데카조노프로부터 심문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녀는 그 후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작달막한 키에 어깨가 넓으며 유난히 머리통이 크고 음침스럽게 생긴 사나이로서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위압할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관료적이며 전연

억양(抑揚)이 없었다. 그를 향해서 인간적인 말을 아무리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사람 따위는 보이지 않고 오직 조사의 대상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V부인을 심문할 때『우리들은 당신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오』하면서 목록을 펼쳐놓고 1933년 이후 그녀가 지껄였다는 소위 온갖 반혁명적 회화내용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거기에는 친구들과 모였을 때 공산주의에 대한 농담이라든가 박물관에 갔었을 때 우스개소리로 한 말, 또는 그녀가 직장 노동자들 회합에서 레닌의 말을 농담쪼로 비꼬은 것이라든가, 외국어 공부,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회(照會)

「사건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검찰관이 맨 처음에 할 일의 하나는 피의자가 그전에 살던 곳에 조회를 하는 일인데, 관계 관청에 조회를 하면 피의자에 관한 상세한 조사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는 피의자의 소위 반혁명인 말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직업, 개인적 생활, 성격, 습관, 지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서신왕래에는 엄중한 검열을 하게 되고 만약 전화를 사용한다고 하면 교환된 회화는 모조리 녹음되는 것이다.

사진(寫眞)

피의자들의 사진은 항상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련사람이면 누구든지 국내여권을 받을 때나, 취직을 해서 신상조사서를 쓸 때는 일정한 크기의 자기 사진을 당국에 여러 장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수집이라는 것은 비밀경찰로서는 간단한 일이다. 만약에 무슨 이유로 어느 관청에도 그 사람의 사진이 없다고 할 때는 특별사진기사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방의 사진관을 조사해서 그 사람의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다니고 특히 비밀경찰은 피의자와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까닭은 그의 친구와 지인을 알아낼 수 있으며 나중에 물적증거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협력자(秘密協力者)의 選擇(선택)

검찰관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비밀 통보원들의 지인 리스트를 조사하여 만약 피의자를 알고 있는 통보원을 발견하면 그에게 그 피의자를 감시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비밀경찰은 다시 피의자의 생활방식이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감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 사람으로 통보원을 만들려고 하며 또한 근무처에서의 감시는 그의 동료 가운데 있는 통보원에게 위촉한다. (이와 같은 감시는 특무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의 친지 가운데 통보원이 없을 때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 자기 자신의 친구나 그렇지 않으면 친척들 가운데서 적격자를 골라 써먹는 수도 있다.

통보원은 피의자의 성격이나 생활양식, 또는 그의 친구들로부

터 어떻게 신뢰를 얻어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세한 지시를 받게 되는데 피의자가 용의주도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피의자에게 반소(反蘇)적인 말부터 걸어 보도록 지령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경찰은 통보원을 통해서 피의자의 일거일동을 모조리 감시하려는 것이며 그의 행동은 물론 그가 누구를 방문하였느냐? 누가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 다 기록되게 마련인데 설령 그 사람의 행동이 전연 반소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도 이러한 감시는 계속되는 것이다.

증인(證人)

비밀통보원의 또 하나의 임무는 피의자가 장래에 재판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증인을 물색하는 일이다. 그러나 비밀경찰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보원을 증인으로 잡는 일은 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폭로됨으로써 다시는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보원은 피의자의 소위 반혁명적 회화나 행동을 한 현장에 있었던 외부의 증인을 찾아내려고 애쓰게 되며 원칙으로 이러한 증인에게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구나하는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의자가 체포된 다음에야 비로소 호출되며 간혹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에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때는 비밀경찰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일체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되며 만약 그러한 서약을 깨뜨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볼 장을 다 보게 되는 것이다.

외래감시(外來監視)

소위 반혁명 행위를 다루는 보통 사건인 경우 즉 예방적 성질을 띤 경우에 (예방검거라든가 잠재적인 적을 박멸할 경우) 검찰관은 전술한 이상의 수단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진행도 상에서 비밀경찰은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만 잠재적인 적이나 반소적 농담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반소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앞에서 말한 진행 수단 이외에 외부감시(약칭NN)를 포함한 다른 수단을 부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비밀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키스트단으로 하여금 엄중한 감시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비밀경찰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건물에 들어 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상부에 즉시 보고하고 그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감시의 또 하나의 방법은 피의자가 항상 자기 뒤를 스파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자주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감시는 소위 반혁명 행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소련시민 뿐 아니라 소련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외부감시원은 피의자를 감시하는 한편 그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고 피의자가 들어있는 아파트에는 마이크로폰을 장치해서 거기서 주고 받는 말들은 모조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때로는 옆방에서 도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외부감시가 교묘한 수법으로 수행된 유명한 사건의 일 예로써 작가이며 정치가인 와시리 슈루겐이 관련된 사건이 있다.

슈루겐은 1926년에 반혁명 집단과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몰래 소련에 잠입하려고 결심하였다. 오·게·페·우는 그의 그러한 의도를 출발지에서부터 알게 되자 그가 국경을 넘어서기 전에 벌써「러시아 지하조직의 대표」로 변장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대표(?)는 슈루겐의 월경(越境)을 도와주고 전 여정을 수행하며, 지하조직의 멤버처럼 가장하여 소련의 정보를 그에게 제공하는 선동가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슈루겐은 옛날 친구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소위「지하조직의 대표」는 이런 회합에는 으레 입회하였다.

오·게·페·우는 슈루겐을 위험인물로 보지는 않고 그에게 소련의 정보를 제공하여 슈루겐이 수집한 자료를 출판하였을 때 그것으로서 궁극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비합법적으로 소련을 떠났으며 그의 소련 여행기는「세 개의 두문자(頭文字)」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슈루겐이 소련에 있을 때 자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가 떠나자마자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것이다.

도발(挑發)

도발이라는 것은 비밀경찰 활동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비밀경찰의 앞잡이 기관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단체를 국외에서 만들도록 원조를 하고, 열열한 반공주의자를 단체에 가력(加力)시켜 그들이「반공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소련에 파견되도록 공작을 해 놓고 그들이 소련 내에서 얼마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동조자가 공모자를 얻게 되면 이때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 숙청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비밀경찰은 소련 내에 있어서도 이와 꼭 같은 수법으로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을 이용한다.

제2차대전 전에 S.D. 파부로프가 창설하여 돈코삿크군 (공산주의자와 싸우도록 독일원조로 만들어진 의용군이 된「돈 지하조직」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노보체르캇스크에 있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의 노련한 비밀통보원이 단원으로 들어가 단원을 모집한다거나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비밀경찰은 이 정보에 의거하여 차례차례로 단원을 체포 단죄하였는데 이때 간부들 반은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조직이 많은 적극적인 반공주의자를 끌어들여, 그들을 잡아 내는데 있어 개별적인 통보원들 보다도 훨씬 유효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오·게·데·우는 1933년에 K라는 사나이가 거짓 신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소위 반혁명단체에 가맹하고 있지나 않는가 의심을 가졌다. 그래서 묘를 감시한 결과 별로 의심스러운 자료는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게 여자 비밀통보원을 부치기로 하였다. (그 여자는 K의 정부(情婦)가 되었다.)이리하여 그녀는 그와 더불어 지내는 가운데 그의 태도가 아주 반혁명적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반 혁명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썼으나 아무래도 뜻대로 되지를 않아 다른 통보원 한 사람을 K에게 소개하였는데 이 사나이는 자기가 어떤 반공단체의 일원이라고 속이고 K에게도 그 단체에 들어가도록 권유하였다. 이리하여 K는 드디어 그것에 동의하였으나 자신이 옛날 반소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원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K는 체포된 다음 비로소 검찰과의 심문을 통하여 자기의 정부나 반소조직의 단원이 모두 비밀경찰의 선동가였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비밀경찰이 묘와 그들과의 회화를 모조리 보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 두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밀경찰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처형할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소위 위험인물임에는 틀림이 없고 처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반혁명분자의 숙청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도발에 호소하는 것이다.

비밀경찰은 어떤 사건을 조사할 동안에는 여하한 법률규칙으로도 속박되지 않으나 일단 조사가 끝나면 수속이나 외견상 사건의 법률적 면을 정당화하여 그것이 소련 법률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한 일이다.

1937년 11월 말 필자가 한때 억류되어 있었던 세보스트라그(동북지방 노동수용소)의 로부야 수용소에서 세보스트라그 경비군사령관 피리모노프의 내방을 맞이하여 법석을 떤 일이 있었는데 피리모노프는 키가 크고 몸이 마른 사나이로 그때 경비군 제복을 입고 있었으나 지방관리 일행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우리들 천막으로 들어서더니 죄수들을 향해서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으며 수용소 생활에 관해서 두서너 가지 물어보고는 총총히 나가버렸다. 그는 이런 식으로 다른 천막도 둘러보고 나서 약 두 시간 후에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코리마 강을 따라 내려갔다. 이러한 피리모노프의 여행 목적에 관해서 노봐야지리앙카 격리수용소에서 같이 있게 된 T라는 죄수로부터 내가 진상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난 1938년 말이었다.

그런데 T의 말에 의하면 피리모노프는 그때 코리마 강 오른쪽 기슭에 있는 스레도비 코리무스크 부락과 암바루치크만에 있는 크레스치 수용소도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 수용소는코리마 금광에서 일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먹일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에다 저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크레스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반혁명자를 수용하는데 적당한 장소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리고 T는 이곳에 수용된 16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때 피리모노프는 잠시동안 수용소를 시찰하고 나서 이 지구의 경비대장을 데리고 나갔다가 두서너 시간 후에 경비대장만 되돌아와서 그와 평소에 친했던 죄수 몇 사람을 불러들이더니 피리모노프가 크레스치 수용소에 있는 죄수 전부를 이번 겨울에 총살하도록 자기에게 명령하였으며 단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 그룹씩 해치우라는 것인데 자기로서는 이러한 끔찍한 명령을 실행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의논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모두 신중히 계획된 도발에 틀림 없었다.

이렇게 해서 급거 소집된 회의에서 폭동이 결의되고, 경비대장의 응원을 얻어 죄수들은 경비원들을 위병소에 감금한 다음 방송실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몇 사람의 죄수는 즉시 베링해협 방향으로 도망해서 아라스카로 건너가자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스키도 없고 방한복도 없으니 오는 봄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났는데 드디어 크레스치 근처에 폭격기 1개 중대가 착륙하였으며 비행기로 온 KKVD의 대표는 수용소에 들어서자 반란자들의 항복을 요구하면서「만약 거부 한다면」우선 대표들만이라도 우리들이 가져온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러 비행기 있는데 까지 오라!」고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반란자들은 결국 항복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그것은 눈에 덮인 광막(廣漠)한 쓴도라에서 경비대에게서 탈취한 소총 따위로 폭격기를 상대로 하여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죄수 전원은 항복하여 무장 해제를 당하고 증원된 위병들에 의해서 바락크에 유폐되었으며 그로부터 차례로 불려 나가 몇 사람의 검찰관으로부터 간단한 심문을 받았는데 그날 하루 동안에 폭동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의 심문이 끝나자 그들을 격리 감금하였으며 T는 열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들었다.

그날 밤에 T는 반란자 전부가 밖으로 끌려 나와 군대식 대형으로 짠 일단에 인솔되어 코리마 강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벽 틈새로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위병들이 강 쪽에서 죄수복을 썰매에다 가득 싣고 돌아왔다. 이리하여 나머지 열 명의 죄수들은 밖으로 끌려 나와 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의복정리 작업을 하였는데 그 속에는 생생한 혈흔과 탄환 구멍이 뚫린 것이 많이 섞여 있었다. 작업이 끝나자 T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노뵈야 지리앙카로 끌려와서 심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투옥되고 말았다.

그 후 T를 비롯해서 나머지 아홉 사람과 경비대장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는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체포(逮捕)와 수색(搜索)

검찰관은 피의자를 적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또는 피의자가 도망을 기도하거나 소련 공산정권에 반항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소위「예방수단의 채택 및 고소의 제시에 관한 명령」이라고 부르는 체포명령을 작성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는 정치경찰의 체포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제104건의 주역으로「국가보안부(게·페·우)에 의한 체포의 수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 규칙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을 뿐이다.

그런데 비밀경찰의 활동 가운데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는 검찰관이 발하는 체포명령은 그 조사지시를 내린 부문의 장으로부터 시인되고 지방비밀경찰본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되며 또한 국가검사로부터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통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공식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체포명령장에 정보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둔다.

때로는 체포 명령이 조사 결론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의심스러운 특수한 인물들의 체포를 명령하는 중앙당국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대량검거는 테러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데 이것은 소련 법률에서조차 권외의 행위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키스트가 취하는 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임시구류(臨時拘留)라는 것이 있는데 체포의 법률적 근거를 정당화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자료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고백을 피의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비밀경찰은 피의자를 임시구류하여 소위 예비구류소에다 집어넣는 것이다.

1937년에 V라는 학자가 직장특무부에 호출되어갔는데 특무부장은 그에게 NKVD 본부까지 같이 가자고 해 놓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그를 방에다 유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심문 때 검찰관 오디노코프는 V가 어느 스파이망에 속하고 있다는 자백이 들어있는 심문기록을 미리 준비해놓고 여기에 싸인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때 검찰관은 말하기를『사인을 하면 5년이다. 안 해도 좋지만 10년이 된다』고 하였으나 V는 이것을 거부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그다음 심문 때 검찰관은 다시 한번 V의 싸인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체키스트의 심문을 통해서 V가 안 사실은 소위「인민의 적」이라 하여 앞서 검거된 동료의 처자를 그 도와준 사실을 NKVD가 탐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NKVD가 V를 소위 유해분자 안에 포함시켜 체포하는데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노령과 학자로서의 명성이 확실히 그 운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협박당하면서 몇 번이고 심문을 받은 끝에 열흘 만에 석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류 중에 꾸는 우연히도 검찰관 오디노코프와 NKVD 관리가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 놈은 싸인 했는가?"

"천만에, 할께 뭐야!"

"그렇다면 늙은이를 내쫓아버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임시구류가 굉장히 오래가서 전술한 것처럼 그렇게 용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하나의 실례로서 하루코프 교외의 트카첸코라는 학교 교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소위 국내전때 자위군의 명령으로 그들이 발행한 문학서적을 생도들에게 배포한 일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는 체포되었다가 얼마 후에 그를 잘 아는 노동자들의 주선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1920년경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집단보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트카첸코 사건은 정치경찰 자료목록에 보존되고 그는 소위 해적(害敵) 색인에 기재되고 말았다. 그는 소위 1937년에 이르러 NKVD는 다시 그 사건을 생각해 내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소위 반혁명적 경향의 물적증거로서 표지에 경기병의 그림을 그린 자위군대의 행진곡 악보와 적색혁명 이전에 발행된 니바라는 잡지, 그리고 트카첸코가 학교시절에 받은 상장을 압수한 다음 NKVD까지 와서 석명(釋明)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그의 아내는 이러한 석명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무슨 까닭으로 구류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신고하자 그자들은 간단히 한마디로「그는 인민의 적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NKVD는 그를 끝까지 조사할 수는 없었다. 교직자로 일생을 바친 70세의 트카체코는 끝내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다.

사건을 꾸며낸 검찰관이 으레 수색과 체포에 참여하며 체포한 사람의 취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이 비밀경찰이 취하는 수법의 특이한 점이다. 가장 전형적인 체포 방법은 한밤중이 지나서 피의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미리 외부감시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집에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집을 수색할 때는 직접 물적 증거뿐 아니라 편지, 일기, 사진, 서적 등 그들이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모조리 압수하는 것이다.

항공기 설계자 트페리오프의 조수였던 몰겐슈테른은 파시스트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되었다. 그것은 트페리오프가 그에게 빌려준 독일 항공기술 잡지로서 그 속에는 나치스의 문장도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한 번 읽어보지도 못했으나 집을 수색 당했을 때 이 잡지가 압수되어 소위「고발의 물적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색을 통해서 압수된 물건들은 전부 비밀경찰본부에서 면밀한 검사를 받게 되며 그들은 설사 그것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써 피의자의 의견이나심리적 상태, 지인들에 대한 관념을 끄집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밤중에 사람을 체포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집에 있음을 노리는 것뿐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고 그의 사기를 꺾기 위한 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색결과 쓰여지는 기록에는 전 물적증거가 상세히 기입되고 수색을 지휘한 검찰관과 수색을 담당한 사람 및 두 사람의 증인이 싸인을 하게 마련인데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집의 관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생각되는 이웃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흔히 쓰여지는 체포 방법으로 서는 피의자를 비밀경찰 본부로 호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호출할 때는 시간과 출두할 방의 번호를 기입한 특별 통지서에 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무부를 통해서 구두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덧붙여서 체포를 비밀히 하고자 할 경우에 비밀경찰은 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 하나의 예로써 V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을 때는 사람 기척이 없는 부두 일각에서 체키스트들이 포위를 하고 인상을 확인한 다음 그에게 국경경비대원 제복을 입혀서 끌어갔던 것이다.

〈이 록 재〉

풍 선 파 도(風船波濤)

화(畵)·문(文)
천 경 자(千 鏡 子)

창경원 가는 길모퉁이를 지날 때다.

오월의 하늘은 푸르게 개인 것이 아니고 무겁게 처져 있었다.

한 젊은 상인이 풍선처럼 다양하게 모아 묶은 조화 묶음을 한 손에 높이 들고 있었다.

나리꽃, 벚꽃, 민들레, 포도송이 등의 조화가 독특한 빛을 뿜어 화잠(花簪)처럼 보이는 게 처진 하늘빛과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광장의 인파와 잡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용한 향수들 일깨워 주었다.

아주 내가 어릴 때 일본사람 집 채앙의 부채살 같은데 꽂인 벚꽃의 화려한 조화가 등불에 부조된 아름다운 축제의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보통학교 운동회 때 손수 만들었던 장미꽃이라던가 별의 관…….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치졸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겠지만 그 무렵의 나의 어리고 맑은 마음과 눈에 투영된 빛깔과 아름다운 잔치는 지금까지 역력히 내 뇌리 속에 향기로운 인생의 단막극처럼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애들이 십 원짜리를 그 사나이에게 주고 한 송이 한 송이를 빼어가는 화잠(花簪)같은 그 조화를 보고 숨 막힐 듯한 인파에 밀리면서도 그러한 유상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또 쌀값이 어떻고들 하는 현실의 괴로움을 망각하고 그러한 곳에 마음을 쏟는 내가 분명 바보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나대로 그만큼 고도한 에고이스트라고 스스로 버티어 본다면 그건 나의 서글픈 오만일까?

아이가 졸라대서 풍선 하나를 샀다.
팽창해서 3원색이 약간 탈색한 듯 조명한 한 풍선,
예나 지금이나 이유없이 가져보고 싶어지는 풍선이다.

어린애가 단꿈에서 깨어 발을 기분좋게 부비고 가까이 엄마의 기척을 느끼며 포근히 요람속에 다시 잠든다.
푸른 하늘이 맑다.
그리운 엄마의 동작은 어린애의 시야에 펼쳐진 하늘에까지 번져 그 향기가 강하다.
어른의 처지에서 볼 때는 풍선과도 같이 허망한 행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그 행복한 회억(回憶)들이 때때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하는 생리의 파도같은 인생촌극들이 밀려오고 밀려가곤 하는 것이다.

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 ⑦

고노인(高老人)의 은혜(恩惠)

이 준 수

부상을 입고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려는 순간 하반신(下半身)에 강한 통격을 느끼며 쓰러져 다시 정신을 잃었다. 옆구리와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얼마나 그러고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낙엽이 쌓여있는 어떤 동굴 안에 눕혀져 있었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나를 이름도 모르는 유격군이 이곳에 갖다 놓은 것 같다. 괴뢰군 복장을 하고 구해준 사람을 볼 때에 처음에는 놀랐으나 나중에는 아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신이 들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었다. 혹시 내장(內臟)이라도 관통당했으면 만사 그만인 것이다. "정신 좀 차리시오" 전우들이 흔든다. 그러나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하여 물 좀 달라고 소리쳐도 발성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왼손을 들어 입에다 대고 물먹는 형용을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애를 써가며 물을 달라고 애원해도 그들은 물을 주지 않고"동지는 지금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시 오" 할 뿐이었다. 얼마 후 우리가 들어 있는 동굴 안에 괴뢰군 복장을 한 일명의 유격군이 나타났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놈들이 또다시 이곳을 토벌하러 온다는 정보를 말했다. 나는"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들의 바지를 잡고 늘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말없이 이동할 준비만을 갖추고 있었다. 이윽고 준비가 완료되자 내 앞에 한 사람이 와서 "동지는 이곳에 있으면 구원해 줄 사람이 올테니 그대로 이 자리에 누워 계시요"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총을 메고 일어섰다. 나는 이때에 " 나의 총은"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려 했으나 마음뿐이지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3명 중 한 사람이 돌아서며 "동지의 총은 여기 있으니 가지고 가시오"하면서 내 앞에 총을 들어 다 놓고는 밖으로 나갔다.

고상훈(高相勳) 노인을 만나다

아 지독한 동지들이다. 아무리 토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이곳에 그대로 버려두고 간단 말인가 나는 이마로 땅바닥을 쳤다. 땅이 꺼지게 나오는 긴 한숨 —. 혼자남은 나는 쓰라린 상처를 움켜쥐고 엎드려 신음하고 있을 때 유격군의 연락을 받은 산 밑 마을 어느 고마운 노인이 나를 구하러 왔다. 이름을 고상훈(高相勳)이라고 하는 그 노인은 자기 집 뜰 안에 파놓은 움막 속의 땅굴 속에 나를 숨겨 주었다. 그러나 괴뢰군들이 돌아다니는 그 땅에서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의 상처는 더욱 악화해 가는 듯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의 옆구리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썩어가는 나의 옆구리, 그 위에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질퍽한 땅속으로 얼어들어가는 몸뚱이 그 부식(腐蝕)되는 부분이 차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고노인은 형편없이 모자라는 식량(강냉이 수수 조)으로 죽을 먹어 가면서도 하루에 두 번 쌀밥을 한 주먹씩 가지고 움막 속으로 왔다.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는 캄캄한 땅속에서 나의 몸이 썩어가는 줄을 꿈에도 모르는 주인은 얼마 안 가서 걷게 될 것이라는 나의 대답을 곧이 듣곤 했다. 고노인네 가족들은 참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하여 주었다. 가족이라야 세 명뿐이었다. 아들은 일사후퇴시 남한으로 피난을 가고 현재 집에는 두 노인과 열두 살 난 딸 하나가 있으나 나이 어린 딸은 내가 방공호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움막에서 지나간 세월이 벌써 수 주일, 내일이면 입춘(立春)이라고 밥을 들고 들어온 고노인이 말한다.

"여보게 참 안 됐네. 입쌀을 구하려 해도 이 산골 빈촌에서는 어디 쌀을 구할 수가 없구만" 하고는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들고 온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다가는 "아직까지 하루에 두어번씩 준 쌀밥은 진둥단지(초가을에 독에다 쌀을 넣어두고 종이로 그 독을 감아두었다가 초여름 모내 는 날 꺼내서 일꾼들에게 밤을 해 주어야 농사가 잘된다는 일종의 미신 (迷信)적인 한 풍습)의 쌀을 꺼내서 해 주었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주먹씩 꺼내던 것이 어제로 독바닥이 보이네."하는 것이었다.

"아저씨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만도 아저씨 덕분인데… 아저씨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네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한숨을 길게 쉬고는 "우리 걱정은 말게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나, 어서 먹게. 물론 좁쌀밥이 돼서 딱딱하겠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움막 속에서 받아든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반 주먹 가량 남겨서 도로 내보냈다. 혼자 누워서 그 노인을 생각하니 내 자신이 자꾸만 미워졌다.

아마 나 때문에 두 노인과 어린애는 굶기를 먹듯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배고파 우는 것 같은 어린 딸과 나 때문에 언제나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보겠다고 허덕이며 돌아다니는 고노인. 그들의 모습이 자꾸 나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약을 상처에 바르게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노인이 손에 무엇을 싸가지고 들어왔다. "이 약을 상처에다 바르면 얼른 아문다는 데 한번 발라보게, 어제 한약방 영감님한테 배웠지"나는 깜짝 놀라"어떻게요"하고 반문했다. "내가 지금 겨드랑 밑에 조그맣게 종기가 난 것을 핑계로 해서 얻었네. 너무 염려할 것 없어. 나두 그만한 요령은 다 있네. 그 영감 보고 그 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조금 주면서 이러지 않겠나. 아 그 풀은 구하기 쉬운 조방가새(小薊)야. 그것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바르면 그런 상처는 직효라 하지 않겠나…" 하면서 방공호안에다 반디불 같은 불을 켜 놓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빛(光)을 못 이겨서인지 반디불 같은 빛에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어서 상처를 풀라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도 한참 주저하며 생각해보았다. '썩어가는 이 상처를 아저씨가 보시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 끝에 " 아저씨 두고 가시면 제가 나중에 바르겠습니다" 했다. "아 글쎄 손도 잘 안 닿고 볼 수도 없는 곳을 어떻게 혼자 바른다고 그러나" 하시면서 상처의 헝겊을

끌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죽은 시체의 일부분을 들쳐 보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감았던 헝겊을 다 끌른 아저씨는 "아니!" 하며 크게 놀란다. 나를 다시 본 고노인은 찌푸렸던 얼굴을 펴면서 "아— 퍽 경과가 좋구만" 나를 위로하려는 말이었다. 그리고 상처에 초약(草藥)을 바른 다음 그 위에다 소나무껍질로 덮고 긴 헝겊으로 상처를 감으면서"초약도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말게. 다음에는 상처를 좀 씻어야 하겠는데…"하면서 허리를 잡고 일어서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아픔은 만성이 되어 별로 느낄 수 없었는데 약을 바르고 난 후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픔이 엄습했다. 아무 생각 없이 고통을 참으려고 꼬부린 허리를 손으로 움켜쥐어가며 참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리같이 차가운 땀이 이마에 솟았다. 어느 때인가 아픔이 가시는 듯한 기분에 잠이 들었다.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눈을 뜨고 보니 팔목에 늘어진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켰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알기 위해선 밖의 방공호로 뚫린 유일한 구멍을 조금 열어보아야만 알 수 있었다. 움막에 뚫린 조그마한 구멍을 열고 그 구멍으로 눈동자를 돌리고 있었다. 밖에는 아직 완전히 어두움이 가시질 않았다.

그러자 방공호 입구에서 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웬 사람인지 주위를 살피는 듯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인아저씨가 온 줄 알고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방공호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질겁을 하여 움막문을 닫았다. 방공호로 뛰어 들어오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무슨 소리인지 한 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숨을 죽여가며 배를 깔고 총을 잡았다. 이 총이 발사 될런지는 나도 누구도 모른다. 총도 내 몸과 같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들리는 소리는 뜻하진 않았던 중국말, 중공군이 왔다.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순간이 얼마 되었는지, 놈들은 들어도 뜻도 모를 말을 지껄이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났다.

몇 시간 후에 밖에 있는 방공호에서 "나야 나!"하고 문을 조금 열며 고노인이 불렀다. 문 옆에 귀를 기울이니"여보게 조금 전에 혼났지 되놈들이 수없이 이 동네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지 아까 되놈들이 방공호에 들어갔을 때 건너 동네에 폭격을 했어, 사람도 많이 상하고 집도 타 없어진 모양이던데, 그리고 되놈들도 죽은 모양이야" "물론 죽었겠지요, 그놈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인데요" "아 그놈들야 어데 그렇게 잘 죽나, 글쎄 동네 방공호에는 되놈들이 꽉 찼댔지, 방공호를 판 주인네

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고 방에서 이불을 쓰고 있다가 죽었지 뭔가, 그리고 자네 조심해야 하네 비행기가 또 날아오면 되놈이 방공호에 또 올지 몰라" "네, 아저씨 명심하겠습니다. 아저씨,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갔으면 되놈들은 오늘 저녁 다른 곳으로 갈런지도 몰라요"나의 추측이다. 고노인은 떨리는 소리로 "여보게 약 바르려고 하던 거 되놈들 간 다음에 치료하세." 하고는 소리도 없이 나가버렸다. 고 노인의 말을 듣고 무엇인지 모르는 희열감에 혼자서 웃었다.

되놈들이 주둔한 지 불과 수 시간에 폭격을 당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 근방에 아군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되놈들은 추측한 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며칠이 지난 후 들어오려니 생각도 하지 않았던 때에 두 노인네가 들어왔다. 아주머니가 들고 온 것은 뜻하지도 않았던 화학주(북한동포들이 부르는 카바이트술) 한 병과 솜이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켜 놓고는 나의 상처를 화학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다. 죽는 것이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죽을까,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술로 상처를 닦는다. 이 아픔을 어떻게 참을까 소리쳐 호소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치료가 며칠 계속되었다. 이렇게 치료한 덕분인지 썩던 상처는 아물러 붙게 되고 나는 벽과 지팡이를 의지해 가며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상처에 뜨거운 기름을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후 옆구리의 상처가 다시 덧나기 시작했다. 치료를 중지했던 고노인도 나의 상처가 재발한 것을 알면서도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볼 때마다 다 낫다 다 낫다 해 왔으나 크게 재발하는 상처를 그냥 두고 보기가 난처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치료 방법을 수소문했다. 하루 밤에는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참기름을 끓여서 상처를 지지면 낫는다는데 생살을 지지는건데 꽤 참을 수 있겠나?" "약한 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참을 수 있을런지 의문이야" 이 말에 나는 무섭고 떨리기는 했지만 이 아픈 고통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삼일이 지난 밤이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 미리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는 참기름을 끓여서 덧나기 시작한 옆구리의 상처에 다 끓은 기름을 솜방망이에다 묻혀서 문지르더니 나중에는 끓은 기름을 상처에다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감각 없이 누워 있었다.

(차호(次號) 계속)

예절은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태세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둘러도 그것은 어색할 따름이다. 예의와 친절의 에티켓이 부드럽게 교환되는 데서 우리 일상생활이 명랑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 이하의 상식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처럼 메마른 인정이 거리 거리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일까?

가난한 살림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화기롭고 단란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거늘, 이른 아침부터「째려보고」「공갈 때리고」「어깨를 재는」 살인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국가의 장래에 희망을 걸고 즐거운 일터로 나갈 의욕과 기쁨이 용솟음칠 수 있을 것이랴!

저녁이나 아침 신문을 받는 길로 펼쳐 들고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살인, 강도, 자살, 정사, 집단 음독, 폭행, 난투극, 어린이 유괴사건의 연발과 이에 따르는 공갈, 협박, 사기, 경향(京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와 사진들!

물론 이런 현상(現象)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회상(社會相)도 아니며 또 반드시 오늘에만 있는 죄악상도 아니겠지만, 건실하고 희망에 가슴을 부풀게 하는 명랑한 보도와 비교하여 그처럼 어둡고 슬픈 보도가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르는 그리고 취재 보도의 신속화에서 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문제는 거기서 그칠 일일런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기에는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싶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큰 움직임이 있기를 은근히 갈망하고 있는 터이다.

이처럼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여 나갈 일꾼이 요청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 그 미더운 모습을 언제나 우리 젊은 세대의 학도와 장병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기쁨과 신념 밑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당황하게 수신(修身), 제가(齊家)의 해설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다운 한 인간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이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한마디. 이지러져 가는 도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래의 양심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밝은 공동사회를 위한 예의의 준수,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의 친절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큐의 여행이야말로 이처럼 날로 복잡해가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함을 통감하는 바이다. 인구의 증식(增殖)으로 앞으로 더욱 생존경쟁은 심해 갈 것이니, 모름지기 근면과 노력, 서로 격려하고 부조 협동하여 가난을 극복하여야 한다. 실망, 자포와 질시, 중상과 강탈, 살상은 자멸의 길을 재촉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겐 좀 더 평화로운 표정, 여유있는 언행,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느님의 복 받는 백성까지는 채 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생(生)을 누리게 된 이상엔 그 의무를 다한 보람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신록사기(新綠私記)

고 은
〈시인〉

산승(山僧)은 약석(藥石)(석식)을 마치고 삼십 리 인사(隣寺)에 간다는 것이다.

저녁나절에 산길 삼십리라면 귀소(歸巢)의 붕정(鵬程)에 비길만하다. 나도 지금 와서 그렇게는 싸 다닐 수 없지만, 전에는 그 이상도 했다. 하루 백리 길이 도보의 여수(旅愁)를 더듬자니 몇 번 있었던 듯하다.

겨우 년치(年齒) 약간세(歲)에 느닷없이 노화현상이라도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달리도 아니다.

다못 질펀하게 떠돌다가 일박(一泊)한 데가 이 도회요, 이곳에 잔뜩 뿌리가 뻗어나서 다 른 곳을 생각으로만 가게 되니 식후삼십리의 건각(健脚)도 도태된 것인지.

편력의 운수승(雲水僧)은 여름구름을 이마로 받고 구도의 여인이 된다.

그의 몸은 구름에 두고 그의 마음은 흐르는 내에 다 띄워 버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한낱 농세객(弄世客)의 허소(虛笑)로 관하는 바이다.

어제 구력(舊曆) 4월 보름은 결제일이다.

운수(雲水)의 객승이 선원(禪院)에 모여, 돋아난 한 그루의 풀포기에도 정을 붙이지 않은 채 면벽의 수행이 시작되는 날이다.

나는 불전에 여러 망축(亡祝)을 드리고, 절 안의 쓸쓸한 신록이 돋우어 주는 대로 소요에 나서랴 싶었다.

신록은 나에게 아무런 과거도 데려다주지 않는다.

절의 석원(石垣) 아래 창포가 주욱 피어서, 오늘도 오늘도 나를 보고서 바람을 탈 뿐이다.

선학원(禪學院)의 주지는 아침마다 북공원을 돌아서 오곤 하는데, 나도 제후(齊後) 입정(入定)의 일각에 노닐다가, 벌떡 나섰던 것이다.

삼청(三淸)공원에 오랜만에 가 보았다.

삼청은 수청(水淸) 풍청(風淸) 또 무슨 청해서 부른 고동(古洞)이다.

이곳은 공원이라기보다 동산같다.

빽빽히 들어서 있는 데도 있고 드문드문 한양백토(漢陽白土)를 들어내 놓은 염병짜리 언덕바지도 있다. 모두 초라한 산보로(散步路)가 동사(動詞)로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 공원의 아카시아 숲은 아직 잎이라고 할 수 없는 자디잔 눈잎들이 나서 얼얼할 따름이고, 그녀도 약수터 잡목림이 그릴 듯한 신록으로 덮였다.

한 편의 시가 될 수 없는 공원의 저녁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산소(酸素)가난이다.

배기가스의 기상화나 스모크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제 고궁의 후원이나 공원의 녹지대가 단순히 산책의 무드를 자아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산소급급의 푸로레타리아트가 갈망하는 꼴이 되겠다.

을 봄은 봄이 가는지도 몰랐다.

어제오늘 안국동 윤씨가의 울안에 피어 있는 고가의 목련화 한 그루의 정중한 꽃을 대해 보았을 뿐인데, 벌써 내의가 얇은 것이 편한 판이다. 그리고 보니 입하(立夏)를 넘겼다.

사람은 시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달리기 마련이다. 더구나 봄 여름의 서한과 같은승화시(勝花時)를 나들이 한번 없이 들어 배겼다는 것은 어쨌던 체할 노릇이었다. 그것이 수행이 아니고 번민 때문이었을 때야말로‥‥

하도 어이없는 말세파라고 하니 괜히 나도 그리 여겨지고 말거니와 이러다가 교외 우이동 산장의 은사댁이나 장미원의 주인 한 번 찾지 못하고 그냥 오다가다 실없이 신록 한 오큼을 대하면 내 손길이 저절로 늙는 것 같다.

내가 태어난 철이 여름이다.

이상(李箱)의「권태(倦怠)」가 있기에는 아직 이른 신록시대에 나는 벌써 범신론(汎神論)적인 권태에 사로잡혔는가 싶어, 난색이다.

이것도 버스데이 케이크 위에 묻은 버터쯤으로 알아 둘 일이기도 하다. 저녁 공원에서 나는 그림자도 없이 장안(長安)의 만호(滿戶)를 내려다 본다.

꼭 눈을 뜨고 살다가, 갑자기 저녁 어스름이 오면 피곤해지는데, 그때 일시에 가득찬 등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네온 만세라고 해보니까 그 뒤는 싱거운 낙서같다.

저 남산기슭의 사파(娑婆)를 보아라, 하고 혼자 보았다. 내 눈이 사파였다.

이 동산의 공원에는 나의 껄껄한 추억이 있다.

이제 와서 어떤 발흥이 되는 것도 아니 건만 과(過)인연의 치마자락에 잠깐 멈춰 본다는 메모가 소년적이어서 자각해 보았다.

어떤 악운과 같은 여인과 밤마다 만나던 곳에 이르렀다.

여름 밤의 숲 속에서 밀어도 아닌 갈등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었다.

그때 그녀의 스랙스가 몹시 알맞았다고 좋아했었다.

우리는 이 공원의 가파로운 언덕이 몹시 불편해서 한 수목의 아래에 다진 바탕을 찾아 내었던 것이다.

겨우 피신의 안정을 얻어, 거기다 옷을 펴 깔고 누어서 서로 다투고 풀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처럼의 산책이 회고조가 되어버려서 쑥이었다.

지난날을 띄워 훌훌 불어 버리다 보니 바로 우리가 누워 지내던 곳에 인기척이 다 없어지는 것이었다.

인기척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려서, 가 보았다.

나는 질겁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가마니 한 장에 덮여 있는 것이었다. 걷어 보았다. 한 청년의 노란 시체였다. 바로 이 수목의 가지에 목을 매달고 간밤에 죽은 것을 새벽에야 누가 보았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다.

시체는 아직 검사지휘 때문에 그곳에서 더 누워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염불을 해드리지 않고 무언가 중얼거렸다.

이미 어둠에 얹힌 싱그러운 신록을 향해서 아득한 만가(挽歌)가 들려 오는 것 같았다.

연인과 누었던 그곳에 이제 사인(死人)이 누워 있었다.

문득 서울의 중심부의 훤한 밤을 바라보았다.

온갖 등불이「무덤의 아파트」를 밝혀 주고 합사탑(合祀塔) 꼭지에나 달린 네온이었다.

일인일묘의 저승이었다.

나도 저 저승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등에 배인 땀이 참 다정해진다.

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엑스펜스도 없이 도피든지 탈피든지 다 원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공허에서 시작한다.

그때서야 그 시체의 명부를 빌었다.

그러면서 그 고인과 더불어 신록의 공원에 더 있고 싶었다.

토요일(土曜日)의 양식(良識)

조 병 의(曺 秉 懿)
〈성남고교 교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였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싸감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T.S 엘리올

4월은 어딘지 불안이 숨어 있다.

4월의 불안은 결코 엘리올의 〈황무지(荒蕪地)〉에서 오는 그러한 설레는 불안이 아니더라도 아직 겨울의 냉각이 남아 묘목(苗木)을 괴롭히는 비바람 때문이다.

너무나도 자기 분망에만 골몰되어 변덕지게 보내야 하는 4월의 초조나 희롱에 비하면 5월은 확실히 안정된 계절의 시작이다.

피워야 할 꽃은 활짝 피워들고 솟아야 할 나뭇잎은 마음 놓고 홍청인다.

사람도 겨우 5월달에 들어서서야 겨울 옷을 손질해 두게 되고 개구리도 눈꺼풀에 묻은 흙을 개운하게 털게 된다.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연 5월 초의 신록은 얼마나 청량한 기품인지 모른다.

나도 허물없이 4월의 불안을 벗는 기분이다.

오전 중에 내린 실비에 가로수도 잔디도 수세미질한 것처럼 말끔히 개어 보인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나의 발밑 모래알도 살아 있는 듯하고……

이러한 날에는 늘 거닐던 길을 15도만 변경하여 거닐어도 느낌은 달라진다.

나는 지금 어느 대학 앞뜰에 열어놓은 시화전(詩畵展)을 찾아가는 길이다.

항상 너줄하니 오가는 학생들의 이맛살을 좁히게 하던 게시판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포기포기 아름다운 시화(詩畵)가 담겨있는 누구와의 의논도 없이 한 포기의 시화 앞에 서 있으면 모든 세상은 잊어지거나 승화(昇華)되어 그 시화 속에 안기거나 한다.

그러나 시도 그림도 꼭 같이 어렵다.

어려운 지점에서 작자의 이미지나 기교에 취하여 말없이도 말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반갑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어느 시기까지 기다려 보면 결국 다정해지듯이 어려운 토요일의 시화 앞에서는 그러한 교류(交流)를 예산하고 있어야 한다,

자연은 한동안 내가 부재되어 있는 대로 존재하다가도 내가 뒤늦게 찾아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만, 요즈음의 시나 그림은 그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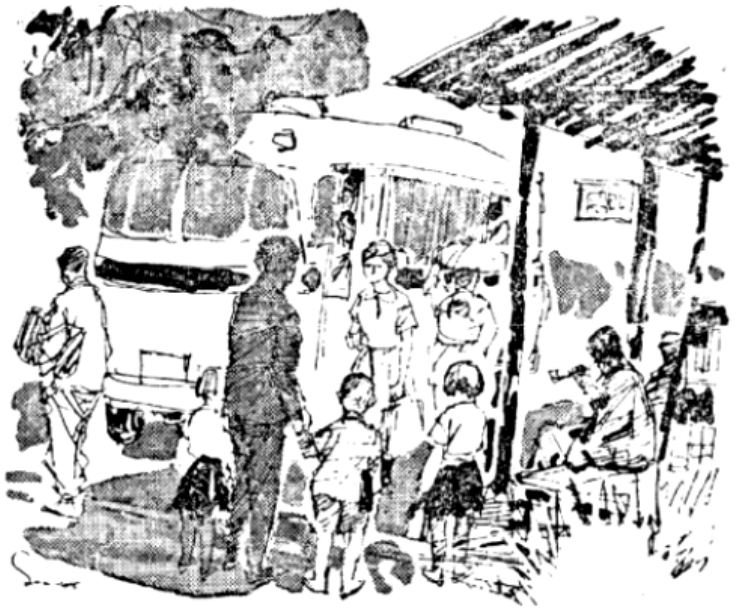
계속적인 접근이 없을 경우 다음의 시도 다음의 그림도 이해하기는 썩 힘이 든다.

이때 나는 완전한 미아(迷兒)가 되고 시대의 낡은 화상이 되고 만다.
즉 칸나가 여름에 붉고, 은행잎이 가을에 물들어 노래지는 것은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차이가 없겠지만 시의 10년 전과 그림의 10년 후와는 퍽 달라진다.
나는 오늘의 이 시화전에 들리지 않았던들 다음 계단에서는 더한층 당황하는 빛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시판 앞에는 3, 40명의 사관학교 학생들이 나보다 미리부터 시화에 젖고 있다.
한 포기 시화 앞에서 단정한 차림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꼭 시화에 묻힌 까닭이다. 일주일의 피로를 시화에 푸는 그들의 몸에서는 육중한 포화(砲火)가 아니고 엷은 오랑캐 꽃이 피어날 것 같고 그들의 가슴에서는 반짝이는 훈장이 아니라 활짝 핀 코스모스가 흔드는 듯 고왔다.
사람의 집단을 헤쳐 고요한 길을 찾아 시에 취하는 것은 한 마리의 꿀벌이 한 송이 모밀꽃이라도 담뿍 안고 단맛에 젖어 버리는 하루와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은 적진 속에서도 시정이 울어나 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인정도 시정(詩情)이 아니고는 감당키 어려운 때가 많다
더욱이 오늘에만 살지 않고 항상 내일을 향하여 정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토요일은 그대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간이 되게 하는 부드러운 요소가 아닐는지.
그러나 시는 고독한 때가 많다.
지식이 고독한 것처럼, 그 까닭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기> 위하여 생명이 고딘 때문이다.

◎이명동인(異名同人)

영국의 어느 신문이 쇼에게 현재의 가장 훌륭한 작가 12명의 이름을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쇼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1. 조지 버나드 쇼
2. G 버나드 쇼
3. G B 쇼
4. 조지 B 쇼
5. G B S
6. 버나드 쇼
7. 조지
8. 버나드
9. 쇼
10. 조지 쇼
11. B 죠오지 쇼
12. 쇼 죠오지 버나드

이상 12명은 명백한 이유에서 감히 비판을 가하지 않음.



<소 설>

따뜻한 손

최 태 응(崔 泰 應)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노릇인지라 영애(永愛) 자신이 얼병병 했다.
설혹 "내가 가겠다"고 스스로 응락을 해서 결정된 일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른 1, 2주일간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들 영애는 곰곰이 생각할 겨를을 갖는데 따라 여러모로 망설였을 것이며, 몇 번이나 결심을 뒤집었을른지 몰랐으리라.
자연 마찬가지 결과대로 어떻든 그가 응낙한 대로 안내자 겸 교장을 따라나선다고 해도 혼자 몇 번이나 "안간다""그만둔다"는 결심을 속으로 되풀이 했을른지 모르지만 십중 8, 9는 그냥 주저앉았기가 옳았을 것이다.
하여튼 이야기가 건네지자 대뜸 "가겠노라"고 "정말이냐?"는 물음에 거듭 "정말이라"고 다짐을 했던 사실로서

놀라우리만큼 교섭이 이루어진지 사흘만에—실은 첫날 당장이라도 영애는 떠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것이지만— 영애는 그 시골 교장이 생전 두 번째 찾아온 날 오후 버스로 따라나섰던 것이다.

사십을 갓 넘은 나이라 하나 역시 사십을 갓 넘은 오빠와 서로 이놈, 저놈하고 지껄이는 품을 보기가 안되었을 만큼 교장은 덜 늙은 모습에 시골티와 고생끼가 푹 젖어 있었다.

중학 동창이라는 오빠와의 연고도 범연한 조건이 아니려니와 전형적인 도회의 지식인 타입에다가 고생과는 먼 거리의 생장과 닳고 닦은 칠피와도 같은 오빠와 비교할 때 영애는 어딘지 모르게 솔깃하니 기우는 마음에 끌린 셈이기도 했다.

게다가 "너 정말 저 친구네 두메산골의 옛날 서당 같은 소학교 선생으로 가보겠니?"하고 뜽구치는 투로 곁드는 오빠에 의해서 영애는 "가면 가죠 머 전 그런데 가서 못 견딜 것 같아요?"하고 제물에 맞섰던 입장이 기실은 되려 앞뒤를 재어 볼 겨를을 없이한 채 응낙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셈이었다.

여하튼 영애는 서울을 떠났다.

3백 리를 헤아리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가 정작 멀어지는 서울에의 감회와 더불어 시야를 감싸 안고 무한정 낯설은 고장으로 달리는가 하니 불현듯 불현듯이 두려움 섞인 외로움이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영애는 미리 방비책으로 마련해 두었던 것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체험과 사실상 학창을 나와서 처음이자 스물다섯 인생에 또한 처음 경험이되 그것은 항용 있을 수 있는 경험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의미요, 고생이요, 보람이오, 자랑이기도 했던 그 1년 동안의 행각과 수난까지를 눈앞에 되살려 보면서 주욱 마음도 따라 결국은 흐믓한 위안과 이김으로 통하는 결심으로 이끌어 갔다.

"정말 형편없는 시골이지"

묵묵히 눈을 감고 흔들거림을 음미하는 양 말이 없던 교장이 몇 마디째인가 꼭 같은 말을 꺼냈다.

그때마다 영애는 상긋이 웃음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번번이 지난해의 체험을 둘러대서 자신을 달래고 용기를 일깨웠던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기 마지막 2년 동안에 이른바 농촌계몽을 위한 남녀학생 십여 명의 서클에 영애도 참가해서 비교적 열성있는 멤버 구실을 다한 셈이었거니와 재학 중의 일인지라 해마다 한두 철 방학 때에다 그나마도 과히 원거리거나 교통이 그리 불편한 고장이 아닌 지방을 토파서 고작 5, 6일 정도씩을 실지로 답사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칠밖에 없었다.

졸업 후 비로소 십여 명 가운데 너댓 명이 사회인으로서의 모험을 겸해서 뚜염뚜염이나마 1년이라는 기한을 작정하고, 한 지방에서 서너 달씩 역시 그들로서는 종래 학창시절의 물심(物心) 단위를 벗어난 계획을 실천하여 사실상 경상도 전라도 제법 고생길에 해당되는 산간벽지들을 수소문해 다녀 보았다.

때문에 지금 지루하고 고달픈 시외 버스에 몸을 맡기고 거의 한나절을 시달리면서 무수히 헤치고 지난 강원도의 산야가 비록 생소할지라도 영애가 스스로 굴하지 않는 심정을 견지하기에 가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리라.

그 길이 더더구나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문제의 인물 진길수(陳吉秀)와의 엉뚱한 해후(邂逅)로 통하는 길일 줄이야…….

"이제 다 왔습니다."

늘치븐한 봄볕이 어느덧 자욱한 안개를 몰고 원시림에 가까운 심산유곡을 어루만지며 어둠의 장막을 드리울 무렵이었다.

지나친 긴장으로 버티던 끝에 어렴풋이 졸음에 빠졌던 영애는 홀연 교장의 말소리를 귓전에 감작으로 놀라 현실과 이마받이 하는 찰나에 버스도 지친듯 덜퍽 무릎을 꾸는 달구짓소 모양 세찬 진동에 이어 고철처럼 섰다. 몇 명 남지 않은 승객들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뿌우연 땅거미를 밟고 서서 서성거린다 했더니 우루루 몰려왔다.

남녀노유 그 모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알고 보니 교장—아니—영애—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인차 당도한 교장의 집, 협쑤룩 하나 꽤 넓은 양철집에는 흡사 잔치가 마련된 일무리집과도 같이 훈훈한 고깃국 냄새를 얼러 연기처럼 서려 나오는 김으로 인해서 자세치 않은 부엌을 중심 해서 아낙네들의 걷어부친 팔소매가 부산히 얼찐거렸다.

대청과 좌우 안방 건너방 할 것 없이 말하자면 요릿상이 가득히 준비되고 있었다.

대뜸 간단없는 인사소개에 휘말려서 영애는 무수히 머리를 숙이는 고역을 마치고 음식에 착수하기 직전

"가만있자 전 선생이 아직 안 오셨나?"

유난히 두리번거린다 했더니 교장은 이렇게 중얼거리던 참,

"아 저기 오시는군……"

희미한 속에 겉차림도 어쩐지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무척 달라져서 영애는 단지'저 청년도 선생인가'아니면 마을의 모범 청년 정도로 여겨 외면을 했건만 정작 얼굴을 대하자.

"어머나!"
"아 —"
교장의 소개하려던 손짓이 무색하리만큼 두 사람은 꼭 같이 열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거니와 한참만에 "미스 김이 웬일이냐" "미스터 진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고받는 첫마디 말부터가 또한 그들 두 사람의 놀라움만 못지 않은 경이와 희한한 느낌을 마을 사람들에게로 퍼 안겨준 셈이었다.
그제서야 교장이 무릎을 치며,
"참 두 분이 같은 S대학이셨구만요"
"그렇습니다. 아주 동기동창인데다가 같은 반 앞 뒷자리 친구였습니다"
"옳아 옳아! 그거 참!"
교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양 신바람이 났으며,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덩달아 감격이요 감탄이었다.

길수의 고향이 강원도와는 향방도 다른 서북쪽 38 이북이라는 것은 영애도 익히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날 거기서 만난데 대한 놀라움은 더 컸다.
노총각 노대학생으로 알려졌던 이면에는 또한 중도에 병역을 필했기 때문이었음도 알고 있거니와 바로 그 병역이 길수로 하여금 그다지나 뿔빠지고 낯설은 고장이었을 강원도 치고도 깊숙한 산촌과 인연을 맺도록 이끌어 준 발판이 되었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애도 금시초문이었다.
"정말 놀랐어요 미스터 진!"
"더 놀란 건 미스 김 보다도 나였을거요"
"아무튼……놀랐어요. 딱히 언제였는지 알 수 없는 채 미스터 진이 서울서 보이지 않는다구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길 와 계셨구만요"
"…….……."
짐짓 말을 꺼내려다 말고 길수는 조심스러우나 미쳐 숨길 수 없는 한숨을 삼키고 잠잠했다.
영애도 얼른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반드시 길수가 서울 거리에서 사라지기까지 서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그 시기의 미묘한 서로의 사이를….
애정이니 우정이니 그런 것들에 의한 상관에서가 아니었다.
구태여 진심을 꺼내 놓고 본다면 거의 범연찮은 영역으로까지 관심과 심리가 번졌던 사람이 영애였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고만한 단계에서 두 사람의 사이는 보다 더 큰 것 같은 성질과 문제로 인하여 산마루에서

등을 대고 동쪽 서쪽으로 멀어져 나려간 사람들의 꼴이 아닌가.
이른바 사상(思想)이니 주의(主義)니 하는 문제…….
가뜩이나 4·19를 고비요, 제철인 양 나라의 질서에까지 미치게 했던 학생사회의 그 불현듯이 비등하려 했던 불분명한 사상 대두가 그들에게는 (물론 애정이 그만큼 여물기 이전이기도 했거니와) 가장 큰 문제였던 셈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영애는 원래 이 박사면 그만으로 우러러 모셨던 완고파 보수정당의 간부급이었던 아버지의 딸이오, 그 아버지와 꼭 같은 오빠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영애 자신 또한 추호의 이견(異見)도 없는 다만 그러한 부형에게서 정치성만을 제의하고는 어김이 없는 첫째 반공주의였다.
거기 적이 호감을 느끼기 비롯했으며 대학동창으로서 얽힌 우정의 폭을 넘어 바야흐로 가슴 설레는 연정의 세계로 발전하려던 시기에 길수가 돌연히 혁신 그룹으로 갈려져서 이른바남북협상에 솔깃한 언동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영애가 느꼈던 실망과 고민은 클 밖에 없었다.
자연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었거니와 뜻 맞는 벗들끼리 길수가 화제에 오르는 경우 미련과 원망 대신 핀잔을 표시하게 되는 것 또한 어쩔 길 없는 노릇이었다.

허나 불과 2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현실은 두 사람을 놓고, 이렇듯 다행할 수가 있는가.
길수는 적어도 이 마을을 중심한 인근 여러 고장에서 공통되이 명예로운 평판과 소문으로 자자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영애가 부임해서 가난한 산촌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이르른 이 학교의 유래를 들어 보아도 당초 일등병으로 마을 뒷산 일선 부대에 배속된 이래 분주한 군무 틈틈이 성인교육에서 출발했던 결과가 가져다준 보람이었다.
물론 길수가 부대를 떠나던 때에는 겨우 두 개의 교실과 교실 절반 만한 교무실로 설계된부록크 교사가 세워졌을 뿐이었으며 길수는 제대와 동시에 자신의 학업을 끝내기 위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길수가 공들여 닦아 준 터는 길수가 뿌려준 씨앗이 싹 돋고, 무성해서 꽃피고 열매 맺어 번식하듯 보람을 내었다.
길수와 다름없는 또 한 사람의 일꾼인 교장의 노력과 공로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5·16 혁명 직후 이 마을에 다시 진길수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기쁨, 반가움, 그리고 앞마을에의 희망은 이미 이루어진 듯 충만했다.

학교는 그만하니, 길수는 새로이 재건 운동에 주력한 결과 2년 만에는 보아란 듯 약초 재배를 위주로 한 개량농장과 부락마다 양계, 양돈, 양토 등……

"이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서울을 가서 감히 김영애 선생님을 모셔오게 된 일만 하드래두, 사실은 저 진선생께서 우선 재정적인 뒷받침을 떠맡아 주시는 덕분으로 해서 된 거랍니다."

교장의 설명이 무용할 만큼, 길수가 이루어 놓은 업적도 업적이려니와 진수를 지도자로 해서 뭉쳐진 단결의 테두리와 굳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추측함으로써 마을의 장래까지를 풍성히 바라볼 수 있거니…….

어느 날 단둘이 속삭이던 끝에 길수는 우연히 5·16 이전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생각하면 사상 이전에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사고방식이었죠, 그렇지만 그 시절만 해도, 대학 졸업반이던 내 심경이나 소견에서 볼 때, 더구나 사고무친한 내 처지에서 쌓이고 쌓인 일가친척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때로 폭발할 듯, 미칠 듯 용솟음치는 수가 있었던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밖에……."

"……."

"비록 초년병이었지만 사회에 나서서 5·16 혁명을 맞이한 것은 의미가 컸습니다. 덕분에 치료해서 고친다거나 얻을 길 없는 고향을 놓고 덧없이 회향병으로 신음하는 따위의 꿈을 깨고 여기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반겨주는 데로 와서 새로운 고향도 내 손으로 만들고 개척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길수의 말이 끊일 때마다 무어라고 한마디씩 곁을 들어야겠는데……영애는 얼른 신통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달리 표시를 한다는 움직임이 엉뚱스럽게도 길수의 팔을 끼다가 슬며시 후끈한 손을 잡았다.

"그때, 미스 김의 이 따뜻한 손길이 있어서 나를 좀 건드려 주었던들 그다지나 괴로움을 치르지는 않았음직도 한데……."

"……."

멀, 그땐 그때대로 그렇게 되질 못하도록 되었던 탓이 구태어 영애 자기에게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하는 말을 또 흘려버린 채 잡은 손만 오물오물하자 길수는 다시,

'따뜻한 손!'

속으로 뇌이며 입가로 끌어 올렸다.

편집후기

◇……공군으로 새 단장을 하고 어느덧 네 번째 책을 내놓는다. 장병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식의 원천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 당초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고자 정말 몸과 마음이 바빴다. 장병 여러분의 구김살 없는 평가를 바라며 그동안 직접 간접으로 조언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집「군인(軍人)· 군기(軍紀)·명령(命令)」을 엮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기는 군의 명맥이며 명령은 군기의 근본이다.

스스로가 차분한 심경으로 자아반성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바쁘신데도 좌담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아울러 사의를 표한다.

○…벌써 휴전 10주년이 되었다. 김영수(金永洙) 중령님의「휴전십년(休戰十年)의 회고(回顧)」와 한덕재(韓載德)님의「휴전십년(休戰十年)에 북괴(北傀)는 무엇을 했나?」두 글은 쉴새 없이 발톱을 갈면서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적을 알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취할 바 태도를 되새기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는다.

지상강좌「민주주의 원리」와「공산주의 비판」은 회를 거듭할수록 뼈있는 내용과 친절한 안내로「정신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많이 기대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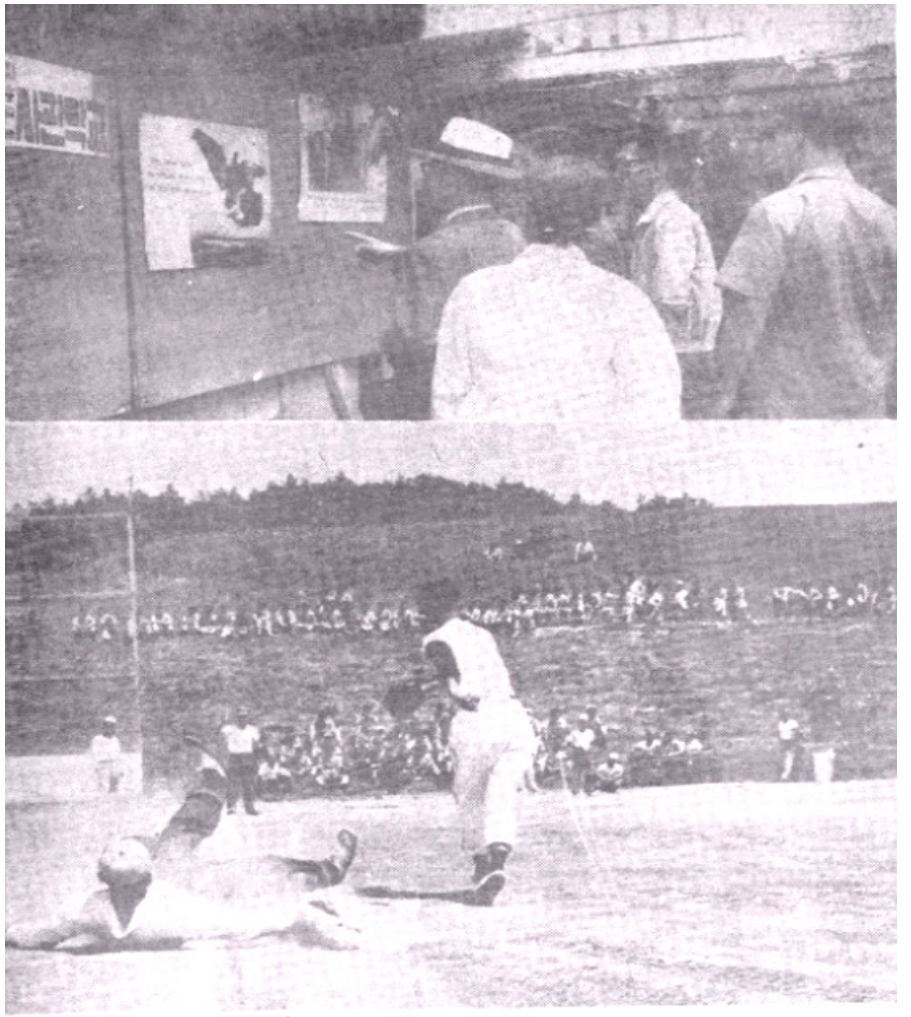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연재하던 김형석(金亨錫)교수님의「현대철학강좌」를 이번으로 끝맺었다. 오늘날 시대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조를 순례한 이 글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풍성히 살찌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믿는다.

대미(大尾)를 맺어 주신 필자 김 교수님의 건필을 빈다.

○……이제 초복을 넘기면서 무더위가 고비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4/4분기 편집계획을 서둘러야 하니 정녕 편집자는 계절을 초월해야 하나 보다. 더위를 맞아 한층 건강에 유의하여야 겠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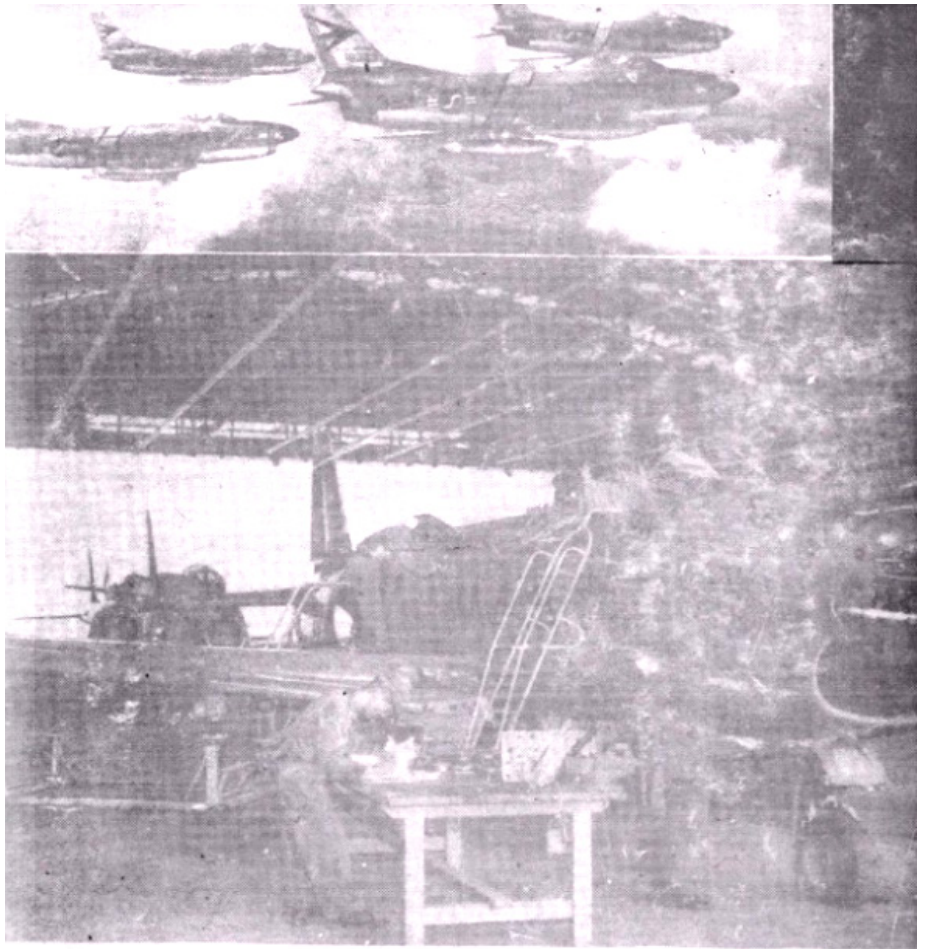
○……7월은 우리에게 반성의 달일지도 모른다. 3·1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던 7월 17일의 제헌 열다섯 돌—. 그저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단지 우리는 이 허물어져 가던 조국을 바로 잡기 위한 5·16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보다 분발하는 각오로서 이날을 기념할 뿐이다.

○……우리는 이 분발이 7월 27일과 직결될 것을 느낀다. 사상 유례가 없는, 민족의 대 희생을 치루고도 우리의 숙원인 실지회복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북괴 응징의 총뿌리를 걷은 7월 27일의 휴전 10주년—. 휴전선이 조국의 땅 위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건설과 전쟁을 동시에 치루는 국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7월은 반성의 달인 동시에 분발의 달이라 하겠다. (영)



(상) 6 · 25 사진전시회 성황
6 · 25 제13주년을 맞아 6월 17일부터 1개월간 서울, 부산 두 곳에서 6 · 25를 전후한 우리 공군의 활약상 사진전이 개최되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 : 서울시청 앞의 전시회 광경)

(하) 본부 각 국감실 대항 야구전
본부 각 국감실 대항 야구전이 6월 13일부터 3일간 개최되어 장병의 체위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사진: 야구전 광경)



F-86D 창정비에 성공 항공본창 81수리창에서는 6월 20일 F-86D 창정비에 성공하여 막대한 국고의 절약은 물론 우리공군 정비진의 기술을 또다시 내의에 과시하였다.

(사진 : (상) 위세도 당당한 F-86D 편대, (하) F-86D 창정비 광경)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